

우신 스님 (혜일암 주지)
어르신 위한 자비의 공양간,
전철역 무료급식 보시행 13년
16 · 17면

현대불교

창간 20년
2014



금주의 법구-〈장로게경〉
많이 배운 사람을 가까이하라
그리고 배운 것을 잊지 마라.
이것이 진정한 삶으로 가는 길이다.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8년 단기 4347년(음력 5월 1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996호 2014년 6월 11일 수요일

장학·특례 확대 '젊은 출가' 유도

조계종 교육원, 청소년·청년 출가자 특례 시행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실제 지난 10년 통계를 살펴보면 이는 명약관화하다.

조계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출가자는 476명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줄고 있는 중이다. 2011년 268명이었던 출가자수는 2012년에는 219명으로 뚝 떨어졌다.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젊은 인재의 출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제도 중 하나가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이다.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 은 지난해 6월 제정, 8월에 공포됐으며, 이후 일부 개정과정을 거쳐 올해 4월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 등록 청소년 · 청년 출가자들은 다양한 장학지원과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6월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따른 청소년과 단기 출가자들에 대한 장학 지원 제도 등을 설명했다.

우선 특별법에 의거해 만 13~19세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소년출가자들은 행자교육과정 중 일상 · 입문 · 본사교육이 면제된다. 이들은 수계교육 이수 후 5급 승가고시를 통해 사미 · 사미니계를 수지할 수 있으며 승가대학에 진학할 경우 우선선발의 특전이 주어진다.

또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불교대학 등 종립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등록금과 수업료를 지원한다. 구족계 수지 후 1년 이내에 종립대학원과 종단의 전문교육기관(중앙승가대 · 동국대 대학원 석 · 박사 과정)에 진학할 경우에도 우선 선발 특전과 함께 장학금이 수여된다.

만 19~30세 청년 출가자에게는 사미 · 사미니계 수지 후 승가대학에 진학할 경우 우선선발 특전과 종립대학에 등록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구족계 수지 후 1년 이내 종립대학원과 종단 전문교육기관에 진학을 원하면 우선 선발 특전과 장학금을 수여한다.

이밖에도 특별법에는 군법사에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과 전역 후 공찰사암 우선 임용으로 포교사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대상자는 청소년 출가자 6명(남행자 5명, 여행자 1명), 청년 출가자 35명(남행자 23명, 여행자 12명) 총 41명으로 교육원은 이들을 대상으로 장학 지원 및 특례에 대한 공문을 발송했다.

문제는 이들 장학 지원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수급이다. 교육원에 따르면 청소년 · 청년 출가자를 위한 장학 지원 예산은 2015년 3400만원, 2016년 6000만원, 2017년 8800만원, 2018년 1억 1800만원 등 4년간 약 3억여 원이 필요하다.

승가진흥기금이 조성돼 있지만 이는 비정기적 후원금으로 장기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는 맞지 않다. 안정적 사업을 위한 일반 예산으로의 편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종립대 진학 등록금 면제
대학원 우선 선발 · 장학금
청년 출가자 군법사 선발
전역 후 공찰 소임 우선

대상 41명… 4년간 3억 원
특수 사업 아닌 예산화 필요

이에 대해 조계종 교육국장 가섭스님은 "종단 장학제도 등을 활용한다고 하면 당장 4년동안은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문제는 현재 인원이 대학원으로 진학하고 추후 출가 인원이 늘어나면서부터다" 면서 "지원기금보다는 청소년 · 청년 출가자에 대한 장학 지원 사업을 일반 예산으로 편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종령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년 출가자 및 단기출가자 제도를 정착시켜 현대사회에서 종단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세월호 침몰 사고 49일을 맞은 6월 3일 전국 주요 사찰에서 49재가 봉행됐다.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린 49재에 참가한 사부대중이 헌화를 하며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있다. 사진=박재완 기자

"마음모아 기원하니 왕생극락하십시오"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 49재 전국 주요 사찰서 봉행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합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의 마음을 모아 기원하오니 세상에 남은 한을 모두 거두고 편안히 가시옵소서."

세월호가 침몰된지 49일째인 6월 3일 서울 조계사를 비롯해 전국 사찰에서는 그 희생자들의 영가를 천도하는 49재가 진행됐다.

서울 조계사(주지 원명)가 3일 대웅전에서 진행한 49재에는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을 비롯해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 총무원 사서실장 심경 스님 등 스님들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와 부인 최명길씨, 유인태, 도종환 의원 등 400여명이 참석해 희생자 영가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총 50분간 진행된 49재에서는 〈불설아미타경〉 독경을 시작으로 포교원장 지원 스님과 스님들의 헌다와 헌향의 순서로 엄숙히 이어졌다.

49재에 참석한 조계사 신도는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너무나 슬프다. 부디 49재를 계기로 극락왕생하길 바란다"며 "사고 수습과 함께 유가족의 아픔을 더는 일에도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진도 팽목항에서 법당을 운영하며 실종자 가족들과 민간 잠수사들을 지원하고 있는 전북 고창 선운사(주지 법만)도 6월 3일 대웅보전에서 세월호 희생자 49재를 봉행했다. 연수국장 법천스님의 집전으로 진행된 49재는 선운사 초기불전승가대학원 스님들과 불자들이 동참했다.

이날 49재에 동참한 선운사 대중스님들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 영가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참회와 성찰을 통해 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원했다. 법회는 세월호 희생자들의 천도재와 헌향, 헌다의 순으로 엄숙히 진행됐다.

선운사 관계자는 "꿈을 피워보지도 못한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한 세월호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 하지 않도록 참회하는 마음에서 49재를 봉행했다"고 밝혔다.

6월 3일에는 안산시, 인천시 등 전국 각지의 사찰과 추모공원 등에서 49재가 열렸다. 안산시에서는 지장사, 효원 추모공원, 하늘 추모공원에서 오전 9시부터 49재가 진행됐으며 인천시에서는 미래광장 합동분향소에서 오후 5시 추도식 및 49재가 봉행됐다.

이에 앞서 천태종은 6월 1일 서울 관문사 옥불보전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호국영령 천도재 및 국민화합을 위한 참회대법회' 를 봉행했다. 이날 총무원장 춘광 스님은 추모법어를 통해 "이제는 슬픔과 분노를 자성과 성찰로 갈무리하고 새로운 화합과 상생의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조동제 전북지사장

996호 INDEX

시방세계 5
백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 기념식



종합 2·3
도난 성보 백서 'UP-GRADE' 된다
동부전선 거점 호국도량 건립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10일 회향
〈오래된 미래〉 호지 박사 강연
평생 모은 1억 기부한 원명 스님

불자불자들 4
팔공총림 동화사 신임 주지 덕문 스님

신행 · 복지 6·7
한마음과학원 학부모 프로젝트
발달장애가족 위한 복지관 프로그램

광역단체장 불자 3명 당선

6.4 선거 결과… 서병수 · 권선택 · 최문순 등

박원순 · 조희연 · 원희룡
친불교 인사들도 '약진'



서병수



권선택

6월 4일 진행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총 3명의 광역단체장이 탄생했다. 시도지사선거에서 3명의 불자 후보가 당선됐다.

불자 당선인으로 이름을 올린 불자 당선인은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새누리당)과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강원지사 당선인(새정치민주연합) 등이다. 이들은 모두 국회의원 불자 모임인 정각회 출신으로 조계종 중앙신도회 지도위원 소임을 맡고 있다.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인은 아버지인 서석인 前 해운대구청장은 부산 해운정사 신도회장을 역임하는 등 대대로 불심이 높으며, 본인 역시 바쁜 일정을 소화하면서 신행생활을 열심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인은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레 불자의 길을 걷게 됐다. '선택' 이나는 이름도 스님이 지어준 것이다. 재임에 성공한 최문순 지사 역시 취미를 '참선' 으로 소개할 정도로 깊은 불심을 자랑한다. 실제 민주당 시절 당내 불자 모임인 연등회장과 정각회 간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인,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 등 종교는 다르지만 친불교 성향 인사도 약진했다. 이에 따라 불교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도 순항이 예상된다.



최문순

실제 서울시장에 재임한 박원순 당선인은 지난해 8월 조계종과 '견지동 역사문화관광자원 조성 업무협약' 을 체결한 바 있다. 박 시장이 재임에 성공함에 따라 조계종 총본산인 조계사 성역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당선자의 경우 5월 22일 열린 '불교계 서울시교육감후보 초청 좌담회' 에서 학내 종교자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조 당선자는 "공교육기관인 학교에서 특정종교를 강요하는 것은 헌법 위반" 이라며 "원치 않는 종교계 학교에 배정되었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배정기피신청제도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 고 말했다.

불교계 인사와도 친분이 두터운 원희룡 제주도지사 당선인도 5월 24일 제주시 관음사에서 열린 제주불교연합회 주관 '제주불교와 선거 후보자 간담회' 에 참석해 "불교 문화재 관리에 정부 지원을 이끌어 낼 것" 이라고 밝힌바 있다. 신성민 기자

조계종 중앙종회, '안목 넓히기' 나선다

6월 23~24일 의원 연수… 불교인문학 등 주제

조계종 중앙종회가 의원들의 사회현안에 대한 식견과 안목을 넓히기 위한 연수를 진행한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향적스님)가 제198회 임시회를 앞두고 오는 6월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불기 2558년도 중앙종회 의원 연수' 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중앙종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종단 및 사회현안의 식견과 유대강화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승려 연수교육에 관한 령' 제14조 2항에 따라 종단 정식 연수교육으로 인정된다.

23일 오후1시30분 입재식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연수는 제24교구 본사 선운사 불학승가대학원장 재연스님의 '원시경전과 한문경전의 비교' ,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불교인문학 강의' , 홍세화 작가의 '현대 한국사회를 말한다' 등의 강연이 진행된다.

중앙종회는 연수에 이어 6월25일부터 29일까지 국제회의장에서 제198회 임시회를 열고 최근 입법예고에 들어간 총무원장 선거법 개정안 등 종헌 · 종법 제 · 개정의 건을 다룰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동부전선 거점 법당 들어서다

군종교구 5월 30일 호국육칠사 낙성

군종교구는 5월 30일 강원도 철원군 소재 6사단 문혜리지역에서 호국육칠사 낙성법회를 봉행 했다.

건축부지 140평, 법당 60평(180명 수용), 대중방(선열당) 30평 등으로 신축된 호국육칠사는 총 1억 5000여 만원이 소요됐으며 남해 보리암 주지 능원 스님이 건립불사금 1억 500만 원을 후원했다.

호국육칠사가 건립된 문혜리 지역은 군단 및 사단 병력이 1만명 이상 집중는 지역으로, 군 요충지 법당으로서 10여 개의 부대 장병들이 법회에 동참하는 거점법당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날 낙성법회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남해 보리암 주지 능원 스님, 육본 호국사 주지 보운 법사, 5군단 금강사 월명 법사, 6사단 청원사 현담 법사 등 10여 명의 인근지역 군승과 6사단장 이재형 소장과 5군단 참모장 김한태 장군, 제53대 7연대장 고태남 대령등 불자장병 120여명이 동참했다.

이재형 육군 6사단장은 "호국육칠사는 군장병을 비롯해 이곳을 찾는 모든 불자들에게 마음의 위안과 안식처를 제공하고 바른길을 갈 수 있는 훌륭한 길잡이가 될 것"이라며 불사에 동참해준 이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은 "우리들은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힘과 용기,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자양분이 되고 비타민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오늘 호국육칠사 낙성식에 참석한 불자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한다"며 "노후 법당 등이 산재한 상황에서 다른 군법당에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사진 왼쪽 두 번째)과 이재형 육군 6사단장(사진 왼쪽 세 번째) 등 불자들이 낙성식 이후 합장하며 불법홍포를 다짐하고 있다.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다시 연다

조계종 중앙신도회 6월 19~20일 광화문광장서 개막식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 좋은날(이사장 이기흥)은 지난 4월 잠정적으로 연기했던 '2014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개막행사'를 6월 19~20일 양일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다.

날마다 좋은날은 "지난 4월 16일, 갑작스러운 세월호 참사로 전 국민적 슬픔에 잠긴 가운데 본 법인은 유가족과 국민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되길 바라며 행사를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잠정 연기했다"며 "오는 6월 19~20일,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장소를 변경해 연기했던 개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의 슬픔을 극복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하며 남은 이들의 평안과 치유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재구성해 진행된다. 20일 오후 7시 본행사 알림식에 앞서 오후 4시 국민힐링 즉문즉설, 6시 희망의 메시지 보내기가 진행되며 이밖에도 △전통등 희망솟대 세우기 △니르바나 오케스트라 연주회 △북청사자놀이 공연 △축하공연(난타、인디밴드 등) △야간야외영화상영 등을 비롯한 전통문화 체험 및 전시부스가 19일부터 20일까지 상설 운영된다.

또한 21일부터 7월 5일 15일간 서울, 수원,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전국 108개소에서 나눔문화 캠페인을 펼치게 된다.

이기흥 이사장은 "2년차를 맞이한 행복바라미가 세월호 참사의 시대적 아픔을 안음과 동시에 불교계가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공헌 사업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조계종 도난 성보 백서 'UP-GRADE' 한다

조계종 문화부 2일 기자회견서… 호법부 · 사찰 연계 추진

조계종이 도난 문화재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과 함께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도난백서를 새로이 제작하고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혜일)는 6월 2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도난백서 재발간을 비롯해 일선 사찰에 도난신고 공문 발송 등 수습조치를 설명했다.

혜일 스님은 "문화부와 불교문화재연구소, 불교중앙박물관 직원들이 그동안 모아온 도난목록 대조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 정보를 〈도난백서〉로 발간해 종단 안팎에 홍보할 방침"이라며 "호법부와도 연계해 도난당한 성보 문화재 정보를 수집 · 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은 이미 1984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불교회화, 불교조각, 탑파, 석등, 불교공예, 전적, 경판 등 도난된 불교문화재를 대상으로 백서를 발간한 바 있다. 문화부는 지금까지 총 300여 점의 도난문화재 향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도난시기, 유통경로 등에 대한 기록 부족으로 회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혜일 스님은 "〈백서〉 발간 · 홍보는 도난된 불교문화재가 거래되는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도난품 거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성보 도난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문화부는 5월 29일 〈도난백서〉 등을 토대로 전시전 물품 모니터링을 통해 경매 직전 도난문화재를 발견해 회수한데 6월 2일에도 같은 경매장에서 도난문화재 1점과 사설박물관에서 2점을 추가로 발견, 회수조치했다.

백서 발간 이후 도난 건수 '급감'

M옥션·H박물관서 3점 추가 회수

"도난 성보 거래 원천봉쇄 나설 것"

추가로 발견된 도난문화재는 M옥션에서 회수한 남원 선국사 '삼불회도', H박물관에서 회수한 경주 백률사 '노사나불회도'와 전주 서고사 '나한상 복장유물' 등이다.

조계종 문화부의 도난백서 및 관리시스템 구축 계획은 이러한 모니터링에 의한 회수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계종 문화부는 경찰 · 문화재청과 M옥션 경매물품을 조사해 총 18점 중 5점을 회수했지만 나머지 작품 중 도난문화로 추정되는 물품들은 그대로 경매에 붙여졌다.

특히 완주 송광사 칠성도로 추정되는 작품은 사찰 측 신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혜일 스님은 "이같은 사건의 방지를 위해서는 사찰의 적극적인 신고와 총무원-경찰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성보보존위는 최근 발간한 〈성보〉 9호에서 조계종이 사찰문화재 실태 파악, 도난백서 발간 등에 나선 2002년을 기점으로 매년 10건에서 4건 이하로 성보문화재 도난사건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분희 조계종 문화부 행정관의 '해외유출 불교문화재 현황과 환수방안' 보고서에서 〈도난백서〉 발간 이후 공항과 항만, 경찰서 등에 배포돼 도난문화재가 불법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했다"며 "매년 평균 10건 이상 도난사건이 2002년부터 4건 이하, 2007년부터 2건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 행정관은 "해외 유출된 문화재 환수 등 과제가 남은 만큼 유출경로에 따라 기증과 구입, 반환요구 등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노덕현 기자**





M옥션에서 추가로 회수된 '남원 선국사 삼불회도'(왼쪽)와 H박물관에서 회수된 '전주 서고사 나한상 복장유물'. 문화부는 이같은 도난문화재의 회수를 위해 도난백사를 재발간 할 계획이다.

용주사 정호 스님 조계종 법무팀에 공개 토론 제의

"사미 · 비구계 허위 승적, 특별법 적용 예외" 주장

조계종 제 2교구 용주사가 차기 주지 인선을 놓고 갈등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정호 스님이 차기 주지 유력 후보인 A스님의 승적에 대한 승적관련특별조치법 유권해석에 의문을 제기하며 조계종 법무팀에 지상 공개 토론을 제의했기 때문이다.

정호 스님은 6월 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승적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총무원측에 유권 해석을 요청했다"면서 "하지만 법리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어서 종단의 공식입장으로 보기 어렵다. 공문으로 예고한 대로 이 문제를 공론에 부치고자 지상 공개 토론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스님은 "용주사는 20년 동안 전강문도회의 규칙에 따라 평온하게 주지 후보를 선출해왔으나 해당 스님이 이를 무시하고 경선을 주장했다"면서 "문도의 자존과 긍지를 훼손해 해당 스님의 자격을 종헌종법으로 검증한 결과 승려의 지위취득에 관해 결정적 하자가 있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정호 스님은 A 스님의 승적 문제에 대한 구체적 사실들을 적시했다.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승적부에 올려져 있는 A 스님의 승적에는 1977년 범어사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79년 봉선사에서 월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고 기술했으나, 해당 본사에 확인한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며 "범어사에서

"문도 A 스님 승적 허위 논란

수계 년도에는 승려 생활 안해"

승적 관리 특별법엔 해당 불가

는 1977년 당시 전계사로 고암 스님을 모셨던 것으로 회신됐으며, 봉선사에서도 정확한 수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실 관계를 확인한 정호 스님은 총무원에 허위 승적인 스님이 '1981년 단일계단 이전 승려'가 해당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승적 관리 특별조치법'의 적용 범위가 특별법 공포 당시 단일계단 이전에 계를 수지한 것으로 이는 모든 스님에게 해당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만 돌아왔다는 게 정호 스님의 주장이다.

정호 스님은 "조계종 법무팀의 유권해석 대로라면 허위로 형식적인 요건을 갖춰 만들어진 승적도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며 "이는 범계 행위이자 비도덕적인 비위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정호 스님은 총무원의 공개 반론을 공식 요청했다. 스님은 "특별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논리적 모순과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돼 종단의 공식 의견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허위 승적을 가진 스님을 단일계단 이전 승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6월 14일까지 공개적인 의견 개진이 없을 경우 종헌 종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주지 선거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4월 제정 공포된 '승적 관리 특별조치법'은 1981년 단일계단 이전 수계 승려의 경우 2013년 4월 1일까지 총무원 총무부의 승적관리종무행정 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대로 확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3급 승가고시 단답형 문제 공개돼

고시위, 1일 문제집 공개

처음으로 단답형 문제가 출제되는 조계종 3급 승가고시의 예상문제가 공개됐다.

조계종 고시위원회(위원장 지안)는 6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 '2014년 3급 승가고시 단답형 예상문제집'을 제작, 배포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그간 1교시 필수과목이던 '조계종사' 논술형 문제 대신 단답형 주관식 문제가 출제됨에 따라, 스님들의 부담감을 줄이고 학습한 내용을 교학적으로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예상문제를 미리 공개했다. 하지만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답은 따로 공개하지 않는다.

예상문제집에는 각급 교육기관 교수 및 전문가 등에 의해 출제된 263문제가 담겨 있며 이중 50문제가 그대로 출제된다. 3급 승가고시 논술주제와 단답형 예상문제집은 종단 홈페이지(www.buddhism.or.kr)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한편, 3급 승가고시는 오는 10월 9일 중앙승가대학에서 열린다. **신성민 기자**

봉 국운융창 국태민안기원 행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창종 14주년법회 제 5대 종정추대 및 총무원장취임식

한국불교 중흥조 경허선사로 이어온
선맥을 전수받은 만공선사, 혜천선사, 도일선사의
법을 이은 고봉당 지산대종사께서
본 종 제 5대 종정으로 추대되어 취임식을
봉행하기로 하였습니다.

本宗은 釋迦牟尼佛을 敎祖로 太古 普愚 國師를
宗祖로 하여 釋迦世尊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根本敎理를 奉體하며 直指人心 見性成佛
傳法度生을 종지로 하고 있습니다.

종도모집중
현 종도 422명. 등록사찰수 382개 사찰

일 시 / 불기 2558년 6월 7일(토요일 오후 1시)
장 소 / 경남 양산시 석계리 900-1 경남교구 종무원 금조선원

종 정 예 하 : 고봉당 지산 대종사
전계대화상 : 석능인 대종사
원 로 의 장 : 범아 대종사

총무원장 : 혜송종 / 종회의장 : 법장 / 사정원장 : 법화 / 중앙선원장 : 덕암
교육원장 : 무변 / 포교원장 : 효천 / 호계원장 : 인묵 / 염불원장 : 상호
문화원장 : 영봉 / 무술연수원장 : 도천
사서실장 : 원담 / 총무부장 : 혜천 / 비구니부장 : 홍신 / 재무부장 : 수연
교육부장 : 혜광 / 호법부장 : 광명 / 사회부장 : 보운 / 규정부장 : 도신
경기교구종무원장 : 인덕 / 경남교구종무원장 : 금조 / 충북교구종무원장 : 정진 / 대구교구종무원장 : 법천

■ 총본산 : 경북 칠곡군 지천면 낙산로5길 197번지 각황사 053) 325-0400 팩스 053) 325-4848 ■ 대본산 :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 1040번지 운진사

항일 운동가 초월 스님 6월 독립운동가로 선정



용성 · 만해 스님과 함께 불교계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사진〉이 독립기념관과 국가보훈처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6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

독립기념관은 6월 동안 야외 특별기획전시장과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백초월 스님의 관련 자료 15점을 전시하며, 초월 스님이 활동한 서울 진관사는 6월 10일 오전 11시 추모재와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878년 경남 고성에서 태어난 초월 스님은 30대 초반의 나이로 진관사를 비롯 전국 사찰을 돌며 항일이념인 일심교를 전파했으며 1919년 한국민단본부를 조직하고 독립운동자금을 모집해 임시정부와 독립군에 전달했다.

3 · 1운동 당시에는 민족대표로 활약한 만해, 용성 스님이 일제에 체포되자 승려독립선언서와 의용승군제를 추진하며 불교 독립운동의 구심체가 됐다.

초월 스님은 1939년 용산역 '대한독립만세' 격문 작성을 주도하다 일제에 체포돼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 후에도 군자금 모집을 계속하다 다시 붙잡혀 1944년 옥중 순국했다.

1990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지난 2009년 5월에는 서울 진관사 칠성각 벽면에서 스님이 제작한 태극기와 당시 독립신문 등 항일 운동 관련 자료들이 대거 발견된 바 있다.

노덕현 기자

통도사 대광명전 영산전 보물 지정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양산 통도사 영산전과 대광명전을 보물로 지정했다.

보물 제1826호 '양산 통도사 영산전(梁山 通度寺 靈山殿)'은 1714년에 건립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다포계 맞배지붕의 건물로, 통도사 하로전(下爐殿)의 중심건물이다. 상부 가구와 공포 형식은 18세기 초 불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보물 제1827호 '양산 통도사 대광명전(梁山 通度寺 大光明殿)'은 1758년에 중건된 정면 5칸, 측면 3칸의 다포식 팔작지붕 건물로, 통도사 중로전(中爐殿)의 중심 불전이다. 부재의 마름질과 조각 수법이 우수한 불전으로 평면 구성과 공포 형식, 창호 등에서 18세기 중반의 다포계 불전의 건축적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노덕현 기자**

"진영논리 타파할 '시민위원회' 구성하겠다"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 10일 회향… '야단법석'으로 전환

전체 이동거리 12,000km. 도보로 이동한 거리 1000km.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가 이동한 거리이다. 지난 3월 2일 제주 한라산 백록담에서 천고제로 시작된 100일 순례가 6월 10일 조계사에서 회향식을 갖고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순례단은 상근 순례단원 20명을 비롯해 지역 참여 단원 등 평균 50여 명으로 구성돼 제주, 부산, 경북, 대구, 전남 광주, 강원, 인천 등 전국 방방곡곡을 다녔다. 전국에는 수많은 갈등 현장이 있었고, 이곳에서 순례단은 30회의 이야기마당, 10여 곳에서의 합동위령제, 5곳에서의 국민통합문화제를 진행하기도 했다.

특히 5월5~6일 진도 팽목항을 찾아 '생명평화 세상을 염원하는 500배 절 명상과 기도회'를 열고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 진실규명과 대책마련에 대한 의견을 들으며 사람과 생명을 중시 여기는 사회로의 전환을 발원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번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의 큰 의미는 사회적 갈등 현장에 있는 양 진영 모두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망이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막연했던 길을 찾게 하는 '나침반'이고, '화쟁'의 씨앗이었다는 게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장 도법 스님의 주장이다.

도법 스님은 순례 회향에 앞서 6월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밀양송전탑, 진주의료원, 군산 미군기지, 현대자동차 노조 등 사회갈등의 현장에서 양측 모두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고자하는 열망이 있었다"면서 "소수이기는 했지만 지역사회 안에 뜻 있는 인사들이 '화쟁'이라는 화두에 공감하고 열띤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100일 순례를 한 생명평화결사 운영위원장 김민해 목사는 순례의 성과가 단순히 가시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해 목사는 "10~60대가 동거동락하면서 100일을 함께 걸었고, 갈등 현장을 일일이 확인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면서 "전남 순천에서 국가권력의 희생자 유족들이 군 · 경과 함께 있는 현충탑을 찾아 위령제를 진행했다. 행사를 마치고 유족들 모두 눈물 흘리며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순례단이 전국에 뿌린 화쟁의 씨앗이 머지않아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국 갈등 현장을 누비며, 화쟁과 회통의 정신을 전한 순례였지만 한계와 과제도 존재한다. 지역마다 하루 이상을 머무르지 않는 순례 시간으로 인해 화쟁 정신의 의미를



지난 3월 3일 제주 법경사를 출발해 전국을 순례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가 6월 10일 회향한다. 이후에는 '대한민국 야단법석'으로 전환돼 사회 통합을 위한 운동을 전개한다.

1000km 도보순례 갈등 현장 찾아
이야기마당·좌우합동위령제 등 진행
"100일 순례하며 '화쟁'의 씨앗 파종"
'화쟁' 공감했지만 보편성에는 한계

깊이 있고, 폭 넓게 나누지 못했고, 지역민들의 인식 차가 커 보편성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는 게 순례단의 자체 평가다.

또한 보수 단체의 동참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지 못하고 일부 진보단체에게는 '화쟁'에 대한 공감을 얻지 못한 것도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도법 스님은 "순례를 처음 시작했을 때에 가졌던 바람과 기대보다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는 순례추진단의 자체 역량이 부족하고 주도했던 불교계의 문제의식이 약한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화쟁의 정신을 곳곳에 전했다. 이에 대한 노력은 헛되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진영 논리를 넘어서야 갈등이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도 얻었다"고 강조했다.

향후 순례단은 100일 순례의 회향과 동시에 진영 논리를 넘어서 시민의 손으로 갈등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대한민국 야단법석'을 1000일 동안 진행한다. 이를 위한 '대한민국 야단법석 시민위원회'도 구성된다.

시민위원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과 염수정 가톨릭 서울대교구 추기경, 홍재철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 황도국 원불교 서울대교구장 등 종교지도자를 비롯해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안철수 ·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천오선 정의대 대표 등 보수 · 진보 진영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도법 스님은 "진영 논리의 장벽을 허물지 않는 한 국민 통합의 길은 요원하다"면서 "진영의 벽을 허물고 나온 상식적인 진실의 민심이 나라의 중심으로 우뚝 빛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은 6월 10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에서 '100일 순례 회향 및 대한민국 야단법석 선언식'을 개최했으며, 6월 9일 오후 7시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총무원 기획실장 일감 스님의 사회로 '화쟁콘서트'를 열어 순례단의 그간의 기록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상생과 공존이 미래 세계의 대안"

'오래된 미래' 호지 박사 조계종복지재단 초청 강연

법정 스님, 박원순 서울시장, 최재천 국회의원 등 명사가 추천한 책의 저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박사의 강연이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의 주최로 열렸다. 그가 저술한 〈오래된 미래〉는 개발과 파괴를 일삼는 산업사회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인도 북부 라다크의 전통사회 속 생태 공동체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전세계적 스테디셀러로 자리잡아왔다.

5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속가능한 조화로운 개발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열린 강연에는 성장한계에 부딪힌 한국 사회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해 200여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호지 박사는 개발로 인해 라다크에서 빈곤과 불평등, 마을 공동체와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본 경험을 전하며 경제적 성장으로 대표되는 세계화의 가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문화의 획일화, 환경오염 등을 초래하는 세계화의



헬레나 노르베지 호지 박사는 5월 3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지속가능한 조화로운 개발은 가능한가'를 주제로 강연했다.

인간 근본 가치 되살리는
공존 · 관계 커뮤니티 강조

대안으로 지역화를 제시하며 거대 독점기업이 아닌 더 작은 기업을 지향, 경제의 기본단위를 지역 중심으로 재편할 것을 주장했다. 기본적으로 식량에서부터 시작하는 현대적 자급자족은 식량의 이동거리를 줄임으로써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는 생태적 경제활동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공동체적 유대주의로 인간성의 회복 또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탐욕으로 인해 세계가 병들어 있다고 진단한 그는 "음식, 교육, 에너지 문제 등 일상생활에 관한 모든 것에 대해 스스로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병폐를 외면하지 않도록 하는 실천적 방안은 사회 구성원간 이해를 바탕으로 연대관계를 맺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했다. 불교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내재한 자비와 사랑을 믿는다면 이 역시 어렵지 않을 것이며 이를 기반으로 긍정적 커뮤니티를 되살리는 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계의 가치와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한 이날 강연은 1부 호지 박사가 직접 제작한 '행복의 경제학' 다큐멘터리 강연을 시작으로 2부 강연과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졌다.

호지 박사는 스웨덴 출신의 언어학자 · 세계적인 여성 생태환경운동가로 반세계화 · 반개발 · 탈중심화를 위한 국제 연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비 새는 사찰서 모은 淨財, "인재양성 위해"

원명 스님, 평생 보시금 1억 원 동국대에 기부

대구의 작은 사찰에서 수행하고 있는 한 고령의 비구니 스님이 평생을 모은 돈을 동국대에 기부해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그 주인공은 대구 길상선원 주지 원명 스님〈사진〉. 스님은 5월 30일 동국대 대외협력본부에 1억원 수표를 건넸다.

원명 스님이 기부한 1억 원은 스님이 평소 신도들이 준 약값과 용돈 등을 쓰지 않고 모아두었던 것으로, 스님은 하루 세 끼 외에는 스스로를 위해 돈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님이 기거하는 대구 길상선원은 1979년 문을 연 도심 작은사찰로 15명 내외의 신도가 있는 넉넉지 않은 살림에 사찰 곳곳에도 빗물이 새는 등 열악하지만 스님은 인재양성을 위해 큰 돈을 선뜻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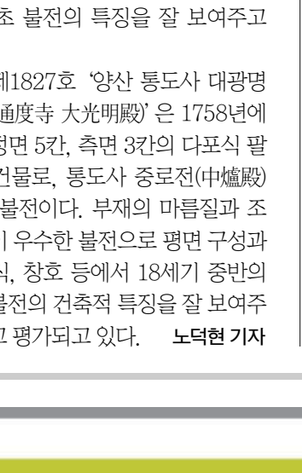
스님은 "부처님의 제자로 당연히 무주상보시를 실천해야 하는데 신도들로 하여금 복을 짓게 하는 권선이 된다면 그보다 보람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평소 불교계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었다"며 "동국대가 발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환희심을 느껴 기부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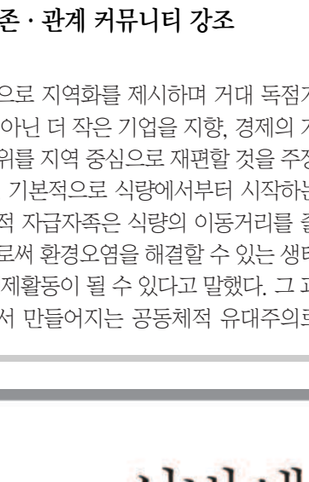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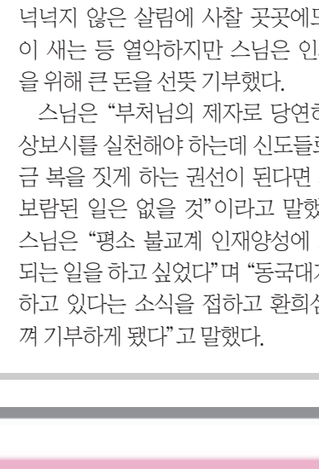
원명 스님은 2004년에도 인재양성에 써달라며 1000여만 원을 기부한 바 있다.

한편, 원명 스님은 대표적인 비구니 선승으로 꼽히는 장일 스님을 은사로 20대에 출가해 동국대 이사장 정련 스님의 은사인 석암 스님에게 비구니로서 처음으로 수계를 받았다.

원명 스님은 "건학108주년을 맞아 기념관 건립 불사를 추진하고 있는 정련 스님과 김희옥 총장의 원력이 이뤄지길 바란다"며 "동국대가 불교계 대표 대학으로 서울대 · 연 · 고대와 겨룰 만큼 발전해 훌륭한 인재를 많이 배출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월호스님의 명쾌한 게송 이야기
부처도 될 수 있는데 무엇인들 될 수 없으랴!
의식의 지평을 넓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열어주는 책

삶은 환타지다
'근심 걱정을 없애주는 게송', '애착을 버리는 게송', '화를 다스리는 게송', '행복을 부르는 게송', '마음을 보는 게송' 등 주제별 게송에 얽힌 스토리텔링, 현대적 교훈이 어우러져 재미와 의미를 만끽하게 된다.
■ 월호 스님 지음 | 변형 신국판 328쪽 | 13,500원
지금 여기에서 자신의 주인이 되어 완전 연소하는 대자유의 삶!
"꽃은 피었다 지고 다시 피어납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된 실체는 없지만 끊임없이 생겼다 사라지고 다시 생겨납니다. 이른바 삶은 환타지(幻)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멋진 환타지 영화로 꽃피울 것인가, 우울하고 기분 나쁜 공포 영화로 만들 것인가? 스스로에게 달려 있습니다. 인생은 다 내 작품입니다." –머리말 중에서

사바에서 부르는 불이(不二)의 노래
깊이와 넓이를 모를 정도로 방대하여 팔만사천대장경이라 불리는 불교경전!
불교의 핵심·진수가 담겨 단 한 권의 경전으로 손꼽히는
유마경의 세계를 드라마틱하게 펼쳐놓았다.

유마경과 이상향
"유마경의 번역과 더불어 해설 내지는 잡다한 군더더기를 덧붙였는데, 이는 독자에게 본문 이해와 함께 일반적 불교 교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도였다. 불교 교리를 연구하는 입장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불교를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도 읽힐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도한 것이다." –머리말 중에서
■ 화공 강의 | 신국판 양장본 604쪽 | 29,500원
대한민국호를 타고 함께 업을 짓고 사는 우리들…
이즈음 세월호 참사로 혼돈과 좌절과 아픔 속에 헤매는 우리들의 마음 치유를 위해, 이 땅을 이상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책. 고통을 참고 견디며 살아가야 하는 사바세계, 불교는 물론이고 동서양 철학을 꿰뚫은 화공 스님이 고통의 근본 원인을 조목조목 분석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우리 시대 수행자 스물한 분의 스승 이야기
어른을 만나고 싶었다

흠모
금생은 안 태어났다 생각하고 공부하다 죽어라, 세상의 인재가 되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몸 바치라는 스승들…
"머리만 깎았다고 중 된 것이 아니다. 거기에 맞게 살아야 한다. 중은 평생 정진하다가 논두렁 베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아이가. 중노릇이 쉬운 기는 아니다."
–성철 스님께서 갓 출가한 원택 스님에게 해 주신 말씀
■ 유철주 지음 | 변형 신국판 372쪽 | 15,000원
"어른이 없는 시대에 바치는 진정한 어른 이야기"
우리 시대 스물 한 명의 수행자가 인생길을 열어준 은사스님에 대한 회고와 마음 깊은 그리움을 전하는 책 〈흠모〉. 흠모하는 스승들의 가르침을 따르다 보면 제자는 어느새 중생의 흠모를 받는 또 다른 스승이 된다.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Fax. 02)739-7565 홈페이지. www.minjoksa.org
이메일. minjoksabook@naver.com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minjoksa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

일 주 문



임성 스님 열반 27주기 다례재

서울 봉은사 주지 원학 스님은 6월 4일 경내에서 영암당 임성 스님 열반 27주기 추모다례재를 개최했다.



동국대 경주캠 장학기금 전달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5월 28일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에 장학기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



교양강좌 제47기 모집

남양주 봉선사 주지 정수 스님은 6월 16일 봉선사 교양강좌 제47기를 모집한다. 교육기간은 매주 화요일 6개월간 진행된다. (070)8802-1953



제12회 현충재

범패와작법무보존회 회장 능화 스님은 6월 6일 인천 수봉공원 현충탑 광장에서 제12회 현충재를 진행했다. (032)884-8904



전통찻집 공(空) 개원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6월 9일 옥천에 불교공뉴스 전통찻집 공(空)을 개업했다. 찻집은 신문사 직원들이 운영하며 이익금은 장학사업에 쓰인다.



금강대, UNBC · TMC와 협정

정병조 금강대 총장은 6월 1일 캐나다 UNBC(University of Northern British Columbia)와 싱가포르 TMC Academy 대학과 학술협정을 체결했다.



초대전 '곡선미의 찬가'

불자 임무상 화백은 역삼동 유나이티드 갤러리에서 5월 28~ 6월 10일 초대전 '곡선미의 찬가-산, 소나무, 달 그리고' 전을 열었다.

김종규 삼성출판사 회장, 어린이 도서 기증



김종규 삼성출판사 회장(한국박물관협회 명예회장, 문화유산국민신탁 이사장)〈사진〉이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박물관에 어린이 도서 200여권을 기증했다.

김종규 회장은 "어린이날을 맞아 한국 역사와 문화, 세계문학전집 등 어린이들의 감성을 높일 수 있는 책들을 기증했다. 이 책은 국립중앙박물관 어린이 도서공간 구름마루에 비치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김종규 회장은 국립춘천박물관, 울산 대곡박물관 등에도 책을 기증하며 도서 나눔 기부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또한 2009년에는 한국 박물관 개관 100주년을 기념해 고구려 말갖춤 등 삼국시대 유물 10점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한 바 있다.

"대중 화합하는 총림으로 만들터"

동화사 신임주지 덕문 스님



화합, 제1기치로 내걸어
사찰 개방 등 열린 공간으로 확대

"팔공총림은 간화선 중심사찰로 스님들의 수행도량입니다. 대중들이 함께 원융화합해 수행의 중심도량 역할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팔공총림 동화사 내홍을 딛고 제27대 신임주지로 취임한 덕문 스님〈사진〉은 대중화합에 충실할 것을 밝혔다.

6월 3일 열린 교계기자 간담회에서 덕문 스님은 "가장 먼저 예경과 수행을 통해 종정 예하와 산중 원로 스님들을 모시는 수행가풍의 총림이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그동안의 내홍에 대해 하심으로서 여러 문중을 아우르고, 화합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다.

덕문 스님은 취임법회도 정기법회에서의 신도들과의 인사로 대신했다. 동화사가 다시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힐링공간으로 개방할 것도 밝혔다.

스님은 "먼저 동화사 약사여래통일대불과 일대를 대구시민들에게 24시간 개방할 계획"이라며 "향후 대구시와 협의해 동화사 입장료를 없애 누구라도 자유롭게 동화사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문화재 보존 비용을 대구시가 부담하는 방안을 대구시, 동구청 등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스님은 교구 운영에 대해서는 말사와 신도와의 소통을 통해 신뢰를 쌓은 기반에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덕문 스님은 "본사의 운영은 말사들의 살림이 좋아야 원활하다"며 "소속말사들을 둘러보고 소통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스님은 "지역사회에도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구지역 정서와 문중 정서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원융살림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또 "분산됐던 종무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불요불급한 불사를 줄여 재정을 강화하고 복지법인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간화선 중심사찰의 사격(寺格)을 갖추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누구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러 문중과 산중 어른들의 뜻을 아울르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동화사 주지 덕문 스님은 종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화엄사 승가대학 졸업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으며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호법부장, 불교중앙박물관장을 비롯해 용화사 · 보문사 · 선본사 주지를 역임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한국에 일본불교 연구방향 제시"

원영상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 초대회장



"아직까지 한국에는 일본불교라는 연구영역이 생소합니다. 터부시되어 온 일본불교에 대한 연구는 이제 시작입니다. 학회 활동을 통해 한일 간의 연구 교류 등으로 양국 이해와 교류에 앞장서겠습니다."

일본불교문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회장 원영상)가 창립됐다.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는 5월 31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초대회장으로 원영상〈사진〉 원광대 교수를 선출했다.

이날 원영상 학회장은 "학회의 발전은 한국불교학계에 '일본불교' 라는 연구영역을 새롭게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한일 불교문화 교류와 학술발전에 기여하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학회장은 이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일본불교 연구의 장을 열어준 김호성 교수에게 감사드린다"며 "일본불교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불교문화에 대한 깊이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양국의 상호이해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는 일본불교사연구소(소장 김호성)가 소장학자를 중심으로 연구 · 학술 중심으로 재출범한 것이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원영상 학회장 선출과 함께 감사에 김성순 금강대 HK연구교수와 이필원 동국대 연구교수가 선출됐다. 한일불교문화학회는 9월 정기총회를 열고 정관 및 임원 구성을 완료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북한 이탈주민 아픔 함께 할 것"

홍성란 포교사, 불교계 최초 통일교육위원 위촉



"북한이탈주민과 인연이 다하는 그날까지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겠습니다."

홍성란〈사진〉 조계종 포교사가 통일부(장관 류길재) 통일교육위원에 위촉됐다. 이번 위촉은 종교계에서는 최초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은 "지난 5월 19일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이하 '새터민')정착지원사무소에서 새터민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홍성란 포교사가 제19기 통일교육위원 위촉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홍성란 포교사는 8년간 새터민들에게 전법활동을 해오고 있다. 특히 새터민 정착을 위한 1박 2일 가정체험을 전담하면서 우리문화가 담겨있는 사찰의 모습을 알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사찰과 가정을 연결해왔다.

홍성란 포교사는 "불자 가정에서 1박 2일을 체험한 새터민들은 불자들의 따뜻함을 기억하고 법당으로 많이 오고 있다"며 "훗날 통일이 됐을 때 먼저 한국에 터전을 잡은 새터민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종교를 전파할 것이기에 새터민 포교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홍 포교사는 "하지만 타종교에 비해 불교는 통일에 대비한 북한이탈주민 포교가 생소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전국에 있는 불자들이 새터민들을 아들 · 딸로 생각하고 따뜻하게 보듬어 줄 때 남한에서의 조기 정착은 성공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포교사는 앞으로 해당 지역사회에서 통일교육 활동을 하게 되며 16개 시 · 도 지역협의회에 소속돼 통일문화축제, 열린통일아카데미,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군종교구 현충원 순직군승 참배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6월 3일 서울 현충원 순직군승 묘역을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 이하 재경지역 군승 12명이 동참했다. 이들은 우중(雨中)에도 서울 동작동 현충원을 찾아 군복무 중 순직한 故김수남 법사와 이동신 법사 묘역을 찾았다. 故김수남 법사는 해군중령으로 재직 중 지병으로 순직했으며, 故이동신 법사는 육군대위로 재직 중 차량전복 사고로 순직했다.

노덕현 기자

대선불교조계종 세월호 49재



대선불교조계종(총무원장 혜승)은 6월 1일 종단 임원 및 종도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도군 팽목항에서 '세월호 희생자 극락왕생 천도재' 를 봉행했다.

대선불교조계종은 천도재에 앞서 세월호 침몰현장에서 선상 봉안의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총무원장 혜승 스님은 "종도들의 뜻을 모아 고인들이 부처님 품안에서 극락왕생하도록 기원한다"며 전국 각 사찰에서 기도를 멈추지 말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법현 스님 출판 기념법회



태고종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의 수상록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 출판기념법회가 5월 31일 봉행됐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삼천사 주지 성운 스님과 태고종 원로 원법 스님을 비롯해 채수일 한신대 총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여 명이 참석했다. 법현 스님의 〈추워도 향기를 팔지 않는 매화처럼〉은 불교계, 종교계 신문이나 잡지 그리고 일반 신문 등 매체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서 발간한 것으로 출가수행자의 자세, 수행을 비롯해 청소년을 위한 자비계발, 사회적 메시지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

신성민 기자

남경중의학대학 중국 국립 한의과대학 특차 모집

'한국캠퍼스 총장의 추천 입학제'로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남경대학 한국캠퍼스와 함께 세계를 향한 날개짓을 하십시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집요강
- 한의학과 5년 – 120명
- 박사과정 3년 – 10명
- 석사과정 3년 – 10명
- 재경대학 4년 – 10명

2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3 원서 교부 및 전형방법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 접수마감 : 2014년 6월 20일

4 문의처

한국상담 안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 (135-887)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전화 : 02) 511-2026~7, 02) 511-1080 팩스 : 02) 511-2028
인터넷홈페이지 : www.njutcm.co.kr ※ 입학원서는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남 경 중 의 약 대 학
(南京中醫學大學) 02)511-1080,2026



3부 행사로 진행된 교성곡 '용성' 무대



6월 5일 기념법회 이후 스님들을 비롯한 20여 불자들이 3 · 1운동 당시 용성 스님이 세운 대중교화의 서원을 다시금 재연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6000여 대중이 모여 스님의 사상을 선양할 것을 다짐했다.

"선각자 용성스님은 이시대의 육신보살"

장수 죽림정사서 백용성 스님 탄신 150주년 기념식

근대 한국불교의 선각자이자 민족의 큰 스승이었던 백용성 스님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는 화합의 한마당이 용성 스님 탄생지인 장수 죽림정사에서 펼쳐졌다.

(사)독립운동가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이사장 법륜)와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가 6월 5일 개최한 기념식에서는 용성 스님의 사상을 이어받자는 서원의 함성이 울려퍼졌다.

불자방송인 김병조 씨의 사회로 진행된 기념식에서는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인 밀운 스님을 비롯해 명성, 혜성, 월파, 인환, 정관, 암도, 성파, 원경 스님 등 원로 스님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대각회 이사장 도업 스님을 비롯한 대각회 스님들과 前조계종 포교원장 혜총스님, 조계종 포교원장 지원 스님,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 등이 참석했다.또 한명옥 백용성조사 유훈실현후원회장, 정토회 회원 등 불자들과 김희중 가톨릭 대주교, 박남수 천도교 교령, 원불교 김대선 교무, 김명혁 목사 등 이웃종교 대표자들까지 총 6000여 명이 모였다.

용성 조사 가르침 대중포교로 회향

이날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기념 법어를 통해 용성 스님의 가르침을 대중포교로 회향하자고 당부했다.

도문 스님은 "용성진종조사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안장을 계계승승하기 위해 육신보살로 오신 것"이라며 "오늘 이 회향이 중생회향, 보리회향, 실제 열반회향, 3처 회향을 염원한다"고 설했다.

법륜 스님도 대회사를 통해 "용성조사 탄생 150주년을 맞아 스님의 정법안장과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하고자 한다"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밀운 스님은 "용성조사는 3 · 1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불교계 대표로 이 운동의 막후기둥으로서 온 겨레의 사표가 되셨다"며 "조사께서 유훈실현을 부촉한 것은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기에 조계종 종도를 위시로해 전 국민이 유훈실현을 계승해 나가기를 간절히 발원한다"고 말했다.

교성곡 '용성' 등 다양한 행사 진행

기념법회에 이어 '나 용성은 기회가 주어진다면 언제라도 다시 독립운동을 하겠다' 는 기념퍼포먼스가 진행됐다. 퍼포먼스에서는 당시 상황을 재현해 용성 스님 복장을 한 이들과 재가불자들이 함께 우리나라의 독립과 불법홍포를 다짐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또 한명옥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회장을 비롯한 15명에게 공로패가 전달됐다.

또 오후 1시부터는 탄신 150주년 용성음악제가 열려 스님의 음성포교 등 포교원력을 다시금 전했다.

용성 스님은 3 · 1운동 당시 불교계 대표로 참여했다가 1년 6개월 간의 옥고를 치뤘는데 옥중에서 기독교계의 찬송가와 한글성경을 보고 크게 깨우쳤다. 출소 후 불교계 최초로 '찬불가' 를 만들어 직접 풍금을 치며 음성법회로 포교를 진작시켰으며 한글 역경사업도 활발히 펼쳤다.

용성음악제에서는 박범훈 前중앙대 총장의 지휘하에 교성곡 '용성' 이 중앙 국악관현악단, 국악인 김성녀 씨, 유희성 교수 협연으로 선보였다.


법회에 앞서 진행된 다례재에서는 스님의 유훈을 잇는 발원문이 낭독됐다.


죽림정사 조실 도문 스님은 법상에 올라 용성 스님의 가르침을 대중포교로 회향하자고 강조했다.



종로 대각사에서 풍금을 치며 대중을 교화한 찬불가가 재현됐다.

서울에서 온 정상관 씨(65)는 "평소 사찰에서 용성 스님이 번역한 한글 경전을 보며 고마움을 느꼈다"며 "스님의 큰 원력을 여기 모인 이들이 이어받아, 불교가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불교계, 이웃종교에서도 가르침 되새겨

이날 행사를 앞두고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장수 죽림정사에 1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수불 스님은 6월 2일 한국불교문화기념관에서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지정기탁 방식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

수불 스님은 "종단을 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지정기탁하게 되었다"며 6월 5일 용성 스님 기념식이 예정된 죽림정사에 용성문도로서 참석할 뜻임을 밝혔다.

또 스님은 "용성 스님은 열반 직전 유훈을 통해 '우리나라 불교 전래지의 성역화' . '경전 100만권 번역과 배표' , '100만명에게 불교의 계를 줄 것' , '부처님 주요 성지에 한국사찰을 건립할 것' 등 10가지를 당부했다며 이러한 유훈이 잘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용성 스님이라는 큰 그늘을 피해갈 수 있는 스님들은 없을 것"이라며 수불 스님을 격려했다.

김희중 천주교 대주교도 이날 행사를 앞두고 "가톨릭 교회도 1962년 전까지 미사 등에 일반인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라틴어를 사용했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자국어로 예식을 집전할 수 있게 됐다"며 "이렇게 보면 불교의식을 한글로 개편하고 보급한 용성 스님은 시대를 앞서간 선각자이자, 뭇 대중을 위한 참 종교인"이라고 평가했다.

장수 죽림정사=조동제 전북지사장

"용성 스님 남긴 유훈 평화통일 · 민족화합"

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법륜 스님



"용성 스님은 조선시대 탄압받은 불교가 사회지도력을 상실한 시대에 불교를 다시금 세워 지금의 불교가 있게 하신 분입니다. 스님이 남긴 유훈을 실천하는 것인 지금의 불교를 새롭게 하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백용성조사기념사업회 이사장 법륜 스님은 용성 스님의 탄신 150주년을 맞아 스님이 행한 계율 정비, 불교대중화, 생활불교의 실천 등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륜 스님은 "용성 스님은 애국지사가 있는 한편, 일본 식민통치의 앞잡이 사냥개와 같은 부류, 또는 속으로 독립이 왔으면 바라면서도 앞에서 동조하는 부류, 먹고살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는 부류가 있어, 민족정신이 분열되는 것을 우려하셨다"며 "이에 스님이 남긴 유훈을 실현하기 위해 도문 스님은 1961년 용성진종조사 유훈실현 후원회 지도법사로 53년간 한결같은 마음을 실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법륜 스님은 "용성 스님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부처님 바른 법에 따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조국을 평화적으로 통일해 과거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만드는 것"이라며 불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찬덕연등의 기술을 보유한 연등시공 전문기업

보련기획 BORYEON

특가행사 진행중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연등시공



만 월 등



바 림 등



자 비 등



팔각주름등



공 단 등



팔 각 접 등



연꽃만월등



연 화 연 등



차 걸 이



정품 LED전구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1년 하루 6시간 전기요금 : 98원/1kwh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인 등



보련기획 BORYEON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H·P 010-9446-1862

전화 031)526-2201 / 031)526-2202

힐링메시지 항아리에 담아 시민에게로

풍경소리, 서울시와 '시항아리' 서비스 실시

지하철 풍경소리(대표 혜자)는 시(詩)가 기록돼 있는 종이 두루마리를 항아리에 담아 시민에게 배포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풍경소리는 6월 3일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지하1층 대합실에서 교통문화선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일반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詩항아리' 서비스제공 기념식을 열었다.



지하철 풍경소리 사무총장 이용성 사무총장(왼쪽)과 5678서울도시철도는 '시항아리' 서비스제공 기념식을 가졌다.

'詩항아리' 서비스는 서울시와 5678서울도시철도가 기획한 것으로, 각 역사에 힐링메시지를 담은 '시항아리'를 비치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좋은 글을 제공함으로써 시를 읽는 시민의 마음이 평안과 안정을 찾도록 도와주는 행사다.

'시항아리'에는 네 종류의 시가 담겨있다. 이 가운데 풍경소리는 노력의 어려움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총장의 글과 2편의 시를 담았다.

이용성 사무총장은 "사람 사는 사회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시항아리' 사업은 시민들의 고단한 마음을 위로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뜻 깊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사업을 통해 절망과 좌절을 경험한 이는 위로와 희망을, 지치고 힘든 이는 용기와 활력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지혜로운여성, 다문화 시민성 함양 교육

포럼 2회 · 교육프로그램 10주 과정 실시

불교여성개발원 산하기관인 (사)지혜로운여성은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로부터 '2014년 지역다문화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혜로운여성은 2회의 포럼과 10회기의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지혜로운여성은 6월 23일 오후 2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공연장에서 다문화 사회 인식제고를 목적으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제1차 대중포럼 '다문화시민성 함양 포럼'을 연다. 포럼은 '다문화 수용성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장명선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 연구원이, '생활 속 다문화의 현실과 지향'을 주제로 손우준 동국대 이주다문화통합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지혜로운여성은 참가자들이 다문화 사회 시민의식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하고 10회기 동안 다문화 시민성 함양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6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매주 월요일 10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전통문화공연장에서 '소통과 협력을 통한 글로벌 역량강화'를 주제로 열린다. 참가자들은 이후 1개월 동안 실천기간을 두고 참가 경험을 나누고 확산하기 위한 2차 포럼을 10월 13일 오후 2시 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02)722-2101

이나은 기자

불레협 여름불교학교 지도자 강습회

6월 14일부터 전국 4개 도시에서 진행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회장 혜만)는 어린이 · 청소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포교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지도자 강습회'와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진행한다. '포교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지도자 강습회'는 6월 14일부터 전국 4개 도시에서 4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강습회는 14일 부산 반야선원을 시작으로 21일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 28일 전주 전북불교회관, 7월12일 서귀포 약천사에서 각각 열린다.

강습회는 '포교에 레크리에이션이 필요하죠-분위기 조성 및 동기유발' '포교프로그램 활용법' '레크리에이션 이것만 알면 끝-주의집중기법 실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제53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는 오는 7월 5일 수원 용주사에서 '뻔뻔(Fun Fun)한 템플스테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강습회는 '레크리에이션 이것만 알면 끝!'과 '〈부모은중경〉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노래와 율동으로 배우는 부처님법' 등으로 진행된다. 이나은 기자

"나를 알아야 내 아이 잘 키울 수 있죠"

한마음과학원, 학부모 프로젝트 인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키우며 고충을 겪는다. 아이가 잘못될까봐 불안하고, 내가 지금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는 건지 궁금하고 불안하다. 자녀들과 소통을 한다고 하는데 내 주장만 고집하고 나의 과거를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걱정도 앞선다. 도무지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이란 무엇인지 모르겠다.

자녀를 위해 좀 더 나은 학부모가 되고자 하는 어머니 40명이 모였다. 자녀를 사랑으로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던 학부모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다.

"저는 아이를 위한다고 한 것들이었는데 내면을 살펴보니 내가 원하는 것들을 아이에게 강요하고 있었더라구요. 많이 반성했어요."

"아이를 사랑으로 대한다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저를 들여다보니 아이는 고쳐야할 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분별하고 있었어요."

안양 한마음과학원(원장 혜수)은 5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지혜와 자비의 다스림 학부모 프로젝트(이하 학부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6월 3일 4주차 프로그램이 진행되던 날, 40명의 어머니들이 한마음과학원에 모여 한 주간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다.



안양 한마음과학원은 5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한마음과학원 국제회의실에서 '지혜와 자비의 다스림 학부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학부모프로젝트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위한 마음공부 프로그램이다. 참여 학부모들은 7주 동안 △주인공으로 살아요 △평가하지 말아요 △다그치지 말아요 △싸우지 말아요 △고맙습니다 △쉼 △내 안의 꽃을 피워요 등으로 구성된 주제에 맞춰 나를 다스리는 기본방법을 익히고 마음의 평온함을 경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학부모들이 자녀와 부딪치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대행 스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마음을 다스리는 간단한 방법 'A4(Awareness-알아차림)'를 자신과 자녀에게 적용하고 반복적인 실천을 하면서 일지에 작성하고 변화를 살펴보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A4란 △A1: 이것은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니다! △A2: 입력된 게 나오는구나! △A3: 주인공의 나툼이지(작용이지)! △A4: 무조건 굴려놓자!로 학부모들은 이 네 가지 방법을 스스로 문제라 생각되는 상황과 부딪힐 때 마다 적용하면 된다.

평소 같았으면 자녀의 실수에 바로 잔소리가 나갔을 법한 상황이지만 학부모들은 A4를 습관적으로 적용해 긍정적인 변화들을 느낀다.

중학생 아들을 둔 김미영(가명) 씨는 "사사건건 아이에게 잔소리를 했는데, 그 순간을 지켜보고 아이를 분별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됐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나의 욕심과 분별을 내려놓고, 아이가 잘 되게 마음을 냈더니 아이와의 갈등이 점점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육아에 고충을 느끼는 학부모도 참가해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 36개월 된 딸을 둔 곽은선 씨는 "아이를 키우며 느끼는 불안한 마음의 원인을 차근히 되짚어 볼 수 있었고, 불안감을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었다. 또한 비슷한 또래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과의 교류를 통해 서로에게 위안을 얻고 지혜를 나누고 힘을 얻을 수 있었다"며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지엽적인 고민들에서 시야를 확장할 수 있었고, 편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지도법사 혜찬 스님은 "학부모들은 아이들과의 갈등을 풀어갈 때 무의식적으로 나 자신에게 하는 대로 아이들을 대한다. 내 안에 입력된 의식을 바꾸면 아이들도 자연스레 바뀐다"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성장기 자녀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나의 의식을 지혜롭고 자비롭게 다스리면 자녀와의 관계도 원만하게 풀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학부모 프로젝트'가 알려주는 마음다스리는 방법 A4

A1: 이것은 좋은 것도 싫은 것도 아니다!
A2: 입력된 게 나오는구나!
A3: 주인공의 나툼이지(작용이지)!
A4: 무조건 굴려놓자!

- **잘된 것은 감사함으로 굴려놓는다.**
  (예: 주인공, 이렇게 된 것도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사해)
- **안되는 것은 '해결할 수 있게 해' 하고 굴려놓는다.**
  (예: 답답한 게 나올 때, 주인공,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니 거기서 해결할 수 있잖아!)
-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를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알게 해' 하고 굴려놓는다.**

"천진불 세상, 함께 가꿔요~"

동련, 6월 1일 제5회 연꽃문화재 개최

"우리는 천진불! 우리도 부처님 될래요"

청명한 6월, 부처님 품 안에서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울려퍼졌다. 사단법인 동련(이사장 성행)이 6월 1일 의왕 청계사에서 개최한 제5회 연꽃문화축제는 그동안 세월호 사태로 인한 불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잠시나마 밝게 해주는 아이들의 천진한 모습이 비쳐졌다.

사단법인 동련의 경기지구와 의왕 · 안양 · 군포 불교사암연합회가 주관한 이날 대회에는 수원 용주사, 김포 금정사 등 11개 사찰 500여 학생들이 참여해 저마다의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솜씨를 뽐냈다.

이날 시제는 '세월호', '어머니'. 묵념으로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한 학생들은 친구들과 얘기를 나누며 대회에 임했다.

입재식에서 동련 이사장 성행 스님(청계사 주지, 조계종 어린이청소년전법단 단장)은 "아이들이 사찰에서 그 재능을 키우며 어려운 이웃을 한번 더 돌아보는 마음을 갖길 바란다"며 활발한 참여를 당부했다.

조계종 포교부장 송묵 스님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어린이들을 천진불로 키워가기 위한 자리"라며 "그동안의 아픔을 딛고, 우리 아이들이 사회 모든 이웃에게 아름다움을 나눌 수 있는 이로 자라도록 힘쓰자"고 말했다.

용주사에서 온 배성진 학생은 "형, 누나들이 차가운 바다 속에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며 "그 마음을 담은 그림을 그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봉은사 최유리 학생은 "뉴스를 통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부모님께 그동안 하지 못한 말이 많았다고 느꼈다"며 "글을 통해 엄마에게 하지 못한 얘기를 이번에 하고 싶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동련은 6월 1일 의왕 청계사에서 개최한 제5회 연꽃문화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경기도지사상과 의왕시장상과 용주사 주지스님상, 어린이청소년전법단장상 등 50여명에게 상장이 수여됐다.

대회가 열리는 청계사 앞마당에서는 실리콘 합장주 만들기, 소원 바람개비 만들기, 풍선아트, 네일아트 등 10여개의 체험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한편, 동련은 이날 대회와 함께 10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연꽃문화제 지역예선을 열고 심사를 거쳐 6월 24일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죽지 않는 천하대도 갑오년 윤달든해 음력 5월 20일과 21일 자오시에 양 6월 17일, 18일 일체 새로운 종교가 아나로 되는 천지공사 정법안장 대법회 및 120세 360세 도전하여 죽지 않는 생사해탈 득도법. 전무후무한법 전수

우주의 빛으로 120세 360세 1080세 증상대운으로 병없이 사는 천지공사에 동참하시여 3년을 더 사는 것도 원이 없는데 천지공사로 하늘의 진법 빛으로 늙지 않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증상대운 상생법인 마음에 문을 여는 진법을 만천하에 환성태일대사는 전하오니 마음을 열고 따라 오는 자 장수하는 비법을 받을지어다. 지구촌 일체종교가 발생된 것은 마음 근본으로 종교가 하나로 되는 心자로 도법에는 생아지문이 심자이고, 불교는 정법안장이 심이며 유교는 성리가 심이고, 도교는 황정의 문이 심이며, 카톨릭은 거존혈이 심이고, 오행은 중아정위가 심이고, 주역은 정이거채가 심이며, 명덕은 군자시중이 심이다. 이 마음심자로 모든 종교가 탄생되었으므로 천지공사로 마음을 여는 도법에 운명명부공사 법을 이어받아 직업에 구애받지 않은 도통 군자 되시며 병겁을 넘기는 스승되어 중생을 구하소서.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선지식이나 도인들이 진법의 천지공사 근본도 모르면서 각종 종교를 빙자하여 천지개벽 천기누설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각종교주를 빙자하여 백성들을 기만하였기에 하늘에서 천벌을 내려 제명대로 살지도 못하여 철퇴를 맞았고 남이 써놓은 글자에 도통한 것도 아닌 글로 백성들을 제도하네 극락이네 천당을 찾으니 하늘이 그냥 두겠는가. 이제 지구촌 병겁으로 각종재난과 질병, 화산, 지진, 비바람, 병겁재난으로 하늘을 속이고 부모조상 무시한 업연으로 고통당함을 면하는! 경신법회가 양력 6월 17~18일 양일 자오시에 마음과 현문을 열러 주인공을 보는 소울움우는 수행처인 유불선 미륵달마경신도통회로 갑보세 갑보세 병겁에 도인되어 살 수 있는 빛을 받는 도량으로 가보세... 빛으로 각종 병을 다스리어 죽지 않고 오래 장수하려면 동참하시여 이 진광법을 받아 증상대운으로 오래사시소.

* 건강장수 정법안장 수명연장 십경신 동참금 일금 10만원, 간편한 옷, 필기도구 지참. 무박 2일
* 갑오년 윤달 든해 생전예수제 조상천도 구병시식 백중대제 맞이를 6월 17, 18. 하늘 땅이 열리고



구천에 모든 영가들이 해원상생하는 경신일에 백중제 77제를 조상오대 외가 삼대 친정 오대 외가3대, 조상영가, 모태영가, 유산영가, 청춘빙의영가, 유산 수자령 태아영가, 구대선망, 오대조상, 사대부조상을 해원상생의 진법으로 본 종단만이 계론, 시론, 생천론경과 천부경, 지부경, 인부경, 예단경, 헌식 진언으로 해원상생 왕생극락하는 금년 백중 칠칠제 49제를 드리어 명부공사 팔신공, 도천명, 천부팔력으로 이생에 수역, 조격, 충역 인간으로 태어나는 도리를 환성태일대종사만이 하는 백중 기간중 해원상생시키어 집안들에 고통과 모든 고액과 삼재팔란 불행한 일을 모두 제도하여 꿈속에 조상을 만나 마음먹은 대로 모두 이루어질 수 있는 진광진법으로 천도하오니 동참하시어 천복대운 받으시어 만사형통하시고 살아있는 효도효행하소서.

■ 기도입제 : 2014년 6월 17일(음 5.20) 화요일
■ 기도해제 : 2014년 6월 18일(음 5.21) 수요일
■ 자손만대 부귀영화 문무겸전을 득하는 전무후무한 49제 동참비 25만원 (처가,친정,외가,조상일체) 사대부일체 77제(농협 029-01-167866 곽한영)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010-3239-3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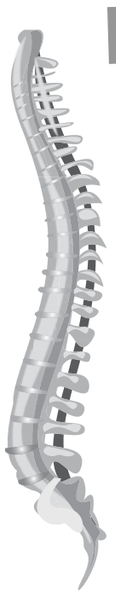
전화 : 02)821-6622 / 7767 휴대폰 010-3239-3110
010-2481-3110/010-8533-1601 팩스 02)821-7768
서울 동작구 신대방 2동 360-188호 지하철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2번출구

천지공사 불선도 미륵달마 십경신 도통회 총본산
삼탑 세계불교 달마조계종 태양의 집 진불선원 환성천룡진인 태일대사

Hwalbup Posture Correct Master

활 법 자 세 교 정 사

인체가 바로서야 건강이 바로 선다.



활법자세교정사 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근육과 骨의 균형이 무너져 신체적 고통을 겪는 사람에게 과학적, 체계적인 방법으로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로서 **바른자세원을 개원**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자격검정)

교 육 과 정	교 육 기 간
● 체형교정 / 골반 / 선추(조정요법) ● 전신조정술 / 두개골 / 후두골 / 골반(조정요법) ● 경락 / 경혈학 / 임독맥소통(청혈요법) ● 자율신경 척추교정운동요법(맞춤운동) ※ 특강 : 기공, 양자파동 분석 보건식품효소 발효액	8주 과정 토요일반

▶ 특별강사 : 병 · 의원 진흥회 회장 / KBS / MBC출연, 활법창시자 직강
▶ 대 상 : 종교지도자 / 인체 교정 및 건강분야 관계자
평생건강에 관심 있으신 분,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
▶ **순환기성 질환** 임상 교육시간 : 5 ~ 10회 환영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93-5111 / 010-3685-1730

교육부허가공익법인/한국평생교육기구
한 국 보 건 교 육 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

발달장애가족 복지관서 양육부담 덜어요

지난 6월 1일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 가족을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힐링캠프를 개최했다. 발달장애(자폐, 지적장애) 자녀 보육에 지친 부모를 위로하고 가족들 사이의 교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신체 장애인에 비해 사회적 제도 · 지원에서 밀려나 있는 발달장애인은 19만명. 250만 장애인 중 대략 7.5%에 해당한다.

한국장애인부모회에 따르면 발달 장애 가족의 70~80%가 우울증에 시달린다고 한다. 인지력, 자기결정력 등이 부족한 발달 장애인은 치료를 받는다하더라도 평생 자립이 불가능하다. 교육, 복지 시스템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기에 양육은 온전히 부모의 몫이다. 때문에 발달장애아를 둔 가족이 부담을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일도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발달장애인 지원법률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아직 시행까지는 2년도 더 남은 상태. 사회적 지원이 미비한 가운데 그나마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프로그램은 부모들의 큰 의지처다. 교계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어떤것이 있을까?



전국 장애인 배드민턴대회 모습.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배드민턴은 발달장애인들이 가장 접하기 쉽고 선호하는 종목이다.

방송댄스 · 치어리딩은 인기강좌
도예 · 요리로 적성도 찾고
취업교육 통해 사회성 길러

배드민턴 선수도 양성

성북장애인복지관(관장 현관)하면 빼놓을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배드민턴을 들 수 있다. 취미반과 엘리트반으로 나뉘어 주 2회 2시간씩 운영된다. 엘리트반은 배드민턴 선수로 양성해 전국 단위의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에는 성북장애인복지관 배드민턴 선수들이 제36회 지적장애인체육대회에서 우승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 올해역시 서울특별시 장애인 배드민턴 대표선발전에 출전할 계획이다.

신체활동 프로그램 역시 다양해졌다. 방송댄스, 치어리딩 프로그램에서 장애아동들은 최신가요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춘다. 전문가들은 신체활동이 대근육 발달과 운동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뇌를 자극, 인지기능향상에 도움을 준다고 지적한다. 방송댄스는 아이돌 가수의 춤동작을 따라하며 신나게 춤을 추는 시간으로 장애아동들의 만족감역시 높은 편이다. 치어리딩 또한 여럿이 한 동작을 표현하는 시간을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 마음의 두드림' 역시 신체를 활용하는 수업. 창작 타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발달장애 청소년의 문화 활동 및 자기역량개발을 도모한다. 악기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고 리듬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유도한다. 연말에는 공연을 준비해 장애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까지 이어진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부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 '부모아카데미' 라는 수업으로 진행되며 양육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효과적인 장애자녀 양육법에 대한 정보제공도 병행한다. (02)915-9200

우쿨렐레로 음악적 감수성 키워

이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선재)의 '드림하이(Dream High)' 는 여가 문화생활의 기회가 제한된 발달장애아동에게 음악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적응력을 증진시키는 음악 프로그램이다. 난타와 우쿨렐레 교실이 주 2회씩 운영된다. 우쿨렐레는 현악기지만 상대적으로 다루기 쉬운 악기라 장애아동들에게는 안성맞춤이다. 마찬가지로 장구, 꽹과리, 북, 소고 등을 이용한 사물놀이도 진행된다. 음악은 장애아동들에게 건전하고 활달한 심성을 갖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있다.

'요리교실' 에서는 음식만들기로 장애아동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흥미를 증진시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완성하기까지 소근육 활용 및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다. 요리교실은 두 개반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초등반은 식재료에 따른 맛과 질감을 느끼며 자르기, 볶기 등 요리활동을 실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반은 요리도구를 직접 사용하여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든다. 각기 5명을 대상으로 화요일과 수요일로 나뉘어 진행한다.

흙을 이용한 도예치료도 이루어진다. 도자기 작품 만들기를 통해 손가락기능 및 성취감 향상을 도모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도예교실은 매주 1회씩 수업이 진행된다. (031)637-6720

사회성 길러 취업까지

강북장애인복지관(관장 조석영)에는 직업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지원고용 준비반을 주 3회씩 1년동안 운영, 취업가능 · 취업경험 있는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능개발훈련 및 직장인으로서의 기본자세 교육, 현장실습으로 취업적응능력을 향상시켜 적성에 맞는 훈련을 실시한다. 외식사업 전문인력 양성과정인 '마중물' 은 발달장애가 포함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홀세팅 및 직장예절 등 외식업체 취업을 위한 전문훈련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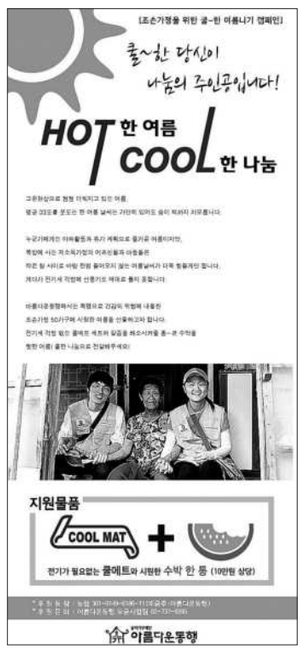
방과 후 프로그램 해냄교실은 발달장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2회씩 9개월간 운영된다. 미술 및 종이접기, 야외활동, 집단활동, 지역사회 시설 및 교통이용지도가 이뤄진다. 미술교실 '내일은 피카소' 는 발달장애를 가진 초등학생 고학년과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1회씩 9개월간 진행되는 수업이다. (02)989-4214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쿨~한 나눔 주인공 되어주세요

아름다운동행, 저소득층 쿨매트 지원 캠페인 전개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더위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름다운동행에서 시즌형 모금캠페인을 전개한다. 저소득층의 냉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쿨매트와 수박지원 모금에 나선 것이다. 지난해 폭염으로 사망한 숫자는 14명. 그 중 65%는 노인이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은 "계속될 더위에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노인 및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 이라며 "폭염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저소득가정 중 조손가정의 노인 및 아동들이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쿨한 여름나기 캠페인 'HOT한 여름, COOL한 나눔'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5월 26일부터 두 달간 진행되는 캠페인은 서울시 내 조손가정 50가구에 10만원 상당의 쿨매트 세트와 수박을 전달할 계획이다.

아름다운동행 사무총장 자공 스님은 "조손가정의 경우 대부분 쪽방촌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생계유지로 제대로 끼니를 때우기도 어려워 있는 선풍기도 제대로 틀지 못하는 현실이다" 며 "전기세 걱정 없이 쿨매트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모금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고 기부를 독려했다.

모금된 금액은 8월 초 지역사회 복지관 및 관공서와 연계해 서울시내 조손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농협(301-0149-6186-11, 예금주 아름다운동행)이나 온라인 해피빈 콩 기부를 통해 모금에 동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름다운동행 홈페이지나 모금사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02)737-9595

배현진 기자

피부이식술 절실…시각장애 채희찬씨

생명나눔 6월 환자 선정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6월 치료비지원 환자로 뼈 · 피부 조직 이식이 필요한 채희찬(39 · 사진)씨를 선정했다.

신장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진 그는 어릴적 소아당뇨에 걸린 이후 하루 여섯 번 넘게 혈당 체크와 네 번의 인슐린 주사를 맞아왔다.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도 어엿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10년 전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장애 2급과 시각장애 5급 진단을 받은 후 수급자로 책정됐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다리까지 다쳐 뼈와 피부 조직 이식 수술이 시급한 상태지만 장애수당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다.

채씨 어머니역시 청각장애와 협심증, 동맥경화를 앓으면서도 아들을 돌보고 있다. 아파트 청소를 하며 돈을 벌긴 하지만 500만원이나 되는 병원 치료비 마련은 힘든 상태다. 후원 농협 053-01-243778(예금주 : 생명나눔)

배현진 기자

지구촌공생회, 케냐에 초등학교 기공

주민들 월주 스님 법호 '태공' 따서 학교 명명

빈곤국가 주민들을 위해 교육시설 건립에 힘써온 지구촌공생회 이사장 월주 스님의 법호를 딴 초등학교가 아프리카 케냐 지역에 건립된다.

지난 5월 29일 케냐 카지아도 지역의 올로레라 마을에서는 월주 스님 법호인 태공과 지역 이름을 합친 올로레라 태공초등학교가 기공식을 가졌다.

기존 건물 1칸을 리모델링하고 10칸 규모의 교사를 신축해 완공된 학교에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8학년까지의 정규과정이 개설될 예정이다.

케냐는 초 · 중등학교 무상의무교육 도입국. 초등학생 수만 800만명이 넘는다. 올로레라 역시 400여명의 아동들이 교실 2칸, 화장실 2칸의 열악한 시설아래서 공부해왔다. 더군다나 1학년 과정을 마치면 20km 떨어진 학교로 통학해야 하기에 표범, 사자 등 야생동물 출연이 잦은 케냐지역에서 학교출석률은 극도로 낮은 상황이다.

지구촌공생회는 "초등 정규과정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학교건립으로 마을 아이들의 초등교육 환경이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지구촌공생회 역할은 학교 건립에서만 끝나지 않는다. 학교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염소농장을 운영,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계획중에 있다. 지역 주민들은 학교운영위원회를 조직해 염소를 한 마리씩 기부하기로 했다. 주 교육부에서도 학교가 건립되면 부족한 교사를 매년 보강해 줄 것을 약속했다.



지난 5월 29일, 케냐 올로레라 태공초등학교 기공식에 참석한 관계자 들이 성공적인 학교 건립을 기원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학교건립에는 총 1억5천만원의 후원금이 소요될 예정이다. 월주 스님의 세수 팔순과 출가 60년을 기념해 상좌 스님들과 금산사 측에서 마련한 금액과 지구촌공생회 후원기금으로 비용이 마련됐다.

지구촌공생회는 10여년 동안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 아시아 국가와 아프리카 케냐 등 10개국에 총 43곳의 교육시설을 건립해왔다.

배현진 기자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참여자 모집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도모하고자 문화기행답사 프로그램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를 실시, 참여자를 모집한다.

7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문화유적지 답사를 할 예정이며 장소는 대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거주자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기간은 6월 27일까지다.

복지관측은 "신(新)노년층의 여가문화활동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지원하고자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며 어르신들에게 동년배와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 고독감 해소 및 소속감 증진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마이크에서 소리크기를 직접 조절하는 주지스님 전용 고성능 구즈넥마이크를 먼저 사용 해 보신 후 구입하십시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절 설치비 : 1,800,000원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사회자용 마이크 스탠드 1대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 CD기기 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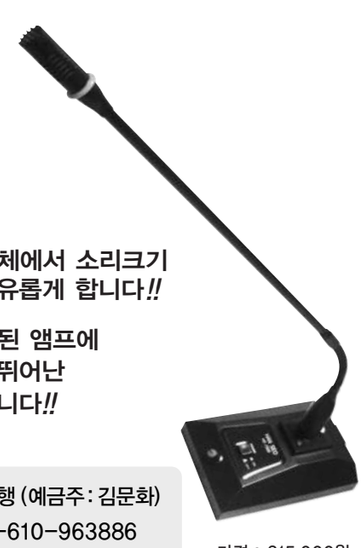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가격 : 215,000원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7기 佛教儀式(범음 · 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 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4년 6월 30일 까지
◆ 개강일시 : 2014년 7월 1일 (화요일) 개강.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1시 ~ 2시 반
▶ 개강일시 : 2014년 6월 9일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대한불교조계종 종단 법무전문위원에게 공개토론 제의

"사미계, 비구계를 받지 아니하였어도 승적부의 허위 기록만으로 승려가 될 수 있는가?"

2014. 6. 5 제2교구본사 용주사

"사미계, 비구계를 받지 아니하였어도 승적부의 허위 기록만으로 승려가 될 수 있는가?"

승적관련특별조치법의 "81년단일계단이전의 승려" 종헌종법상의 의미확정을 위한 공개토론제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제의 자체가 당사자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본사와 문중과 종단과 모든 종도들에게 많은 누를 끼치게 됨이 명약관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을 참으로 참괴스럽게 생각하면서 모든 종도 앞에 참회드리며 다음의 글을 올립니다.

1.질의 내용을 공론화 하게 된 계기

1962년 그동안의 비구 대처분쟁을 종식하고 통합종단 대한불교조계종이 출범하면서 본 종단은 총무원 중심제를 채택하고(종헌 종법상 각 본, 말사주지임명권이 총무원장에게 귀속) 30여년 동안 운영하여 왔으나 총무원장에게 인사권이 집중되어 많은 폐해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1995 개혁종단이 출범하면서 종헌을 개정하고 본사주지선임을 교구산중총회에서 선출, 총무원장이 형식적 임명을 하는 본사중심제도를 채택하고, 산중총회법은 각본사의 고유방식이 있을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사에서도 본사 자치법규성격의 전강문도회 규약을 제정 20년간 평온 무사히 운영 – 전국 본사 중에서 승려복지제도를 최초로 도입 운영하는 등 본사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왔다.

용주사주지 후보자의 검증과정의 문제 발견

그러나 금번 용주사후임주지 선임에 문제에서는 종래의 자치법규인 문중규약을 무시하면서 종헌 종법에 따른 본사주지 선출을 위한 경선을 주장하고 선거관련 준비를 하는 등 문도의 자존과 긍지를 훼손하며 문중의 화합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문도가 발생하여 종헌 종법을 검토하며, 당해 문도의 종헌 종법상의 자격을 검증하여 본 결과 승려의 지위취득에 관하여 종헌 종법상의 결정적 하자가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당해 승려는 85년도에 용주사에 와서 행자과정도 없이 사미계, 비구계 모두 받지 아니한 채 "다만 총무원 승적원부를 77년도에 사미계, 79년도에 비구계를 받은 것으로 하여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종헌 종법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하여, 종단의 주요 소임을 담당하여 왔으며 현재에도 종단의 주요 소임을 맡고 있는 실정이다."**

출가 승려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리요마는 본사 주지의 얼굴로 내놓기는 **허물의 정도**가 너무 크므로 문도의 자존심이 용납지 아니하고 또한 한 종도로서도 도저히 인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 할 것이나 문도화합과 그동안의 정리를 고려하여 본사주지의 뜻을 접기를 직간접적으로 종용하며 결단을 기다려 왔다.

그러나 당자는 "사미계 비구계 미수지등의 승적상의 문제는 승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2013.04.01 공포발효) 의하여 하자가 이미 치유되어 종헌 종법상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본사 주지선거에 출마를 못하게 할 경우 폭사하겠다는 결정적 의지를 표현하며 본사주지 경선 출마의사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문중에서는 문중운영위원회의를 열고 이문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종헌 종법상 조치를 본사에서 취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의거하여 본사에서는 **위와 같은 종헌 종법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승적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의하여 과연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총무원 충무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는데(2014. 4. 4)** 총무원은 세 사람의 법률 전문가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회신하였는바(2014.04.28) 법리에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의 주장으로 판단되어 이미 공문으로 **예고한 대로** 이 문제를 종도들의 공론에 부치고자 당해 변호사들과 법리에 대한 지상 공개토론을 제의하고자 한다.

이 공개토론 제의는 수일 전까지 최종적으로 의견 조율에 실패하고 문제의 당사자 본인의 인지 하에 제기하게 된 것임을 밝혀 둔다. 많은 종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승적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3.4.1 공포)

제 1조 (목적)
이법은 **1981년 단일계단 이전 승려**의 승적(사미, 사미니 구족계)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여 승적으로 발생하는 논란을 종식하고 승가의 화합과 종단의 안정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 (승적관련**특별조치**)
1981년 단일계단 이전승려(사미, 사미니포함)의 승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 공포 당시 총무원 총무부의 승적관리 종무행정 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대로 확정한다.**

3.위 법과 관련하여 유권해석을 위한 질문요지

① 사실상 단일계단 이후1985? (본인은 84년도 주장) 년도에 용주사에 와서
② 행자생활도 하지않고, 사미계와 구족계도 받지 아니한채
③ 다만 총무원 승적부에
1977년 범어사에서 00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수지
1979년 봉선사에서 00스님을 계사로 비구계수지 라고 허위로 기재하도록 하여 이를 근거로 승려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이 경우에도
"1981년 단일계단 이전 승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지요.

※ 더불어 결과가 합리적이지 아니할 경우 공론화 할 수 있음도 예고하였다.

4.회신공문에 첨부된 변호사의견서

종단법무전문위원 정○○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의견서를 보내왔지만 다른 변호사도 이와 별 차별이 없는 견해의 의견서를 보내 왔다.

※정○○ 전문위원 의견서

1.특별조치법의 입법목적
2.적용범위
가.원칙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는 인적범위,즉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승적이 확정되는 스님은 공포당시(2013.4.1) **승적관리프로그램에 1981년 단일계단 이전에 계를 수지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모든 스님**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제2조)
3.사안의 경우
따라서 특별법 공포 당시 종단 승적관리 행정프로그램에 위 표의 내용으로 승적에관한 사항이 기재 되어 있다면 제6조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위 스님에 대한 **승적은 특별조치법에의하여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정변호사 의견서 비판

◆ 정 변호사의 의견서는 문제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고 있다.

사실은 위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다. 상식적으로도 그 결론은 나와있다. 법적으로도 질문은 그 차체로 답을 내포하고 있다.

"단일계단이전의 승려"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종헌종법상 승려의 의미를 확정하고 위 질문의 당사사의 조건이 이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판단하면 되는 것이므로 다른 답은 기대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 변호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질문의 요지를 "위 조치법이 적용되는 인적범위"로 바꾸어 이상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위 결론 의하면

승려자격취득의 종헌 종법상의 실체적 요건인 수계 사실 없이 허위로 형식적 요건인 승적만을 만든 경우에도 적법한 승려의 지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결론을 얻게 되는데 이런 논리가 어떻게 가능하다는 말인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 났는지 변호사의 논리를 검토하며 그 오류를 지적하고자 한다.

◆ 정변호사 의견서 결론의 부당성검토

가. 결론에 이르는 논리적 설명이 없다 – 이유불비의 위법
특별조치법제 2조에서 이 법 공포 당시 총무원 총무부의 승적관리 종무행정 프로그램에 입력된 사항대로 승적이 확정되는 인적범위는 바로 **"1981년단일계단 이전승려"**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정변호사는 인적범위는 승적관리프로그램에 **"1981년 단일계단 이전에 계를 수지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모든 스님**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제2조)"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논리적 설명이 없다.

나. 순환논법상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 – 논리모순의 위법
즉 1981년도 단일계단 이전에 수계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1981년도 단일계단 이전에 수계한 것으로

입력된 대로 확정된다는 논리로서 입력사실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입력사실을 참으로 인정하는 오류이다.

다. 인적범위 결론 동일화의 오류

81년 단일계단 이전 승려와 81년 단일계단 이전에 수계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모든스님을 동일하게 보는 오류이다.

즉, 1981년 단일계단 이전 승려는 모두 1981년 단일계단 이전에 수계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단일계단 이전에 이미 수계하였기 때문이다.

1981년 단일계단 이전에 수계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모든스님이 1981년 단일계단 이전 승려라고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81년도 단일계단 이전에 수계한 것으로 입력되어 있는 승려는 본건과 같이 허위로 입력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허위로 입력한 경우에도 이를 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러한 검토 없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라. 입법목적에(제1조)에 반하는 결론이다. – 법리오해의 위법

이법은 **1981년 단일계단 이전 승려**의 승적(사미,사미니 구족계)에 관한 사항을 확정하여 **승적으로 발생하는 논란을 종식**하고 승가의 화합과 종단의 안정을 이루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승려가 아닌 자를 승려로 인정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허위를 진실로 만드는 법이 아니다.

마. 정변호사의 논리대로 하면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

– 구체적타당성결여

① 실질적으로 사미계, 비구계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② 사실상 승려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③ 승적이 프로그램에 입력된 시기와 관계없으므로 – **2013.3.31**에 만들었더라도
④ 이 법 공포당시인 2013.4.1 이전에 위 프로그램에 81년 단일계단 이전에 수계한 것으로 입력만 되어 있으면 **모두 입력된 대로 승적이 확정되고** 승려의 자격을 인정한다는 결론이다.

바. 부당한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위 당자의 **허위로 승적을 만든 행위**는

1. 불교적으로는 대중에서 축출당하는 **4바라이죄**에 해당하는 중대 범계행위이며.
2. 도덕적으로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비도덕적 행위**이고
3. 또한 사회적으로 정의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행위이고
4. 형법상 **공정증서부실기재죄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비위행위와 같은 죄질의 비위행위이고
5. 국민의 **법감정**으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행위 임에도 이러한 비위행위를 용인하며 정당화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이의 부당함은 사회통념상 너무나 당연하다 할 것이다.**

6.본 문제에 대한 본사의 검토의견

“승려”의 종헌 종법상의 의미

◆ 대한불교 조계종

종헌 제9조와 승려법제 3조 (승려의정의)에서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전력하는 출가 독신자 즉 **비구, 비구니를 말 한다**”고 정의하고 승려법 제4조(예비승) 제6조(수계)에서 구족계를 받기 이전단계의 예비승은 사미, 사미니 계를 수지하고 예비승적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제17조(수계), 제21조 (승적취적)에서 구족계 품수 자격요건과 구족계를 받으므로서 승적을 취적하고 비로서 종헌 종법상의 승려의 자격과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별기의 관련법령참조

따라서 **종헌 종법상의 승려** 의 요건을 요약하면

① **구족계**를 받아야하고 (종헌 제9조,승려법제3조,승려법제17조)
② 구족계를 받기 위하여는 **사미계**를 받아야하고(승려법제6조)
③ 사미계를 받기 위하여는 행자생활을 거쳐 **행자교육원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승려법제11조)

※이상은 **승려지위 취득의 절대적요건**

④ **승적**을 취득하고 있어야 한다.(승려법제11조,제21조)
이는 승려지위의 종헌 종법상 **법률효과발생요건**
⑤ 사실상 **승려생활(출가 독신 수행 교화)**을 하고 있어야 한다. (종헌제 9조)
※이는 **승려지위존속요건**으로 가족관계가 발생하면,즉 혼인관계나(법률혼 사실혼 포함) 부양가족(자식)이 발생하면 승려의 지위는 당연히 소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조치법 제2조의 **81년도 단일계단 이전 승려(사미,사미니** 포함)라 함은

① 81년도 이전에 **구족계를 받았거나**
② 최소한 81년도 이전에 **사미계를 수지한 상태로**
③ 81년도 이전에 **승적을 취득 또는 예비승적을 취득**하고
④ 81년도 이전에 **사실상의 승려생활**을 하고 있는 자가
81년도 **단일계단 이전 승려에 해당함**은 문리해석상으로 자명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건의 당사자는 85년도에 본사에 와서 승가생활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① 81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비구계를 받은바 없으며**
② 81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사미계도 받은바 없으며**
③ 81년도 이전에는 **승적은 말할 것도 없고 예비승적도 없었으며**
④ 81년도 이전에는 **사실상의 조계종 승려생활도 하고 있지 않았음**은 증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사실이므로 **위 당사자는 특별조치법 제1조 및 제2조의 “81년도 단일계단 이전승려”라 볼 수 없다.**

따라서 비록 특별조치법의 공포시점인 2013.04.01이전의 총무원 승적관리프로그램에 단일계단 이전에 사미계, 비구계를 받은 것으로 입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입력 된 대로 승적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승적이 입력 된 대로 확정되었다는 것은 입력 된 대로 승려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이는 위와 같이 종헌, 종법상 승려도 아니며 또한 81년도 단일계단이전 승려가 아닌 자를 승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승적부는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문서이지만 그 기록내용이 실체적 진실이라는 **공신력을 인정받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언제든지 증거자료로서 사실증명을 하고 이의 정정이 인정되는 문서이기 때문이다.

◆ 만약 승적부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종단법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이건과 관련하여서는 반사회적 질서를 인정하는 법이 되어 국법체계에서도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승적관련특별조치법의 경우에도 율장과 종헌에 위반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단의 법 체계 상으로도 위헌법률 판단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이 있다고 사료되나 여기서는 이에 대한 검토는 제외한다.

7.결어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우리 종단의 법무전문위원인 위 정변호사의 의견서는

1.위 질문의 요지에서 구하는 답변서라 볼 수 없고

2.특별조치법 적용의 인적범위에 관한 의견도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 이유불비, 논리모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사에서는 종단의 공식의견으로 수용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정 변호사에게 위 유권해석을 요청한 위 질문의 요지인 **“81년도단일계단 이전승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다시 요구하면서 함께 위 본사의 논지에 대한 비판을 청합니다.

또 의견서를 보내주신 홍익법무법인과 대륙아주법무법인의 다른 두 분의 변호사님에게도 같은 뜻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2014.06.18일까지 공개적인 의견 개진이 없을 경우는 본사의 견해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종헌 종법적 다음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혀 둡니다.

그리고 종단의 관련기관에게 이 결과와 관련한 종헌 종법상의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합니다. 만약 이러한 비위가 공개적으로 인정 된 경우에도 (요청한 기간 내에 공개의견을 내지 아니한 경우)상응한 종단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관련 책임자는 직무유기의 형사책임과 초록동색이라는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별기

부처님께서는 유촉으로 계를 스승으로 삼으라 하셨다.

수계는 부처님께서 직접 정하신 계를 지킬 것을 서약하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는 의식이다. 그러므로 계를 받지 않으면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므로 승가의 일원이 될 수 없다. 이는 종헌종법 이전의 율장에 근거한 가장 근본이 되는 정신이다. 그러므로 계를 받지 아니하고도 승려임을 주장하는 것은 마치 호적상에 다른 사람의 아들로 허위로 입적해 놓고 그집 아들임을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과거의 종단에서 시비의 중심은 계를 잘 지키지 않는 문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의 경우는 출가 승려의 절대적 자격요건인 **사미계, 비구계를 수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승려로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건으로 종단 초유의 논란이라 할 것입니다.

근자의 범계여부에 대한 현실은 누구도 이문제로 자유로울 수 없는 형편이라 할 수 있으나 **“앉아서 계를 받고 서서 파하더라도 계를 받은 공덕은 무량하다.” 라는 말과 같이 수계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 바인데 계를 받지 아니하고도 승가의 일원이 되는 문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모든 종도들과 함께 준엄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관련법령**

종 헌

제9조 승려는 구족계와 보살계를 수지하고 수도 또는 교화에 진력하는 출가 독신자라야 한다.

승려법

제 3조 (승려의정의)
이법에서 승려라 함은 구족계를 수지한 비구 비구니를 말한다.
제 4조 (예비승)
① 구족계를 수지하기 이전 단계인 식차마나니 사미 사미니는 예비승으로 구분한다.
② 예비승은 이법 또는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려의 권리, 의무, 포상, 징계등 제반사항을 적용 받는다.
제2장 사미, 사미니, 식차마나니.
제 6조(수계)
① 출가한 남녀 행자로서 기초교육긴관(행자교육원)을 수료한자는 종단에서 지정한 단일 계단에서 사미, 사미니 계를 품수한다.
제 9조(사승)
① 사미 사미니가 되려는 자는 사승을 정해야 한다.
제 11조(취적)
기초교육기관(행자교육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사미 사미니계를 수지한 자는 예비승적을 취득한다.
제3장 비구, 비구니
제 17조 (수계)
① 종단기본교육기관(승가대학)을 수료하였거나 기초선원과정을 이수 한 자는 종단에서 지정한 단일계단에서 비구, 비구니계를 품수한다.
제 21조(승적취적)
구족계를 받은 자는 승적을 취적한다.

2014. 6. 5.

제 2교구 본사 용주사
주지 직무대행
전 대한불교 조계종 법 규 위 원
정 호

불교미술의 선구자 황수영 박사 조명

한국미술사연구소 6월 14일 첫 학술대회 개최

불교미술사학의 길을 연 한국 미술사학계의 거두 초우 황수영 박사(1918~1944)의 생애와 사상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미술사연구소(소장 문명대)는 6월 14일 오후 1시 40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고유섭 · 황수영 문도회가 주관하는 '황수영 박사의 미술사연구 업적'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황수영 박사 탄신 96주년을 기념한 이날 자리에서는 김정희 원광대 교수의 사회 하에 먼저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의 '황수영 박사의 생애와 학문세계' 기조발표가 진행된다.

문명대 교수는 황수영 박사에 대해 "한국미술에서도 불교미술의 문을 연 개척자"라고 평가하며 특히 황 박사가 진행한 석굴암 중수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이어 △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의 '황수영 박사의 한국불상 연구' △손신영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의 '황수영 박사의 탑파 연구' △최응천 동국대 교수의 '황수영 박사의 범종 연구' △김창균 동국대 교수의 '황수영 박사의 은입사향완 연구' △박도화 前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의 '황수영 박사의 사경 및 사경화 연구' 등이 발표된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황수영 박사의 업적과 함께 불상과 탑, 범종과 금속공예, 사경 등 불교미술의 발전 상황과 황수영 박사의 연구로 인해 닦인 학문체계 등이 새롭게 평가된다.

세미나에서는 최성은 덕성여대 교수, 이강근 서울시립대 교수, 안병찬 고려대 교수, 강순형 국립문화재연구소장, 유마리 문화재청 문화재연구소 미술공예 실장이 논평자로 참석할 계획이다.

문명대 교수는 "황수영 박사는 평생을 헌신해 초창기 불교미술 분야를 개척한 위대한 학자"라며 "그 진면목을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황수영 박사의 생전 사진. 황 박사는 불국사 석굴암 보수 등 불교문화재 복원에도 큰 기여를 했다.

초우 황수영 박사는?

초우 황수영 박사는 진홍섭 박사, 그리고 최순우 前국립박물관장과 같은 북한 개성 출신으로 한국미술사학계에서는 '개성 3인방' 으로 불린다. 식민지시대 개성박물관장으로 있던 고유섭(高裕燮) 선생 문하에서 함께 미술사에 눈을 떴다.

1918년 태어난 고인은 식민지시대 경복중학교와 일본 마쓰야마(松山) 고등학교를 거쳐 1941년 도쿄제국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광복 직후 귀국했다. 귀국 후 개성상업중학교 교감으로 일하다가 1947년 이후 50년까지는 국립박물관에 투신해 박물감을 지냈으며 1956년 동국대 교수로 임용돼 박물관장과 대학원장을 거쳐 1982년부터 1986년까지 이 대학 총장을 역임했다. 1962년 문화재위원회에 위원으로 입성, 오랫동안 활동하면서 1981년에는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 기간 한 · 일 국교정상화회담에서 문화재 반환 협상의 실무대표로 활약하기도 했다.

1985년에는 하성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동국대 총장을 지낸 저명한 역사학자 이선근 박사 추모사업을 벌이기도 했다. 1994년에는 대한민국학술원 회원에 선출됐다.

고인은 이처럼 비단 미술사 분야에 한정되지 않고 문화와 교육 전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족적을 남겼다.

전공인 미술사 분야에서는 불교미술에 속하는 탑파와 불상, 공예 분야 연구를 진척시켰다. 학계에 미친 영향력이 워낙 커 황수영 박사의 지도를 직간접적으로 받지 않은 후학이 없다시피 하다.

또 황수영 박사는 전국을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수많은 유적과 유물을 발견해냈다. 서산마애삼존불상과 팔공산 제2석굴암, 문무대왕 해중릉, 울주 반구대 암각화 유적은 그의 손길을 거친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문화재 복원에도 깊이 관여했다. 노덕현 기자

"동국대 불교센터 건립에 힘 모아주자"

김선근 교수, 6월 14일 모금위한 고희법회

'동국대 불교센터 건립모금' 을 위해 불교 원로학자가 고희법회를 개최한다. 김선근 동국대 명예교수〈사진〉는 6월 14일 동국대 정각원에서 '인도철학에서 본 대승불교-성철스님 간화선 사상을 중심으로' 를 주제로 고희법회를 개최한다. 법회에서 김 교수는 현대인의 정신적 위기 극복으로서 성철 스님의 간화선 사상을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김선근 명예교수는 "인간 존엄성 상실과 소외, 핵전쟁의 공포, 빈부격차, 환경오염 등으로 인류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이때, 성철 스님의 간화선 사상을 실천하자"고 주장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로써 간화선 수행을 제시한 성철 스님의 노력은 기복중심적인 신앙풍토 속에서 사라져 버린 자각(自覺) 전통을 다시 일깨우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모연된 기금은 전액 '동국불교센터' 건립에 기부된다. 동국대 불교대학(학장 정승석)은 2013년 11월 비전



2020 선포식을 통해 '동국불교센터' 건립을 수립한 바 있다. 동국불교센터는 불교학, 인문학, 세계 불교학의 거점 역할을 하기 위해 컨벤션센터, 세미나실, 연구기관 등이 들어선다.

김 교수는 동국대 불교대학 인도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인도철학회장 및 한국불교학회장을 역임했다. 인도 정통철학인 베단타 철학을 오랫동안 연구했으며, 인도철학과 대승불교의 관계에 대한 여러 편의 논문과 저술을 남기기도 했다.

노덕현 기자

여연 스님, 한국차문화학회 세미나 발제



한국차문화학회(회장 조기정)는 5월 31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한국 발효차의 산업화 전략' 이라는 주제로 2014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백련사 주지 여연 스님은 '한국 발효차 어떻게 갈 것인가' 기조강연에서 "지금 우리 차산업계 앞에 놓여있는 산은 FTA의 체결로 밀려올 세계의 차(茶)들과 함께 이미 소비자들이 깊이 빠져있는 커피시장이다"라고 말했다.

각 사찰에서는 차문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한 여연 스님은 이어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것은 세계시장의 흐름을 읽고 대비하는데서 비롯된다"며 "우리 차의 존재를 세계시장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여연 스님의 기조강연에 이어 △정승호 한국티소믈리에 연구원장의 '최근 세계 티산업의 동향' △박희준 동국대 교수의 '한국 발효차의 유형과 특성' △정은희 성신여대 교수의 '우리나라 차문화 확산과 차산업 발전 방향' △손영란 목포대 교수의 '후발효차 발전방향 연구' 가 발표됐다.

조기정 교수는 "힐링의 물결을 타고 그간 소외되었던 우리의 차가 비로소 새롭게 인식되기 시작했다. 차 산업계에서는 이에 부응해 소비자의 구미에도 맞는 다양한 차를 개발하고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술대회가 열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2014광주국제차문화전시회' 가 개최돼 차 재료 및 제품, 차문화와 생활용품, 공예품, 포장기기, 찻집 및 프렌차이즈 업체, 차실 전문 인테리어 업체 등 다양한 차 관련 전시회가 개최돼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불교학보〉 제68집 원고 모집

동국대 불교학술원 불교문화연구원(원장 김종욱)은 6월 23일까지 〈불교학보〉 제68집에 게재될 논문을 모집한다.

주제는 불교학 관련이면 어느 분야든 가능하다. 연구원 발행 논문집으로 심사료 및 게재료가 없다. 분량은 200자 원고지 120매 내외로 150매를 초과할 수 없으며 한글요약과 영문요약 등의 양식체재를 갖춰야 한다. 접수는 불교문화연구원 이메일(bulgyohakbo@dongguk.edu)을 통해 가능하다. (02)6713-5166

노덕현 기자

백제 석조사면불상 균열로 보수 계획

문화재청, 문화재수리현장의 날 공개

백제시대 조성된 석조사면불상에 균열이 가고 광배는 박락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6월 2일 "보물 제794호 예산 화전리 석조사면불상에 미세먼지에 의한 오염과 석재의 동 · 서 · 남 · 북 4면에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며 "특히 남측 면과 동측 면 광배(光背) 부분은 박락의 우려가 있어 이번에 보존처리하기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보존처리는 사면불상의 구조적 안정 상태와 풍화 훼손 상태 등을 3차원 정밀 실측을 통해 조사한 후 △표면 오염물 세척 △균열 부위 접착 △암석강화 처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석조사면불상은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백제사면불(百濟四面佛)로는 유일하다. 자연석 4면에 불상을 조각한 것으로, 땅속에 묻혀있던 것을 1983년에 국립공주박물관이 발굴해 1984년 보물로 지정 · 관리하고 있다. 서산과 태안의 마애불과 비교되는 우수한 문화재로 불교사와 미술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석조사면불상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보존처리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도단의 조언을 받아 보존처리 공사를 빈틈없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현장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요 문화재 수리 현장 공개의 날' 을 시행한다.

6월부터 보물 제57호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 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수리 현장을 공개하고 내년부터 공개 대상을 확대한다. 대상은 국보 11호 익산 미륵사지 석탑, 사적 466호 원주 법천사지, 보물 1403호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 등이 공개된다. 안동 조탑리 오층전탑은 통일신라 시대의 전탑으로 높이는 약 7m이다. 문화재청은 6월부터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전탑 해체 보수 과정 △해체 부재 보관 장소와 보관 방법 등을 공개한다.



노덕현 기자

한국선학회, 6월 13일 추계학술대회 개최

선사상을 축약해 드러난 선어록, 상징성이 강한 어록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번역해낼 수 있을까.

한국선학회(회장 이덕진)가 6월 13일 오후 1시 서울 장충동 우리는선우 법당에서 개최하는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선어록 번역에 대한 문제가 다뤄진다.

'선어(禪語),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를 주제로 열리는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백파긍선의 선문수경에 나타난 선어용례 연구' △정영식 동국대 HK교수의 '소소영영(昭昭靈靈) 개념의 비판에 대한 고찰' △동방대학원대학교 교수 인경 스님의 '평상심 비판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국대 전자불전문화콘텐츠연구소 연구원 영석 스님의 '선문염송집설화에 나타난 선어' 등 4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들 발표자들은 그동안 선어록을 번역하며 느낀 문제를 토대로 번역에 대한 방향을 논의한다. 노덕현 기자



붓다의 생애와 가르침을 한 권으로 담아낸 성전!

장종천 편역 | 신국판 양장 | 926쪽 | 33,000원

붓다의 본생과 탄생, 성장과 출가, 수행과 전도, 열반에 이르기까지,
읽는 이의 가슴을 울리는 붓다의 감동적인 생애가 펼쳐진다.

방대한 아함의 불음佛音을 한 권으로 쉽게 풀어 엮은 책으로, 붓다의 일상적인 삶과 수행생활, 45년 간 펼친 방대한 가르침의 에센스가 오롯이 담겨 있다.

목숨을 건 수행과 통찰,
중생들에 대한 깊은 연민과 자비심,
제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상한 가르침,
한 사람에게라도 더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쉬임없는 전법활동……



부처님의 덕성과 자비심, 지혜와 공덕을 찬탄한 150게송!

부처님, 나의 부처님

- 일백오십찬불송 -



읽는 이로 하여금 깊은 환희심과 믿음, 존경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처님 찬가!

마트리체타의 「일백오십찬불송」은 종파를 초월하여 인도의 모든 수행승들이 계를 암송한 후 바로 배우는 게송으로, 아름답고 유려한 문장은 불교에 대한 믿음과 실천을 불러일으킨다. 이 책은 산스크리트, 한문, 영어본, 우리말을 대조하면서 읽을 수 있게 엮었다.

마트리체타 지음 · 의정 한역 · S. 담미카 영역 · 허만항 한글 번역
신국판 | 252쪽 |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불교 호스피스는 참된 행복의 시작

부산 환희불교복지대 15년간 1600여 봉사자 배출

부산지역 불교 호스피스의 유일한 교육기관인 부산 관음사 부설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산하 환희불교복지대학(학장 지현)이 제31기 호스피스를 배출했다.

환희불교복지대는 5월 31일 환희노인요양원 강당에서 '제31기 환희불교복지대학 수료기념 특별강연회'를 가졌다.

이 행사는 2개월 동안 호스피스 교육과정을 이수한 34명을 위한 수료증 수여식 및 송광사 강주 도암 스님의 특별강연 '보살도의 실천' 등이 마련되었다. 또한 학장 지현 스님, 김맹자 두송종합복지관 관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수료생들은 지난 3월부터 임종간호와 영적간호, 응급처치법, 노인복지 및 노인요양보험제도 등 호스피스 이론부터 학장 지현 스님이 직접 강의하는 수업 '생명의 의미와 가치' 까지 다양한 이론과 실습을 수학했다. 수료식 이후에는 정식적인 불교 호스피스로서 환희노인요양원, 부산대학병원 등 도움이 필요한 여러 의료기관에서 호스피스 봉사를 펼치고 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학장 지현 스님이 졸업생들에게 수료증을 수여했으며, 개근상을 받은 수료생에게는 염주가 주어졌다. 또한 이전 기수의 졸업생들이 환희불교복지대학의 호스피스를 상징하는 연꽃배지를 31기 수료생들의 가슴에 직접 달아줘 수료식의 의미를 더했다.

제31기 졸업생 성경애(59)씨는 "어르신들을 직접 뵈면서 내가 신체와 정신이 건강할 때 주변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앞으로 호스피스로서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살뜰히 모시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환희불교복지대학은 1999년 불교보건복지대학봉사단을 창단, 현재의 31기 졸업생까지 1600여명의 불교 호스피스들을 양성했다. 환희불교복지대 호스피스 교육은 오는 9월까지 32기 신입생을 모집, 개강할 예정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환희불교복지대학은 1999년 불교보건복지대학봉사단을 창단해 31기 졸업생까지 1600여 명의 불교 호스피스를 양성했다. 사진은 31기 수료식 장면.

"생명 돌보는 일은 존엄…사람이 부처"

환희불교복지대학장 지현 스님



사회복지법인 늘기쁜마을 산하 환희불교복지대학과 환희노인요양원을 이끌고 있는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사진〉은 어르신들을 돌보는 것으로 오랫동안 하화중생(下化衆生)을 몸소 행하고 있다. 지현 스님은 호스피스 교육생들에게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생명의 존귀함이 가장 소중합니다. 부처님 안에서 생명을 돌보는 귀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도 부처님"이라며 모든 이들을 귀하게 여겨야함을 항상 당부한다. 스님은 강의가 늘 즐겁다고 말한다. 지현 스님은 "교육생들 앞에 서서 강의하는 것이 참 즐겁습니다. 기도할 때만큼 신심 나고 신명나는 뿌듯한 일은 호스피스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생명을 돌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나가고 싶다는 지현 스님의 발원 때문일까. 지현 스님은 지난해에 관음사 내 병상 99개를 갖춘 노인요양시설인 '환희노인요양원'을 개원했다. 총 99명이 입소할 수 있는 환희노인요양원은 2011년 국민건강보험 평가 최우수 기관으로 인증 받을 만큼 뛰어난 요양프로그램과 시설을 자랑하고 있다.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일들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염불을 해드리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는 것뿐입니다. 또한, 어떠한 보석과 명예, 권력이 존재한다고 해도 이분들의 생명과는 바꿀 수 없으니 생명을 돌보는 존엄한 일이야말로 부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김나영 객원기자

장흥 보림사 제5차 선차아회

수륙무차 영산대재도

신라 구산선문의 하나인 가지산문 보림사에서 한국의 선(禪)과 차(茶)가 어울리는 선차(禪茶) 축제가 열렸다.

장흥 보림사(주지 일선)는 5월 31일부터 2일간 경내에서 '제5차 세계선차아회 및 수륙무차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첫날 행사인 선차아회는 도의국사 탄신다례를 기념하는 헌다와 주지 인사말, 축사, 학술대회, 청태전 체험, 다완 감상 등이 이어졌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현봉 스님의 '선차동전의 역사', 최석환 대표(월간 차의 세계)의 '동아시아 선차문화와 보림사의 위상', 박정진 교수(한양대)의 '가지산파의 선창정신', 허흥식 교수(한국한중앙연구원)의 '삼국사기 차 기록과 원표와의 관계'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둘째 날에는 세월호의 희생자들의 천도를 기원하는 영산대재가 봉행됐다. 영산대재는 시련 이운식을 시작으로 헌향(송광사 주지 무상), 내빈소개, 헌화, 발원문 낭독(신도회장 손수자), 법어(원로의원 법흥스님), 영산대재 1부(대령, 관욕, 신중작법)가 진행됐다. 이어 점심공양 후 본격적인 영산대재가 진행됐다.

원로의원 법흥 스님은 "천도재를 통해 많은 고혼들이 천도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포교사단 전북지역단, 분야별 연수

5월 31일 전북불교회관서

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단장 주정기)은 5월 31일 전북불교회관 강의실에서 분야별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114명의 전북지역 포교사들이 동참한 이날 연수교육은 입재식에 이어 사찰문화해설팀, 교정교화팀, 군포교팀의 분야별 사례발표와 포교원 포교국장 노휴 스님의 지역 전법네트워크 구축방안, 윤기중 부단장의 포교사단 정책과 비전, 분야별 평가와 지역단 정책소개, 불교 포교 레크레이션의 순으로 진행됐다.

곽명희 포교사단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교를 통해 자비정신을 실천하여 종단의 포교역량과 위상이 다져질 것"이라며 "스스로 내적 성장을 이루어 사회가 요구하는 불교적 가치를 제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은 총 206명의 포교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군 포교팀 등 8개 분야에 17개 팀이 지역별로 포교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계종 포교사단 전북지역단은 분야별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다양한 강좌로 지역포교에 박차

광주 마하보리사 창건 10주년 기념법회

도심속 전법도량으로 거듭나고 있는 마하보리사(주지 원암)가 창건 10주년을 맞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마하보리사는 6월 2일 대웅전에서 회주 성오 스님, 진우 스님(백양사 주지), 청마 스님(백양사 재무)을 비롯해 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지난 도심포교의 활동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마하보리사는 2004년 음력 5월 5일(단오)에 원만행 보살의 기부로 회주 성오 스님이 창건했다. 광주광산구에 대지 450평, 건물 65평(전체 130평) 2층 건물을 지어 시작된 마하보리사는 "유치원을 설립하고, 도시 속에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도량으로 만들어달라"는 원만행 보살의 창건이념을 실천해왔다. 초대 주지 성오 스님은 지금껏 11번의 불교입문교육과 경전강좌, 지역 중·고등학교 장학사업 등을 개최해 왔다.

지난해 11월 제2대 주지에 취임한 원암 스님은 사찰 단청불사를 회향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1년에 2번의 불교입문교육을 실시할 것이며, 한지공예 등 다양한 문화강좌를 통해 젊은 층을 위한 다양한 공간으로 바꿔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념법회에서 성오 스님은 법어를 통해 "광산구는 불교의 불모지로 창건 당시 조계종 사찰이 한 군데도 없었다"며 "부처님의 밥값을 하기 위해 포교사업 등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것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마하보리사 10주년 기념법회 모습

울산 사찰, 청소년 포교에 앞장

황룡사·해남사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기관인 울산 황룡사(주지 황산)와 해남사(주지 만초)가 포상자를 배출했다.

5월 29일 울산 가족문화센터 대연회장에서 열린 '2014년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상반기 울산지역 포상식 및 발대식'에서는 황룡사 청소년 8명, 해남사 6명이 각각 포상을 받았다.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는 만 14세~25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비경쟁적이고 자발적인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 및 탐험활동을 통해 잠재력을 개발시키는 국가청소년 정책으로, 포상활동을 완료할 경우 국제청소년포상제 국제협회의 인증서와 여성가족부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된다.

울산에서는 총 16개의 운영기관에서 408명의 청소년들이 포상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황룡사와 해남사는 이들 가운데 포상을 받아 사찰의 꾸준한 청소년 포교활동이 성과를 내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날 포상식에서 황룡사는 은장 6명, 동장 2명이 인증서와 휘장을 수여하였으며, 해남사는 은장 2명, 동장 4명의 청소년들이 포상을 받았다.

김나영 객원기자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포상식 및 발대식

제7회 생명나눔 시·산문 백일장

5월 31일 부산 영광도서에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가 '제7회 생명나눔 시·산문 백일장'을 5월 31일 부산 영광도서 사랑방에서 개최했다. 오전 중등부와 오후 고등부로 진행된 이번 백일장에는 각각 100여명이 참여해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해보고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부본부장 목종스님은 "생명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의 희생과 나눔에 의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나의 생명과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 일어난 비극이다. 여기 참가한 여러분은 사회에서 서로 배려해주고 보살펴주며 살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백일장의 중고등 공통주제는 '세월호'가, 중고등별 주제로는 '그리움,' '사랑'이 각각 선정됐다.

김나영 객원기자


부산 생명나눔 백일장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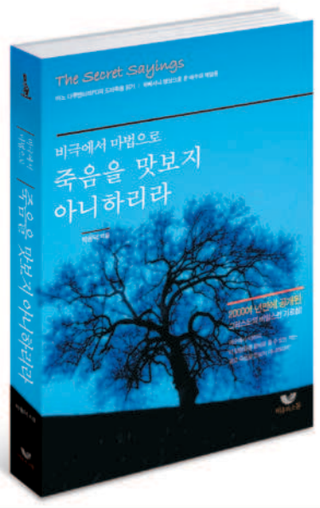
응공조계종 동명사서 법계고시

대한불교응공조계종(종정 법운)은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에서 5월 25일 법계고시를 실시했다.

이날 법계고시는 종헌 종법상 고시법을 엄정히 적용해 원칙을 준수하여 치려졌다. 경과년과 승납규정을 엄밀히 적용하고 논문제출, 면접 등을 실시했다.

법계고시 위원장에는 법운 스님이 위원으로는 수덕, 동화, 도경, 진송, 법화 스님 등이 맡았다. 위원장 법운 스님은 치사를 통해 "한국불교 중흥과 불교세계를 염원하는 혁신적인 종지종풍을 이어가는 석가세존의 법맥을 이어온 본 종단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올바른 불교의 모습을 정립해나갈 종단의 기둥인 자부심을 갖고, 여법하게 품수 종단 발전에 크게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은
신성神性이자 불성佛性이다

"나는 만유 위에 있는 빛이라. 내가 곧 만유라.
만유가 나로부터 나왔고 또 만유가 나에게 이르노라.
통나무를 쪼개라. 그러면 내가 거기 있다.
돌을 들라. 그러면 거기서 나를 찾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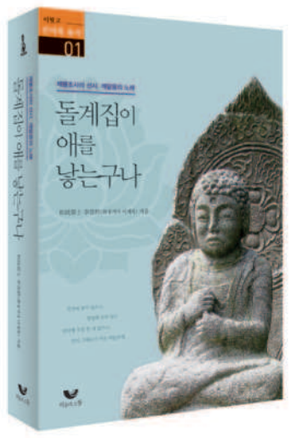
비극에서 마법으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박동덕 지음|신국판|487쪽|19,500원

예수의 깨달음과 비전을 담은 비밀 성경 '도마복음'
그의 명상禪적인 가르침을 2,000여 년만에 해석하다

KBS, EBS 등에서 유명 교양/다큐프로그램을 연출한 저자 박동덕 씨(방송프로덕션 '비에마로' 대표)는 2001년 보리수선원에서 위빠사나를 배우면서 생활 속에서 수행을 해왔다. 2010년 여름, 알 수 없는 이유로 하루종일 쓰러져 있다가 의식을 회복한 임사(臨死)체험 후 '왜 돌아왔을까?'를 고민하다가 '도마복음'을 통해 나고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의 빛(無量光無量壽)이 바로 신성인 동시에 불성임을 확신하고, 불교적인 관점에서 도마복음을 본격적으로 해설했다. 독자들은 이 책을 통해 "이 말씀들을 올바로 풀 수 있는 자는 결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예수님의 설법을 깨닫게 될 것이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삼매(三昧)의 채로 걸러진, 뼈를 깎는 수행의 결정체
오도송·전법게·열반송·선문답 통해 참마음 깨닫기

제불조사의 선시, 깨달음의 노래
돌계집이 애를 낳는구나

이계묵 지음 | 신국판 | 무선 | 흑백 | 636쪽 | 28,000원

제1부 과거칠불과 선종 33조사의 전법게, 제2부 고승·대덕의 오도송과 수행송, 열반송을 모아 번역하고 해설했다. 제3부는 저자의 견도송(見道頌)을 비롯한 자작(自作) 선시와 선문답들로서 40여년간 참선하면서 그때그때 느끼고 깨달은 바를 노래한 책이다. 해인사 강주를 역임, 수행자들에게 선(禪)과 유식(唯識)을 지도해온 화정 이계묵 노거사의 역작(力作).

지상 불국토의 발원이 담긴 앙코르 와트 건설한
앙코르 제국의 불자 대왕, 자야바르만 7세

자야바르만 7세, 앙코르 제국의 대왕
소설 앙코르 와트

이형종 지음 | 신국판 | 부분 컬러 | 352쪽 | 15,000원

주캄보디아 대사관 총영사를 역임한 이형종 외교관이 지은 이 책은 자야바르만 7세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형식으로 앙코르 제국의 역사와 유적을 흥미진진하게 소개한 역사·전기소설. 부록에 첨부한 앙코르 왕들의 연대기와 유적 일람표, 앙코르 제국의 영역지도, 시엠립 관광지도와 함께 캄보디아의 유적과 캄보디아인들의 풍속과 삶을 촬영한 사진들이 소설을 읽는 재미와 함께 역사적인 안목으로 앙코르 와트를 살펴보게 한다.



비움과소통 02-2632-8739, buddhapia5@daum.net

천년 세월이 '구품연지' 위에 오롯이 흐르네

제주의 사찰을 찾아서 ④ 서귀포 법화사


극락정토 구품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3천여평의 연지 뒤에 우뚝 서 있는 구화루의 풍광이 빼어나다. 특히 '구품연지'는 발굴 조사결과를 토대로 그대로 복원했다.

통일신라 해상왕 장보고 전설 깃든 고찰
폐사 후 1990년대 들어 본격 복원 시작
고증거친 3천여평 구품연지와 구화루 장관

제주 중문 앞바다는 서해쪽 해류가 흐르는 지역이다. 이 해류는 제주 남쪽 해협으로 올라와서 중국 요동반도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중국대륙연안을 따라 쿠로시오쪽으로 흐른다. 통일신라때 해상왕 장보고는 이 해류를 따라 해상활동을 하면서 물자공급을 받고 안전한 뱃길을 기원하기 위해 기도처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것이 제주 하원 법화사를 장보고가 창건했을 것이라는데 무게가 쏠리는 이유다. 특히 산둥반도 적산촌 법화원과 청해진 법화사, 그리고 제주의 법화사가 당시에 주존불로 아미타불을 모시고 있었고 사찰의 지세와 위치, 전경 등도 다른 법화사와 일치하고 있을뿐더러 신라시대 사찰에 보이는 기단석 처럼 이중 턱 구조를 갖는 것도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공통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법화사는 지난 1992부터 1997년까지 발굴된 명문기와를 바탕으로 고찰해 보면 '1269년에 중창을 시작해 1279년에 불사를 마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법화사의 중창불사는 몽골에 의해 이뤄졌으며, 탐라에 온 몽골인이나 제주지역 몽골 혼혈인들의 종교적 안식처이자 세력기반을 쌓기 위한 중추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에 법화사에는 노비가 280여 명이 있었고, 법화사에 봉안된 아미타삼존상을 명나라가 반환 요구했을 때 이를 전남 해남에 숨기기 위해 만든 감실의 높이와 폭이 각각 7척이었다는 기록으로 봤을 때 당시 법화사의 규모가 도내 최대 규모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법화사는 제주도 최대 사찰의 명맥을 유지했지만 유난히도 부침을 많이 겪은 사찰이기도 했다. 특히 조선시대에 접어들면서는 본격적으로 쇠락의 길에 접어들었다. 1530년 기록인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법화사의 존재가 나타나지만, 이원진이 기록한 〈탐라지〉(1653년)에는 폐사돼 초가 몇 칸만 남아 있다고 기록돼 있어 아예 사찰의 모습이 자취를 감춘 것으로 보인다. 이후 1908년 제주불교는 중흥조인 안봉려관 스님에 의해 관음사가 창건 되는 등 자연스럽게 중흥을 맞지만, 제주 근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1948년 '4·3사건'으로 소실되는 비운을 겪는다. 완연히 폐사된 법화사터가 드러난 것은 4·3항쟁 당시 중산간 일대 마을이 불타버리면서이다. 법화사터는 1970년 지방기념물 제3-13호로 지정됐다가, 1982년부터 발굴되기 시작했다. 현재는 1983년에 발굴된 대웅전터에 1987년에 새로 세운 대웅전이 있다. 제주대 박물관팀의 발굴 결과 고려시기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100여 평 규모였으며, 건물 앞에 넓게 조성한 월대가 마치 고려 궁전의 만월대와 같다고 한다. 이곳에서 나온 운룡문(雲龍文)이 새겨진 수막새 역시 만월대에서 출토된 것과 같다고 한다. 이렇듯 월대를 갖춘 건물 기단도 드물지만, 절터에서 운룡문의 막새가 발견된 예는 법화사를 제외하고는 유례가 없다. 기단부의 지대석을 2단으로 처리해 면석이 놓이는 자리에 턱이 생기도록 한 것도 독특한 고식이다. 대웅전터에 다시 법당을 지었다. 건물 앞에 넓게 조성된 월대는 고려 궁전의 만월대와 같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형식은 법화사를 제외하고는 없다. 사지로만 존재하던 법화사의 본격적인 복원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시작돼 현재의 가람 모습을 갖추게 됐다.


발굴결과 고려시기 법화사 대웅전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100여평 규모였다. 사진은 1987년에 새로 불사한 대웅전 모습.

법화사는 뒤쪽으로 작은 산봉우리를 등지고 동서방향의 양옆으로 뻗어내린 산줄기로 감싸여 있어, 전체적으로는 산자락이 U자형으로 감아도는 지형에 동서로 길게 들어선 가람 형태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남쪽으로는 서귀포 앞바다를 향하는데, 앞에 구산봉의 능선이 바다를 가리고 있다. 절 뒤에는 맑고 찬 석간수가 적잖이 솟아나서 과거에 하원동 주민들이 식수로 이용할 정도였다고 한다. 법화사에 들어서면 제일먼저 눈에 띄는 것은 경내에 자리한 구품연지다. 이는 본래 불국사 앞마당에 있던 큰 연못의 이름인데, 극락정토 구품의 세계관을 상징하는 연지를 일컫는다. 법화사지의 구품연지는 발굴조사 결과를 토대로 그대로 복원한 것이다. 특히 7차례의 사찰 주변 일대를 발굴 조사한 결과 오백나한전 터를 비롯해 여러 동의 건물과 3천 8백여평의 구품연지가 실제 존재했음이 확인됐다. 화산섬인 제주는 점토질 토양이 거의 없어 연꽃을 보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법화사는 연꽃의 청정함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사찰로, 누각 '구화루'와 어우러진 구품연지는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법화사=제주불교 이병철 기자

"복원불사로 옛 명성 되찾겠다"

법화사 주지 진우 스님



"법화사가 제주지역 천년고찰로서 옛 명성을 잇고자 복원불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여법한 도량으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조계종 제 23교구 본사 관음사 말사인 법화사는 천년고찰답게 제주서 유일하게 격년제로 연꽃축제를 개최하며 연꽃 같은 불연의 향기를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전하고 있다.

진우 스님은 "템플스테이·명상·일반법회 등을 활성화해 수행도량으로 가꿔나가며 제주불교 활성화에 한 축이 되겠다"고 포부를 밝힌 후 "청정원만 지혜로써 남을 교화 할 수 있는 사섭법을 통해 법화도량에 소승과 대승이 하나를 이루는 세계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교구본사와의 원활한 소통은 물론 지역 사회와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통해 명실공히 법화사가 주축이 되어 제주불교를 불국토로 만드는데 정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병철 기자

여행수첩

▲무오 법정사지

법화사가 자리한 하원동서 1100도로를 따라 구, 탐라대학을 지나 제주시방향으로 1km를 가다보면 법정사 진입로가 나온다. 진입로를 따라 약 2km를 가면 법정사가 있다.

서기 1918년 10월 5일 법정사 주지 김연일을 중심으로 한 불교도가 일본의 침탈에 항쟁한 3·1운동보다 먼저 일어난 전국 최초의 무장항쟁이다. 이 항쟁은 보천교(普天敎)사건으로 잘못 알려졌다가 이 사건과 관련된 수형인 명부가 발견됨에 따라 75년 만에 불교계가 주도한 진상이 밝혀지게 됐다. 현재 서귀포시서 법정사 성역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나라의 독립과 자주를 위해 일어섰던 숭고한 애국정신을 느낄 수 있는 불자라면 꼭 참배해야 할 성지다.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사진 오른쪽 위〉

"무병장수의 상징, 노인성을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에서 만나세요." 옛 사람들이 부르면서 한 번이라도 보면 무병장수한다는 '노인성' 별을 볼 수 있는 곳이 서귀포천문과학문화관이다. 법화사에서 1100도로를 따라 1km정도 가면 만날 수 있다.

한라산 영실 불래(佛來)오름 기슭에 자리한 존자암에는 국성재단이 있다. 그 재단에서는 '노인성' 별이 가장 빛나는 날 국가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제를 지냈다고 전해진다.



▲먹거리

요즘은 자리돔이 제철이다. 어진이네물회(064-732-7442)는 현지인들도 자리돔 물회를 맛보기 위해 즐겨 찾는 집이다. 서귀포시 벌목동에 있다. 자리물회와 구이가 유명하다. 표선부두 옆 포구식당(064-787-1016)도 자리물회, 고등어 조림 등으로 입소문 난 집이다.

▲법화사 가는길

내비게이션 주소창에 서귀포시 하원동 1071번지를 찍으면 된다. 또는 하원동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한라산 방향으로 하원마을 관통길을 따라 가다가 보면 1.5킬로 중산간 도로 교차로 코너에 위치해 있다. (064)738-5225

관세음보살님께서 대한민국 서울에 대자대비의 그늘을 드리우시다!!

관세음보살님께서 머무시는 사바세계의 주처,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소원을 이루는 영험한 기도도량 - 현지사 서울분원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 10만독으로 소원을 성취하다

2012년에는 아들딸이 좋은 배필 만나기를 발원하면서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를 10만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하다 보니 10만독까지 7개월이 걸렸습니다. 10만독을 다 마치고 난 어느 날, 아들에게서 급박한 전화가 왔습니다. 퇴근 후 귀가하다가 차가 터널 벽을 들이박아 두 바퀴를 돌아버린 대형 전복사고가 났는데 지금 용인병원에 있다는 겁니다. SM5 승용차는 종이짝처럼 구겨져 폐차했습니다만 아들은 기적처럼 전혀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원했던 바대로 아들 딸은 모두 마음에 들어하는 배필을 만났습니다. 우리 집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며느리가 될 새색시가 뜻밖에도 좋은 집을 마련해왔습니다. 딸도 인턴 수련의와 곧 결혼하게 됩니다. 부모로서 자녀의 결혼에 대해 걱정을 놓게 되어 얼마나 마음이 가벼운지 모릅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가피이야기 ①' 중에서 - 경기도 안양시 최안나

관세음보살님 기도 및 공부법

〈관세음보살보문품〉을 1독하고 '불정심관세음보살모다라니'를 3,5,7회 독송하고 참회발원하고 '관세음보살' 칭명염불을 합니다

서울분원 관음재일 안내 ; 매월 음력 24일 오전 10시 30분
현지사 재일 안내 ; 음력 1일, 15일, 23일, 25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길 18 (혜민병원 뒤) 02-453-5953

자재 만현 큰스님 법회 안내

현지사 부산분원 정기법회
6월 15일(일) 오전 9시

업장을 씻어주는 세계유일의 부처님회상에서 불과 이룬 큰스님의 사자후를 들어보십시오! 세계 어느 불교에서도 몰랐던 부처님세계와 인간 영혼체에 대한 깊은 비밀을 처음으로 밝힙니다! 21세기 인류정신을 향도하고 불교사의 새 장을 열어갈 우주적 진리의 신불교를 만나보십시오!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저자 자재만현 큰스님의 동영상 법문(238회째)을 홈페이지와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지역별로 버스 운행됩니다.
문의 033)243-1787 / 051)554-5150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영서로 4892-23 현지사 춘천본사 033)243-1787 이메일 hyunjigung@hanmail.net, 현지사 홈페이지 http://hyonjisa.com

탑의 진화
⑫ 앙코르의 유적(2)

나무도 사원… 뿌리 죽으면 사원 붕괴

16세기 초기에 포르투갈 난민들은 네델란드 군인들에 의해서 수마트라에서 쫓겨나 캄보디아의 수용소에 거주하며 앙코르지역의 유적을 답사할 수 있었다. 이시기에는 중국, 일본, 아라비아, 스페인 등의 많은 상인들이 캄보디아에 거주하여 앙코르의 유적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앙코르의 유적에 대하여 특별히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된 것은 포르투갈의 작가였던 '디에고 데 코우트(Diego de Couto)'의 기록에 의해서이다.

그의 기록은 캄보디아의 왕이 코끼리를 타고 폐허가 된 옛 수도에 사냥을 했다는 내용이지만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앙코르를 한 번도 본적이 없는 작가였다. 이 기록은 카푸친 교회의 수도사였던 '안토니오 데 막달레나(Antonio de Magdalena)' 가 1585년에 앙코르를 방문한 이야기를 듣고 재구성하여 기록한 것이었다.

본격적인 앙코르에 대한 기록은 1863년에 프랑스의 동식물학자이며, 탐험가인 '앙리 무어(Henri Mouhot)' 에 의해서이다. 그는 데생과 수채화에 능하여 앙코르의 유적을 프랑스 잡지 '세계회유' 에 실었고 단행본으로도 출판하여 세계에 알리는데 공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앙코르의 유적은 서양인들에 의하여 발견되었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앙코르의 유적이 외부세계에 알려진 것은 이미 13세기에 중국 원나라의 주달관에 의해서였다. 그는 원나라의 사신으로 중국의 절강성을 출발하여 메콩강과 톤레샵강을 경유하여 앙코르에 근 1년간(1296-1297) 체류하면서 보고 들은 바를 기록하여 '진랍풍토기(眞臘風土記)' 라는 책을 편찬하였다. 현존 하는 이 책을 통하여 그 당시 앙코르의 유적과 문화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호의 '앙코르왓' 에 이어 '바이욘 탑' 과 '타프롬 사원' 에 대하여 알아보자.

2) 바이욘(Bayon)탑 〈사진1〉

바이욘탑은 대승불교, 힌두교, 소승불교의 복합적 유적이다. 앙코르 톰의 중앙 부근에 자리잡고 있으며, 바는 '아름답다' 는 의미이고, 욘은 '탑' 을 의미한다. 앙코르 유적 중에 앙코르왓의 명성만큼이나 잘 알려져 있고, 아름답게 조성되어있는 불탑형식의 사원이다.

12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건축이 변경되고 증축되어 매우 복잡한 구조를 하고 있는 바이욘은 대승불교 신자인 자야바르만 7세에 의하여 국가적 불사로 조성되었다. 지금의 베트남인 참파(Champa)의 공격으로부터 크메르를 구한 자야바르만 7세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왕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앙코르 톰을 신도시로 정하고 그 가운데 바이욘 탑을 조성한 것이다. 자야바르만 7세가 죽자 이 불교 사원은 힌두교와 소승불교 사원으로 수차례 건축이 변경되었다.

이 바이욘 탑은 정사각형의 3층탑으로 2개의 회랑이 있으며, 외부 회랑은 한 변이 약 150m에 달하여 전체 594m이며, 내부 회랑은 전체 둘레가 300m이다.

바이욘 탑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 탑을 위시하여, 탑의 4면에 조각되고 있는 사방보살상〈사진2〉이다. 보살상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관세음보살이라는 설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장식된 갑옷을 입고 있어, 자야바르만 7세를 신격화하여 표현하였다는 설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의 고고학자 '조지코데(George Coedes)' 는 '신왕일치' 사상으로 자야바르만 7세 자신을 관세음보살과 동일시하여 조성했다고 주장한다. 처음 조성할 당시에는 54개의 사방보살탑이 조성되었으나 현재는 37개만 남아 있으며, 보살상의 높이는 1.7~2.2m 정도로 크기가 다양하다.

탑의 최고 높이는 43m이며, 1층에는 동서남북 사방에 출입문이 있다. 그 중에서 동문 양쪽에는 연못이 있는 테라스가 있다.

외부 회랑은 높이 3m, 길이는 각 35m로 8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동문부터 시작하여 시계방향인 오른쪽으로 돌며 감상하게 되어 있다.

바이욘탑, 높이 43m 불탑형식 사원
자야바르만 7세, 국가적불사로 조성
대승 · 소승불교 힌두교 복합유물
중앙 탑 중심 4면에 사방보살상
내부회랑 160m에 다양한 조각
앙코르 역사 한편의 드라마로

타프롬사원 '브라만의 조상' 이란 뜻
자야바르만 7세, 모친 극락왕생 위해
1000m×600m 안에 39개 탑 등 조성
중심건물에 부처님 유성출가상 조각
한몸인 나무 보살펴야 사원 유지

우요불탑공덕경(右繞佛塔功德經)에 의하면, 지혜제일 사리불이 부처님께 탑을 오른쪽으로 도는 공덕에 대하여 게송으로 청하였다. 이에 부처님께서는,

"불탑을 오른쪽으로 돌고 얻는 모든 공덕을 내가 이제 조금 말할 터이니 너희들 모두 잘 들어라! 일체의 하늘과 용과 야차와 귀신들이 모두 친근하고 공양함은 불탑을 오른쪽으로 돈 까닭이니라. 태어나는 곳마다 어디에서나 여덟 가지 어려움[八苦] 멀리 떠나서 언제나 어려움 없는 곳에 태어나는 것은 불탑을 오른쪽으로 돈 까닭이니라. 일체의 태어나는 곳곳마다 생각과 지혜를 잃지 않고서 미묘한 색상을 구족하는 것 불탑을 오른쪽으로 돈 까닭이니라.....〈중략〉..... 모든 부처님 탑묘(塔廟) 오른쪽으로 돌아 얻는 여러 가지 공덕(功德)을 내가 이제 들은 대로 간략이 말했으나 어찌 다하리." 〈대정신수대장경 16권 801쪽 중단〉

이처럼 탑을 오른쪽으로 돌아야 하는 원칙과 공덕을 충실히 반영하여 조각의 내용을 배열한 것이다.

내부의 회랑은 약 160m 정도이고, 정면은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외부회랑처럼 섬세하고 다양한 내용의 조각이 있다. 조각의 내용을 살펴보면 마치 앙코르의 역사를 한편의 드라마로 감상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1177년 베트남[참파]군의 침략으로 앙코르를 점령당하고 산으로 도망가는 모습부터 1181년 자야바르만 7세가 앙코르를 탈환하기 위하여 벌였던 다양한 형태의 전투장면이 조각되어있다.

전투장면은 땅위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물위에서 싸우는 모습도 보이며, 그 당시 크메르와 동맹을 맺었던 중국의 원정부대의 출정모습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쟁모습이 조각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바이욘 건설 당시의 시장의 모습, 등이 새겨져 있으며, 이는 그 당시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사진3~5〉

제2층에는 16개의 사방불탑이 있고, 제3층의 중앙에는 과거에 힌두교 신앙이 반영된 유물이 조성되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불상이 놓여 있다.

3) 타프롬(Ta Prohm)

타 프롬은 자야바르만 7세가 어머니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은혜에 봉헌하기 위하여 1186년에 조성한 사원이다. 절대군주가 되었음에도 아버지가 크샤트리아 출신이라는 컴플렉스에 시달렸던 왕은 브라만인 어머니의 권위에 의존하고자 동서 1,000m, 남북 600m의 큰 사원을 건설한 것이다.

'브라만의 조상' 이라는 의미의 타프롬은 회랑과 코너의 탑을 중심으로 많은 건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39개의 탑, 566개의 석조주택, 288개의 벽돌주택이 있으며, 왕의 어머니상과 260개의 신상이 있었다. 각 건물내부는 하얀 회로 덮고 루비와 사파이어 등 수 많은 보석들로 장엄했었다고 하나, 지금은 보석이 박혀 있던 자리에는 모두가 훼손되어 주먹만한 구멍만 파여 있다.

중앙의 중심 건물 동쪽에는 부처님의 생애 중 유성출가상의 장면이 조각되어 참배객들의 눈길을 끈다. 그러나 타프롬은 무엇보다도 두 종류의 나무뿌리가 관건이다.

흔히 용수(溶樹)라고 부르는 두 종류의 나무는 비단목화나무(Silk-cotton tree)와 목조르는 무화과(Strangler fig)나무이다.

비단목화나무는 새들이 씨를 먹고 배설하면, 그 씨가 사원의 돌 사이로 들어가 뿌리를 내려 자라게 되는데 세월이 흐르면 나무뿌리가 굵어지면서 쐐기처럼 돌덩이를 벌려 나가 마치 건축물과 뒤엉켜 하나가 된다.〈사진6〉

목조르는 무화과는 반얀 트리[Banyan; Banian tree]의 일종인데 숙주나무의 틈에서 씨앗이 발아할 때 착생(着生) 식물로 일생을 시작하는 무화과 종류의 식물이다. 다른 무화과 종과 마찬가지로 이 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는데, 씨앗은 열매를 먹는 새들에 의해서 전체 숲에 퍼지게 되는 데, 싹이 틀 때 뿌리를 땅으로 향하게 하고, 이것들이 숙주나무의 부분을 덮어서 큰 구조물을 만들게 되는데서 '목조르는 무화과' 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타프롬 사원은 이 두 나무의 굵은 뿌리들이 벽을 이리저리 휘감아 갖가지 기이한 광경을 연출하여 참배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이 나무가 죽게 되거나 더욱 자라게 되면 사원은 붕괴되고 만다. 그래서 영양분을 적절히 조절하여 나무가 현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세를 살아가는 불자들의 또 다른 과제인 것이다.


〈사진 1〉
바이욘탑은 대승불교, 힌두교, 소승불교의 복합적 유적이다. 앙코르 톰의 중앙 부근에 자리잡고 있으며, 바는 '아름답다' 는 의미이고, 욘은 '탑' 을 의미한다.


〈사진 2〉
바이욘 탑의 가장 큰 특징은 중앙 탑을 위시하여, 탑의 4면에 조각되고 있는 사방보살상이다.


〈사진 6〉
타프롬을 휘감고 있는 비단목화나무 뿌리.


〈사진 3〉
바이욘탑 내부 회랑. 자야바르만7세가 코끼리를 타고 전장에 나서는 모습.


〈사진 4〉
바이욘탑 내부 회랑. 승전을 기원하는 제물에 바쳐질 물소의 모습.


〈사진 5〉
바이욘탑 내부 회랑. 참파군을 무찌르는 크메르군의 모습.


글 · 우인보

마하연투어 강력 추천상품

– 대만 불광사 공승법회 5일 8월 16일 출발

– 중국 4대 불산
지장도량 관음도량 6일 6월 28일 출발
보현도량 (아미산) 5일 8월 11일 출발
문수도량 (오대산. 석가장) 5일 8월 20일. 9월 16일 출발
구채구. 황룡 6일 7월 10일 출발
민족의 영산 백두산 5일 7월 3일, 7월 17일, 8월 27일 출발

– 황금불탑의 나라 미얀마
동방의 정원 양곤/바간/달라 5일 7월 16일, 8월 6일, 8월 19일 출발
불탑과 호수 양곤/바간/헤호 6일 7월 9일, 7월 21일, 7월 30일 출발
황 금 불 탑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7월 19일, 8월 30일 출발

– 은둔의 나라 라오스
라오스 비엔티엔/방비엔/루앙프라방 5일 8월 14일 출발

– 세계문화유산 스리랑카
완전일주 스리랑카 8일

– 부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인도
인도 / 네팔 13일 11월 20일, 2월 27일 출발

"미얀마 위빠사나 수행" - 상담문의 (수속대행)

태국 방콕/파타야 5일 요금문의
캄보디아 씨엠립 5일 요금문의
3대불교성지 족자카르타 보로부두르 5일 요금문의
"힐링요가" 여행 인도 5일 요금문의
인도 8대 성지순례 10일 요금문의
네팔 핵심일주 5일 요금문의
스리랑카 핵심 순례 / 인도양의 보석 몰디브 8일 요금문의
북유럽(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스웨덴) 9일 요금문의
동유럽 3개국 9일 (음악회와 왕의 호수 쾨니히) 요금문의
하와이 5일 요금문의



www.mahayeon.com
(주)마하연 투어 ☎ 02)365-7747
대덕 큰스님, 불자님들의 인연 소중이 생각하겠습니다. 대표 : 혜거 두손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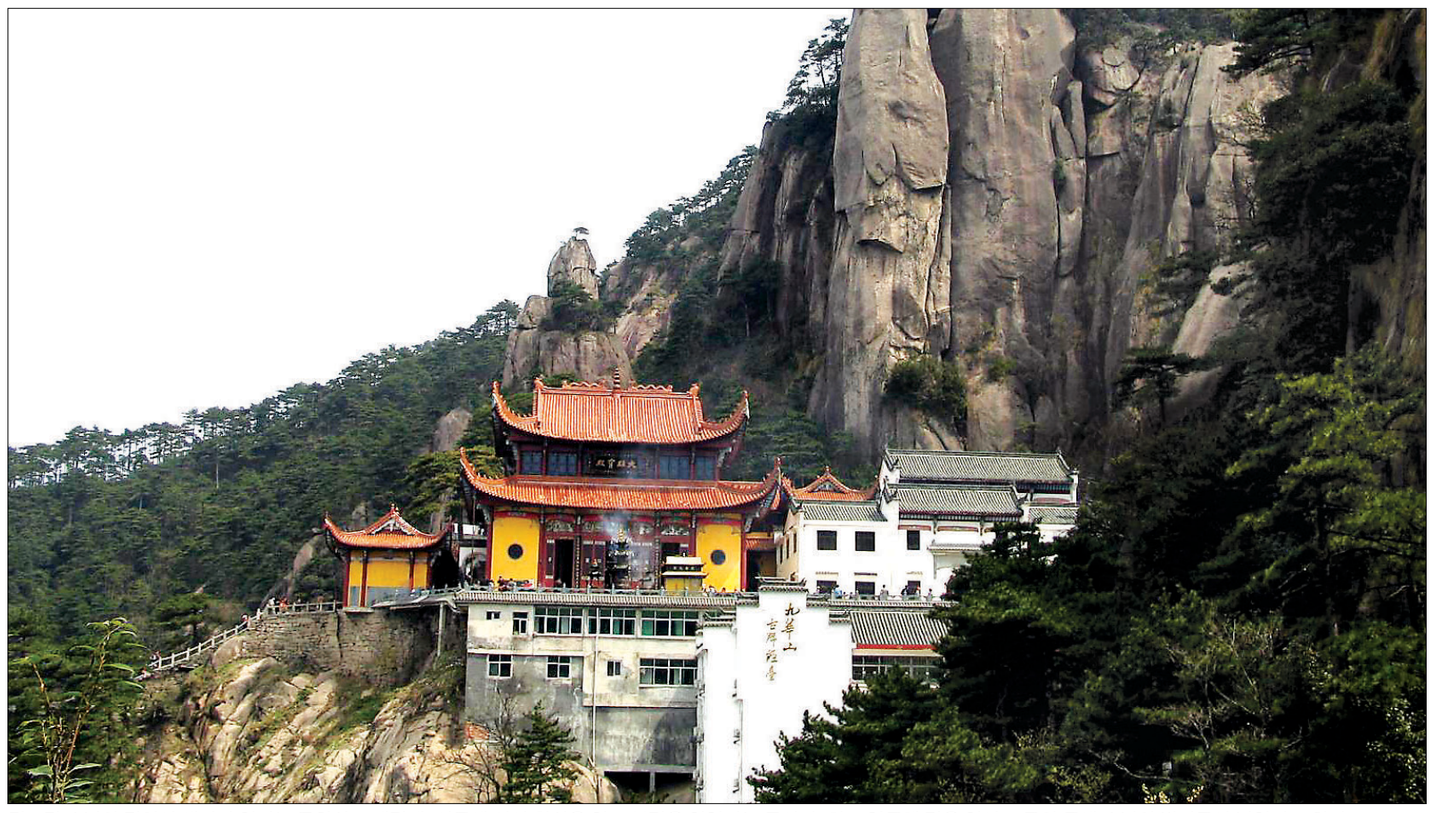
마하연투어 공통사항
① 모든경비 포함 ② 모든 상품 품격 진행
③ 타여행사 비교 필수 ④ 2억원 여행자 보험 가입

한국의 구법승

12. 지장보살된 신라 왕자 김교각 스님

중국, 지장보살 화신으로 지금도 추앙


2007년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에 봉안된 김교각 지장왕보살상.


김교각 스님의 각인이 새겨져 있다는 구화산 고배경대. 이곳에 서서 침식을 잊고 불경을 읽었다는 곳이다. 하도 열중해 경을 읽어 그곳의 돌에 스님의 발자국이 남았다고 한다.

신라왕족 출신 24세 입당
구화산에서 30년 수행정진
높은 덕행으로 신행 이끌어
좌탈입망 후 3년뒤 등신불
남양주 백천사에 기념관 있어


남양주 백천사 지장전. 김교각 스님의 유물은 기념관에 상설 전시돼 있다.

중국에는 4대 불교성지가 있다. 바로 아미산, 오대산, 보타산, 그리고 구화산이다. 그중 구화산은 지장성지로 이름이 높은데 바로 지장왕보살로 불리는 김교각 스님때문이다.

김교각 스님은 신라 성덕왕(698년)의 아들로 당나라 고종 영회 4년 24세에 출가, 흰 개(삽살개) 한 마리를 데리고 중국으로 건너갔다고 전해진다. 입당구법(入唐求法)은 그 당시 신라 스님들 대다수가 서원했던 것으로 스님도 그중 하나였다.

김교각 스님은 '쌀 보내준 은혜에 보답함(酬惠米)'이란 시에서 '비단 옷 납의로 갈아입고/불법을 닦으려 바다 건너 구화산에 이르렀네/나 본래 왕자의 몸으로/수행의 길에서 오용지를 만남이여' 라고 자신이 신라의 왕자임을 스스로 밝혔다.

중국에 건너와 각 지방을 돌며 불법을 구하다 스님은 먼저 오대산에 이르렀다. 그러나 스님이 오대산에 오르자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던지 오대산은 갑자기 기우뚱 하면서 한 자나 꺼져 들어갔다고 전해진다. 이에 오대산이 자기가 머무를 곳이 아님을 안 지장보살 김교각 스님은 다시 사방을 운유하던 중 안휘성 구화산에 이르렀다.

김교각 스님은 구름덮힌 아흔 아홉 봉우리의 구화산 절경에 감복해 산 속으로 들어가 초막을 짓고 수도에 들어갔다. 흐르는 맑은 물과 백토(白土: 먹을 수 있는 흙)로 연명하며 30여년을 수행했다고 한다. 이후 덕 높은 고승이 구화산에 있다는 소문이 퍼져 원근 마을에서 법문을 들으러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 때, 구화산 기슭에 살고 있던 산주(山主)인 민양화의 외아들 도명이란 청년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을 따라 매일 김교각 스님의 가르침을 받고 환희심을 일으킨 도명은 어느 날 부친에게 김교각 스님을 친견할 것을 권하였다.

아들과 함께 김교각 스님을 친견하고 스님의 법문에 깊은 감복을 받은 민양화는 공양을 올리겠다며 자신의 집으로 스님을 초대했다. 공양이 끝나자 민양화는 김교각 스님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라며 시주할 뜻을 내비쳤다. 김교각 스님은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기에는 초막으로서 부족하던 터라 땅을 시주할 것을 요구했다.

김교각 스님은 몸에 걸쳤던 가사를 벗어들고 이 가사로 덮을 만한 땅만 주면 절을 짓고 불법을 더 널리 펴겠다고 했다. 이에 '가사로 덮을 만한 땅이 크면 어느만큼 크랴' 고 생각한 민양화는 그렇게 하자고 했다

그런데 김교각 스님이 가사를 하늘로 뿌리자 가사는 마치 날개가 돋히기라도 한 듯 훨훨 구화산 위로 날아올랐다. 그러더니 차츰 커지면서 나중에는 구화산을 몽땅 덮어버렸다. 이에 놀라 입만 벌리고 있던 민양화는 김교각스님의 높은 덕행에 감탄하고나서 자기가 말한대로 한다고 하면서 구화산을 몽땅 김교각 스님에게 시주했다.

'중생을 제도한 뒤에야 보살과를 이루고, 지옥이 비지 않는 한 결코 성불하지 않는다' (度盡衆生 方證菩提 地獄未空 誓不成佛)는 김교각 스님의 지장대원염원에 감화를 받은 민양화는 이어 사재를 털어 사찰을 짓고 자신과 아들 도명은 제자가 되어 죽을 때까지 보필하기로 원력을 세웠다는 전설이 전해 오고 있다. 이러한 김교각 스님의 덕행은 당 황제의 귀에 까지 들어갔다. 당 황제는 사찰을 더 크게 중수하고 손수 화성사(化城寺)라는 사명을 내렸다.

중국에서는 민양화와 아들 도명을 김교각 스님 등신불의 협시보살로 모셔놓고 그들의 위법구망(爲法軀忘)의 신행심을 기리고 있다.

구화산에는 그에 관한 수많은 일화들이 전해지는데 도당(渡唐)할 때 가져온 신라의 삽살개는 평생 김교각 스님의 수행을 도와 현재 상으로 만들어져 구화산을 지키는 영물로 숭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또 다른 하나는 낭랑탑(娘娘塔)으로 현재 기단만이 남아 있는데 김교각 스님이 신라여인을 위해 세워졌다는 애틋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낭랑탑 기단 위에는 명안천이 있는데, 김교각 스님의 어머니가 신라에서 구화산으로 찾아와 울음을 그치지 않아 눈을 상했는데 김교각 스님이 화성사 앞 우물에서 물을 길어 어머니의 눈을 씻기자 눈이 나았다 한다.

이 우물에 세운 보탑을 후세사람들은 명안천이라고 명명했다. 또한 이성전(二聖殿)은 김교각의 외삼촌으로서 그를 데리러 왔다가 도리어 그에게 감화된 소우(昭佑) 소보(昭保) 스님의 덕을 기리기 위한 곳이다.

이처럼 멀리 신라에서부터 중국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을 교화해오던 김교각 스님은 99세인 794년 제자들을 모아놓고 고별인사를 한 뒤 입적을 하였다.

김교각 스님은 자신의 시신을 석함에 넣고 3년 후에도 썩지 않으면 등신불로 만들라는 유언을 남겼다. 열반에 들 때가 온 것을 안 김교각 스님은 어느 날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 앉아 염불을 하며 조용히 좌탈입망(座脫入忘)을 했다.

〈당 고승전〉을 보면 김교각 스님이 입적을 하자 산이 울리고 돌이 굴러 떨어졌으며 대지에 신광이 번쩍이고 뭇 새들이 구슬피 울었으며 화성사의 종은 아무리 쳐도 종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한다. 김교각 스님 입적 후 3년 뒤 제자들이 항아리 뚜껑을 열어 보니 김교각 스님은 생전 그대로의 모습이었고 근골을 건드리자 쇠사슬 소리가 났다.

불경에 나오는 지장보살에 관한 내용과 같은 현상이므로 그 때서야 김교각 스님을 지장보살 화현으로 여긴 화성사 스님들은 스님의 몸에 금분을 입혀 등신불로 육신보전탑에 모시고 깊이 숭앙하게 되었다. 명 · 청대에는 구화산에 사찰이 360여 곳, 승려가 5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스님의 등신불은 현재 주화산(구화산) 육신보탑(月身寶塔)에 모셔져 있으며 화성사는 구화산 역사박물관을 겸하고 있다. 박물관에는 스님의 일대기를 담은 그림을 벽화로 전하고 있다.

김교각 스님의 행적은 813년 동시대 지주시(池州市) 청양현 사람인 비관경(費冠卿)이 스님의 입적 후 19년 뒤에 쓴 주화산 화성사기(九華山 化城寺記)와 이용(李庸)이 편찬한 주화산지(九華山志) 등에 기록돼 있다. 김교각 스님은 신라 어느 왕의 자손이라는 기록은 없으나 비관경의 기록에 있는 출생 연대 및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유추해보면 스님은 서기 697년 신라 32대 효소왕 4년 서라벌 궁궐에서 태어난 김중경(重慶), 부친은 후에 제33대 성덕왕이 된 신문왕의 둘째아들 흥광대군 효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지금도 김교각 스님을 김지장(金地藏)으로 존칭하며 해마다 김교각 스님이 입적한(음 7월 30일) 기일을 택해 한 달간 추모제를 열고 있다. 현재 구화산에는 94곳의 사찰과 1만 여기의 불상이 있다. 그리고 700여 스님들이 수행하며 지장성지로서 김교각 스님의 지장보살 대비원을 실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백천사 주지 무구 스님이 김교각 스님 탄신 1300년인 1997년 서울민속박물관과 전국에서 대규모 순회 전시회를 열었으며 구화산 화성사와의 교류로 남양주 백천사에 연건평 140평의 기념관을 건립했다.

이 곳에는 스님이 생존 당시 쓴 경전과 목탁을 비롯해 남긴 유묵과 족적, 신발, 모자 등 2백여 점이 전시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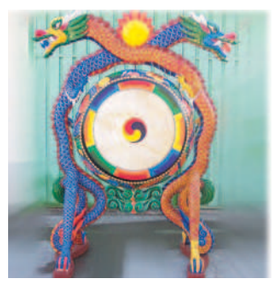
이런 교류를 이어가 한국와 중국 불교계는 한중수교 15주년인 2007년을 기념해 김교각 스님 입상을 좌대와 불신, 광배를 포함 2.5m 규모로 제작해 한국에 봉안했다.

2007년 11월 구화산 육신보탑(月身寶塔)에서 '김교각 지장보살 한국봉안' 을 위한 중국정부의 공송(恭送)법회가 봉행됐으며 서울 봉은사에서 한중합동법회를 열고 고불식을 가졌다. 이어 김교각 스님의 고향인 경주의 동국대 캠퍼스 정각원에 모셔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참말로 나는 허공중에 있구나

법 신 ①

이 대목이 뭣이냐 하면 여래, 여래님, 부처님, 좀 더 나아가서 우리. 인간이란 자체가 뭣이냐 부처란 자체가 뭣이냐 여래님이란 자체가 뭣이냐 이겁니다. 무엇을 여래라 하느냐 방편적으로 말씀한 건데, 여래는 만약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고 앉는 것도 없고 눕는 것도 없다 이 대목이 거든요. 실로 알고 보면 우리의 몸뚱어리도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앉는 것도 없고 눕는 것도 없는 거라요.

왜 그렇노? 내가 이 몸이 집에서 설법들으러 오고 또 설법을 들으면 가고 이런 건데 왜 없느냐 이런 말이 되겠는데, 가고 왔다는 것은 물 위에 뜬 거품 한가지로 갔다 왔다 이래 하는 것이지 실로 거품인 그 물 자체, 그 자체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요 대목까지 우리가 이걸 납득을 하려면 상당한 설법 시간이 있어야 되요. 그래야 그 때는 과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참말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중간에 갑자기 들어놓으면 꼭 거짓말 같다 말이죠. 허황된 말만 같아. 뻔히 가고 오고 하는데 왜 없느냐 이것이거든.

그러니까 제일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몸뚱어리는 실로 있어도 이것이 무정물이다. 무정물인 동시에 자꾸 변하는 거다 이거부터 머리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가서는 진짜 나. 눈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보는 그놈,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는 그놈,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하는 그놈, 말을 시키는 그놈, 이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이걸 알아야 되요.

실은 그것인데 그걸 다 여러분들이 모를 따름입니다. 전부 모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을 끄집고 다니는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그러나 이 헛것은 물거품처럼 헛것을 나투어서 사람의 몸이다 사람의 몸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앉는 것도 없고 눕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이해가 안 가요. 또 부처님은 설혹 그렇다 하기로니 우리는 더욱 이해가 안가. 내가 아침에 여기서 저기까지 갔는데 부엌에도 가고 사랑에도 가고 마당에도 나가고 이리 했는데 왜 가고 오는 것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이해가 통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자리는 뭣을 뜻하는 거냐 하면 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이적으로. 그런데 이적인 그 자리는 우리의 법신, 이거는 색신인데 우리의 법신 그 자리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다 말이지.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라. 그러하니 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눈이라는 기관을 빌려서 보기는 해. 귀라는 기관을 통해서 듣기는 해. 입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말하기는 한다 할지라도 이거 전부 다 거짓놀음이거든요. 그걸 갖다 확실히 딱 알아버리면은 이것이 납득이 딱 가는 겁니다.

그러하니 부처님께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해 놓은 건데 이거 벌써 며칠입니까? 사흘인가 나흘째인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말해서 뚝딱하고 집어 넘겨버렸으면 그만이겠는데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이리 잔소리를 하

> **우리의 몸뚱어리는**
> **가는 것도, 오는 것도 없고**
> **앉는 것도, 눕는 것도 없다**
>
> **법신자리는 죽는 것 아니다**
> **이 도리만 알면**
> **헛것인 이 인생을 굴리는데**
> **참말로 자신이 생긴다**

는 건데 그러면 결국 말이죠. 우리가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어. 앉는 것도 없고 눕는 것도 없어. 그 자리를 우리는 캐내려는 거여. 그러면 그 자리가 다른데 있느냐 하면 다른 데 또 있는 것도 아니네. 바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 그러하니 가는 것이 없으니 죽는 것도 없어. 오는 것이 없으니 나는 것이 없어. 여러분이 지금 났기 때문에 색신이란 걸, 어머니의 뱃속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색신을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낳아도 난 것이 아니라는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통 지혜가 날카로운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나도 나는 듯한 것이고 가도 가는 듯한 것이로구나. 다시 말해서 죽는 걸 간다 이래 본다면은 죽는 듯한 것이지 참말로 죽음이 아니구나. 왜 그러냐. 나는 듯한 것은 색신, 이것은 인연에 따라서 이 색신을 나투었다 뿐이지 참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데 나긴 뭘 나요? 날 것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이 대목이 대단히 어려워요. 물론 또 여러분들 슬기가 날카로운 분들은 아 그렇구나 이걸 깨닫지만 어머니 뱃속에서 났어. 그래서 나이도 먹어. 늙어 가. 이런데 난 것이 없다 하니 말이지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하면 또 근사하게 맞거든요. 맞지만은 사실은 나도 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뚱이를 굴리는, 여러분의 몸뚱이를 쓰는 그 자리, 날 건 어디 있으며 안 날 건 어디 있나요?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그 슬기자리. 이거 좀 어려운 대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헛것이 나서 꽃이 피듯이, 헛것이 나서 헛 물거품이 나서 일로절로 돌아다니다가 물거품이 사그라지는 거와 마찬가지로 실로 여러분의 몸뚱이가 세상에 났다고 가정할지라도 무엇이 났다 말입니까? 그것이 전부 실답지 않은 헛몸이 난 거라. 그러면 여러분이 늙어서 죽는다 합시다.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그건 헛것이 사그라지는 것이지. 참말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법신자리가 죽는 것은 아니거든요.

참말로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은, 이 도리만 알면 인생을 굴리는데, 헛것인 이 인생을 굴리는데 참말로 자신이 생깁니다. 자신도 생기고 재미도 있고 이래요. 늙으면 늙은 대로 재미가 있고 젊으면 젊은 대로 재미가 있고 남자는 남자대로 재미가 있고. 전부 헛것이거든요. 여자는 여자대로 재미가 있어.

그러나 그만 헛거, 이거를 갖다가, 변하고 가는 거 헛거, 이거를 내라 이래 해버리면은 아이고 나는 늙는다 아이고 나는 남자 몸이로구나 아이고 나는 여자 몸이로구나 나는 어떻고 어떻고 어떻고 이 야단이 나. 하하하. 그러나 참말로 사람이란 건 어머니 뱃속에서 뚝 떨어져도 나도 나는 것이 아니다. 그 법신자리는 날 것이 없어. 그러나 색신을 갖다가 거품처럼 나투었어. 이 도리를 알아. 죽을 때도 내가 헛거 무정물인 이거, 우리의 몸뚱어리는 무정물이거든요. 그러하니 무정물인 이것이 없어졌다 할 뿐이지 죽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내란 참말로 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참말로 내, 이것은 말이지 그만 허공중에 우뚝하니 그대로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보세요. 어째 재미가 안 나겠는가. 참말로 재미가 나.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일체중생과 함께 '수희공덕' 해야 보살

⑤ 수희공덕(隨喜功德)

南無至心歸命禮西方阿彌陀佛佛(一拜)
六方如來舒舌證 專稱名號至西方
到彼華開聞妙法 十地願行自然彰
十方一切諸衆生 二乘有學及無學
一切如來與菩薩 所有功德皆隨喜
願共諸衆生往生安樂國

참회와 반성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남의 덕의 좋은 것을 잘 알게 된다. 그 덕을 알아보고, 이를 기뻐하고, 나는 아직 못 할망정 그는 위대한 덕행(德行)을 닦는다, 얼마나 거룩한 일이냐, 하는 것을 수희공덕(隨喜功德)이라고 한다.

수희(隨喜)는 남의 좋은 일, 착한 일을 보고 기뻐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편이냐 하면, 남의 잘 하는 일을 보고 별로 기뻐해 본 적이 없다. 우리가 깊이 자기 반성을 하여 스스로 부족한 것을 깨닫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를 보충해야 되겠다. 지금부터는 다른 생활을 해 나아가야 되겠다.

남의 덕행을 더불어 좋아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자기에게 있었던 본능적인 질투심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시기하고 남의 일을 괜히 좋아할 필요는 없다고 야릇한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 질투심이란 동물의 야욕과 야수의 발로로서 자연스런 본능이다. 우리는 이 질투심이라는 본능을 망상(妄想)이라고 단정한다. 우리는 이런 망상에 포로가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질투의 아성을 무너뜨리고 활짝 열어 젖힌 공정(公正)한 빈터에 다른 사람의 위대한 덕행이 온전한 모습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이를 반가이 맞이하고 기뻐한다. 이런 것이 또한 위대한 일이다.

어느 민족이건 개인이건 할 것 없이 누가 인류의 대 사회(大社會) 건설이라는 우리의 목표에 알맞는 좋은 일을 하였다고 할 것 같으면 비록 그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를 자기 일인양 기뻐하고 환영해야 한다.

복지국가(福祉國家)라고 하고, 건전한 사회, 행복한 가정이란 것은 개인 상호간에나 사회의 각계 각층에 걸쳐 수희(隨喜)가 있어야 되며, 수희공덕하는 사회와 가정과 국가라는 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며, 이리하여 우리가 과연 수희공덕하는 복지국가를 이룩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의 국위라는 것이 바로 서고 우리는 세계 만방 앞에 나아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어느 경우에나 누가 어떤 좋은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나는 어떤 좋은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반성하고 나는 비록 그런 일을 지금은 못 할망정 어떤 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으니 그를 따라 더불어 기뻐한다. 기뻐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공명하는 것을 물론 이르는 것이지만, 더 실질적으로 말하여 물질로나, 자기의 노력으로나 정신적인 공명도에 맞추어 그를 위해 협력해 주고 좋은 공덕을 성취하도록 한데 어울려 합세해 주는 것이라야 된다. 누구를 막론하고 국민사회에서든 혹은 국제사회에 있어서나 어떤 사람이 잘하는 일이 있으면 이를 발견하여 협력을 아끼지 말 것이며, 물 불을 가리지 않고 뒤를 받들어 주어야만 참다운 수희공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남의 좋은 일 착한 일 보고**
> **기뻐하는 것이 수희공덕**
>
> **질투심이란 동물의 야욕과**
> **야수의 발로로 자연스런 본능**
> **허나 이는 망상과 다르지 않다**
>
> **공명 · 협력, 공덕을 수희해야**
> **복지구가로 인류평화에 기여**

내가 성공해야 된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은 캐어보면 자기의 아상아집(我相我執)에 지나지 않으며 자기가 한 일의 공로에 집착하는 더러운 망상밖에 안 된다. 누가 한 일이든 간에 좋은 일이면 찬동해야 한다. '육방(六方)의 여래가 서설증(舒舌證)을 한다' 는 대목으로 시작하는데 이에는 좀 얘기가 있어야겠다.

아미타불께서 '우리는 보은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대자대비와 사랑의 빛을 전 인류에게 주어야겠다. 전 인류는 사랑의 빛속에서 살아야 한다. 대사회의 생명을 우리는 더불어 향유하고 또 이를 건설해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동서남북, 상하의 육방에서 모든 여래가, 그러니까 구세주와 같은, 인류의 지도자로서의 의식이 뚜렷이 선, 그러한 어른들이 서설증(舒舌證)으로써 증명을 한다.

아미타불의 말씀이 옳다는 것, 아미타불이 그와 같이 공덕을 일일이 들어 말씀하는 것이 조금도 틀리지 않고 이상하지 않다는 것을 육방 여래가 모두 혀를 내닿고 증거를 댄다. 이것은 아미타불의 말씀에 대하여 부처님들이 수희하고 찬탄하는 것이다.

아미타불의 말씀은 내가 말하고자 하던 바와 같다고 증명을 섰는데 그것은 '오로지 명호 (名號)를 부르기만 하면 서방에 이른다' 는 것이다. 아미타불만이 자꾸 뇌고 있으면 틀림없이 극락세계로 가게 된다. '저기 꽃이 피는 데에 이르러 묘법(妙法)을 듣는다」. 극락세계에서 무릇 훌륭한 스승과 벗들과 진리삼매(眞理三昧)에 노닐 수 있고「자타(自他)가 더불어 있는 십지(十地)의 원과 덕행이 스스로 나타난다.'

이 십지에서는 자기와 남의 구별이 없어지고, 온갖 사람이 다 제가끔의 가진 바 덕성과, 개성을 자연스럽게 나타내어 즐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아미타불을 뇌면 극락세계로 가고, 극락세계에 가면 이와같은 십지에 이르러 자타를 함께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

'모든 중생과 성문승(聲聞乘) 과 연각승(緣覺乘) 과 학생과 학자' 와 이승(二乘)은 성문승과 연각승인데 이를테면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자기 공부만 하면 그만이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학(有學)은 배울 것이 있는 사람들, 즉 학생, 무학(無學)은 배울 것을 다 배워 이제는 배울 것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학자(學者), 박사(博士)하는 따위의 사람들.

'그밖에 모든 여래와 보살들이 모두 다 가진 바 공덕(功德)을 서로 수희한다.' 보살(菩薩)은 여래의 뒤를 이어나갈 위대한 성자(聖者). 우리는 이와 같은 바의 수희공덕하는 생활을 통해 자타를 가리지 않는, 일체 중생과 더불어 유익 할 수 있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러 대사회 건설의 보람찬 사업을 이룩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刊)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생전 예수재 기도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

생전 예수재는 살아 있을때 사후(죽은 뒤)를 위하여 공덕을 쌓아서 지옥고를 받지 않고, 극락왕생하도록 법의 공덕을 저축하는 의식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전예수재가 사후의 극락도 보장하지만, 살아있을때, 전생의 빚을 갚는 의식을 겸한 재로써, 이 재를 지내면 그시점부터, 단계적으로 빚을 갚아 나가게 되므로 살아있는 동안에 빚을 갚은 만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기도로써 업장소멸이 거의다, 이루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전생의 빚을, 단계적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 생전예수재 기도 방법과 방편을 마련하였습니다. (사진과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성스러운 방편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이제 생전예수재 기도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자님들께 드릴 생전예수재 기도의 중요성 책자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기도신청방법

생전예수재 기도 책자를 받으셔서 읽어보시고, 본회를 방문하시거나 전화로 기도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생전예수재 기도의 성취효과는 매우 크며,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써넣고, 기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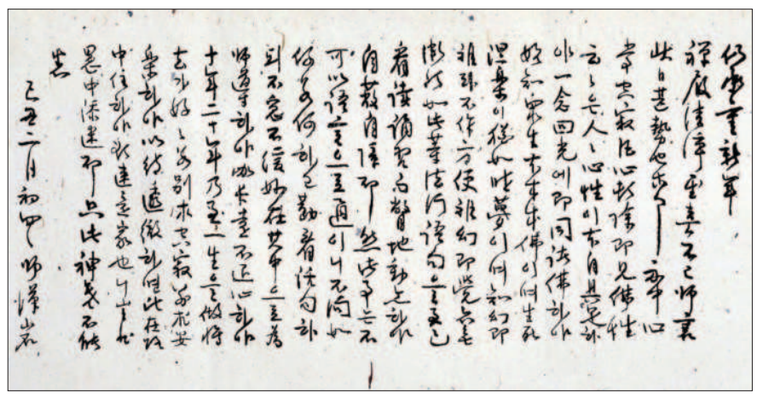
불자님들께서 다른 좋은 기도도 많이 있지만,
이번에 한번 해 보실 만한 기도로써, 생전예수재 기도를 권해드립니다.
그동한 살아왔던 삶이 괴로우셨다면 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요.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한암(漢岩) 선사의 편지 〈10〉

깨달음, 이러쿵 저러쿵 따지지 말고…



오해련 스님에게 보낸 답서(1)

보낸 편지는 잘 받았네. 새해에 법체가 청정하다고 하니, 기쁘기 그지없네. 나는 날이 갈수록 노쇠해 가고 있네. 늙으면 다 그런 것이니 이것을 어찌하겠는가?

그대의 편지에서 "마음은 항상 공적(空寂)하니 범부의 마음을 몰록 제거하면 곧 불성을 본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어왔는데, 그 말은 사람마다 심성(心性)이 본래부터 갖추어져 있어서 한 생각(망념)을 돌리면 곧 모두 부처와 같은 것이며, 그런 사실을 알게 되면 비로소 중생이 본래 부처이며 생사열반이 마치 지난 밤 꿈과 같음을 알게 되는 것이네.

그리고 환(幻)인 줄 알면 곧 집착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방편을 쓸 필요가 없으며, 환(幻)으로부터 벗어나면 곧 깨닫게 되기 때문에 점차(漸次, 漸修)가 없는 것이네. 이와 같은 법문은 자네도 이미 많이 보았고 알고 있을 터인데, 지금 문득 망념을 일으켜서 스스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또 스스로 장애를 일으켜서야 되겠는가?

그러나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 일은 언어로 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네. 그러므로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고 부지런히 활구(活句)를 참구하되 너무 급하게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느리게도 하지 않는다면 묘미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스승을 삼아서 오래토록 불퇴심을 지켜서 10년, 20년 또는 일평생 공부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세.

만일 별도로 공적(空寂)함을 구하고 별도로 안락함을 구하여 투철해질 것을 기다린다면, 이것은 마치 길 한 가운데(망상 속에) 있으면서 속히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깨닫고자 하는 것)과 같으니, 어찌 어리석음 속에 미혹함을 더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만 줄이네. 정신이 흐려서 다 쓰지 못하네.

기축(1949년) 2월 초4일
사(師) 한암

이 편지는 한암선사가 열반(1951년)하기 2년 전인 1949년에 오해련(吳海蓮)스님에게 답한 편지이다. 오해련스님은 1950년대 통도사 강주를 역임한 분으로 한암선사를 매우 존경했다. 오해련스님의 기억력은 매우 탁월해서 강원의 학인들이 "스님, 이것이 무슨 글자입니까" 하고 물으면 "아, 그 글자는 화엄경 몇 권 몇째 줄에 있다"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리고 화엄경을 '척' 열면 바로 그 글자가 있는 페이지를 보여 주었다고 하니, 가히 천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이 편지의 내용은 오해련스님이 "마음은 항상 공적하여 무릇 마음을 몰록 제거하면 곧 불성을 본다."고 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물은 듯하다. 여기에 대하여 한암선사는 "사람마다 본래 심성, 즉 본성을 갖추고 있어서 한 생각을 돌리면, 곧 모두 부처와 같고, 비로소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말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쿵저러쿵 따지지 말고 부지런히 활구(活句)를 참구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활구를 참구할 때는 너무 급하게도, 또 느리게도 하지 않는다면 화두 참구의 묘미(妙味)가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니, 그것으로 스승을 삼아서 오래토록 공부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만일 별도로 공적(空寂)함을 구하고 별도로 안락함을 구하여 투철해질 것을 기다린다면, 이것은 마치 길 한 가운데 즉 망상 속에 있으면서 속히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깨닫고자 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신다.

이 서간은 몇 년 전에 통도사에서 오혜련 스님이 소장하고 있던 책들을 중앙승가대학에 기증했는데, 그 속에서 발견되었다. 원본은 중앙승가대학 도서관에 있고, 월정사에는 복사본이 있다.



윤창화(도서출판 민족사 대표)

어르신 위한 자비의 공양간, 전철역 무료급식 보시행 13년

우신 스님 (혜일암 주지)

10살의 소녀가 매장의 현장을 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죽음은 무섭다.' 라는 아무도 모를 고민을 안고 두 어 해를 지내는데 집안의 장남이던 큰 오빠의 죽음이 다시 12살의 어린 소녀를 덮쳤다. 공포였고, 흉기와도 같았다.

소녀는 교회에 빠져들었다. 12살의 소녀가 중학교 3학년이 될 때까지 적어도 5년을 매일같이 스스로가 '죄인' 인줄 알고 살아야 했다. 그러나 돌이켜봐도 지은 죄는 없었다. 그뿐인가. 예배일마다 헌금을 내야 하는 제도 속에 또래의 어린 것들 가슴에는 상처가 나기 시작했다. 빈손으로 자신 앞에 온 헌금함을 되돌리는 것은 너무도 큰 숙제였고 날마다 '죄인' 이라는 말에 더는 교회를 다니는 일이 싫어졌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여고생이 새롭게 발견한 것은 불교서클인 달마회였다. 3년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불교학생회 활동을 했고 불교의 가르침만한 공부가 없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게 되었다. 너무도 신명나는 공부였고 무엇에도 비할 바 없는 세상을 만난 것이다.

죽음 화두로 출가… 세상에 회향

법랍 40년, 세수 61세로 환갑을 맞은 우신 스님이 여전히 즐거운 것은 불법의 정중앙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과 추호도 변함없는 자세로 출가사문의 길을 걷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곧이곧대로 살아온 삶의 궤적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우신 스님은 출가해 지금껏 유연한 삶의 운영자였고 당당한 이 땅의 비구니 승려였다.

우신 스님은 네 살 때 부친을 여의었다. 철도 공무원이었던 아버지의 별세는 슬픈 일이 분명했으나 남은 가족들은 아버지의 목숨과 맞바꾼 보상으로 비교적 편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럼에도 약관의 나이를 먹은 딸은 출가 대신 그 무엇도 기대해 본 적이 없었고 어머니와 형제들의 반대에도 불구, 출가를 감행하게 된다. 그것이 1974년의 일이다.

이후 스님은 운문사 승가대학을 다녔고, 선방의 수좌로도 살았다. 출가승의 초심에서 벗어나는 일은 단 한 번도 꿈꾸지 않았으며 그저 누더기 한 벌에 검은 고무신 한 켤레면 된다는 생각으로 여여한 사문의 길을 걷고만 싶었다.

그러나 인연의 소치였던 것일까. '토굴 하나면 그만이지' 하는 마음으로 살던 1989년 어느 날, 지금의 혜일암과 인연이 닿은 것이다.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 맞은편 아담한 마을에 작은 포교당을 여는데 여천 무비 스님이 '혜일암' 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다.

출가하여 염불, 참선, 간경 등 많은 수행법을 두루 해온 스님에게 기도만큼 정확한 것은 없었다. 그러던 2002년 우신 스님은 기도만큼 급한 일이 있음을 알게 된다. 바로 어르신들을 위한 보시행이었다. 사회는 고령화로 치닫는데 그들을 위한 복지가 너무도 소홀하다는 거였다. 독거 어르신을 포함해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을 알고 스님은 구서동 전철역에 무료급식소

죽음을 화두로 고민하던 소녀
고교 시절 달마회 활동하며
불법 만나 졸업 후 출가

1989년 포교당 혜일암 개원
노인복지 열악한 현실 안타까워
2002년 구서동 전철역에
어르신 위한 무료급식 시작
메뉴 연구 거듭하며
매주 600명에게 급식 공양

라는 소위 '야전법당' 을 개원하게 된다. 손수 농사를 지어 찬을 만들고 국을 끓이고 밥을 지어 점심을 대접했다. 250여 노인들을 위한 성찬이 매주 화, 수요일에 마련되었는데 끼니때를 맞춰 나오는 어르신들의 숫자는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입소문은 그야말로 천리로 번져나갔다.

꼬박 3년을 직접 기른 채소들을 가지고 찬을 만들어 공양을 지어 드렸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어르신들의 반응은 '찬이 질기다' 고 했다. 무엇이든 무공해를 고집했고 티끌만큼의 조미료는 더더욱 가미하지 않은 천연 먹거리를 제공했으나 돌아온 것은 결국 맛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얘기였다.

이왕이면 어르신들의 기호에 부응하자는 뜻에서 화 · 수요일 아침마다 몸소 장을 봤다. 갖은 채소를 구입했고, 거기에 어르신들이 목말라하는 육류, 생선류를 첨가했다. 그렇게 급식을 하기 시작하자 식사평이 바뀌었다. 굉장히 흐뭇해하며 잘 먹었다는 말이 그치지를 않았다. 끼니를 제때 들지 못한 어르신들이 즐겨 찾는 음식은 고기가 섞인 식단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우신 스님은 3년 만에 식단에서의 해답을 찾았고 그로부터 10년이라는 시간동안 우천시를 제외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어김없이 무료급식소를 지켰다. 급식소의 명성이 자자해지자 자원봉사자의 숫자도 비례해 늘어났다. 봉사활동에는 회장 김성연 불자를 위시하여 30여 명이 일사분란하게 급식에 가담한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급식소를 찾는 어르신 역시 많을 때는 800명을 훌쩍 넘었다. 평소에는 600명이 점심식사를 위해 급식소를 찾는다고 한다.

일종식 수행하며 보시바라밀 실천

스님의 평소 성정은 여유롭다. 발 앞에 불이 떨어진다 하여도 여유를 찾는 스님이지만 급식소에서만큼은 '호랑이' 로 변한다. 이유인즉, 어르신들을 위한 정성어린 공양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뒤처지거나 대충이라는 식의 배식은 용납지 않는다는 얘기였다. 모름지기 기도와 수행에 버금가는 일이 스님에게는 어르신들의 급식이라는 거였다.

하루 세 시간 잠을 잘 만큼 스님은 선천적으로 잠이 없는 편이다. 유년시절부터 이어온 아주 오래된 습이다. 그 덕분에 스님은 수마를 겪어본 기억이 없으며 그런 만큼 기도에는 둘째 가는 법이 없다고 한다. 기도, 신도들과의 상담, 어르신들의 급식이라는 커다란 틀에서 크게 벗어나는 일이 없다.

그러나 여일한 삶의 스님에게도 잠시의 충전은 필요했다. 2011년 한 후배스님의 제안으로 인도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스님은 자연스럽게 무문관에 들어가게 되었다. 두 달 동안 일종식을 하며 무문관 수행에 드는데 날이면 날마다 수행으로 익어가는 내면의 모습을 보았고 그 환희심은 상향곡선을 그리며 마치 극락세계로의 안내인 듯 했다. 그날의 수행이 얼마나 간절했으면 스님은 날마다의 환희법열을 몸으로, 가슴으로 확인했고 그것은 기록으로도 남아 단단히 살아가는 스님의 보시발판을 만들어주었다.

바로 그 이후부터 스님은 지금껏 일종식을 하고 있다. 이제 3년이 되었는데 일종식이라고 하여 허기감을 느끼지도 않으며 수행에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급식을 하거나 대중공양 길에 나서는 날에도 기운은 더 없이 청량하여 무엇을 해도 걸림이 없다는 소회였다.

무엇에 걸리겠으랴. 선행으로 무르익으니 더할 나위 없을 터며 기도로 일관하니 복덕은 구족해질 터다. 더욱이 급함이 없고 여유로운 성정까지 가세를 하니 어르신들의 급식을 위한 원은 멈춤이 없을 것이다.

우신 스님의 급식 얘기는 단순 어르신들의 봉양 얘기에 그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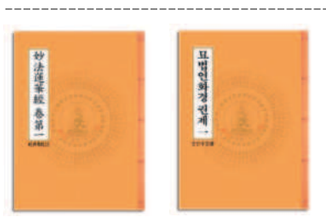
우신 스님은 매주 2회 600여 어르신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 왼쪽이 우신 스님, 오른쪽이 급식을 기다리는 어르신들.

※ 경전사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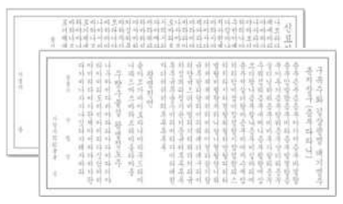


1호 반야심경(한문) 2호 금강경(한문) 3호 반야심경(한글) 4호 금강경(한글)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 내 지 : 70장 자연색메트지 • 표 지 : 레자크지 옵셋 4°
• 제 본 : 한장본 실제본 • 크 기 : 220㎜×310㎜



11호~17호 법화경(한문)1~7
할인가 4,200원(50권 이상)
정 가 6,000원(1권)
19호~25호 법화경(한글)1~7
할인가 3,500원(50권 이상)
정 가 5,000원(1권)



신묘장구대다리 / 츰부다라니
할인가 150원(500장 이상)
정 가 200원
• 구 성 : 한지낱장
• 크 기 : 636㎜×313㎜

※ 여러종류의 사경책 · 사경지가 있으니 전화문의 바랍니다!!

※ 금지 관음도 액자 ※



문수보살 보현보살 양류보살 월광보살 유리보살 일광보살

금지 관음도 액자 6종
할인가 20,000원 (10점이상) 정 가 30,000원
• 포 장 : 골판지 • 크 기 : 38㎝×58㎝

양초 할인판매!!

고급 국내산 양초 "무료배송"



밀 대 (70개입) @90,000원 (2BOX이상)
돈타레 (40개입) @90,000원 (2BOX이상)
원기둥 (20개입) @90,000원 (2BOX이상)



영가옷 B형-남 정가 1,300원 영가옷 B형-여
할인가 1,000 (100벌 이상)



영가옷 D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 D형-여
할인가 800 (100벌 이상)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할인가 700 (100벌 이상)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할인가 800 (200개 이상)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할인가 160 (600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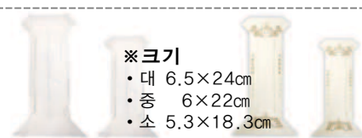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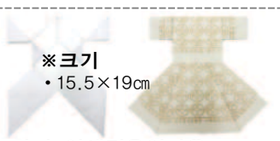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 가 1,600원



한지접은 위패(대/중/소)/인쇄접은 위패(대/소)
※크기
• 대 6.5×24㎝
• 중 6×22㎝
• 소 5.3×18.3㎝
정 가 30,000원 / 30,000원 (100개)
할인가 @250원 / @250원 (1000개이상)



한지 · 인쇄접은영가옷(남/여)
※크기
• 15.5×19㎝
정 가 27,000원 (100벌)
할인가 @240원(1000벌이상)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대량주문시 전화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



우신 스님은 … 1954년 충남 태생으로 1974년 청도 운문사에서 출가 1976년 송광사 구산 스님으로부터 구족계를 수지했다. 1977년 운문사 승가대학 입학, 1980년 제방 선원서 6안거 성만, 1989년 혜일암 주지로 부임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부산 구서동 전철역서 무료급식소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을 공양하고 있다.

"가방 크다고 꼭 공부 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절 크다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것도 아니구요. 선방 수좌로 살던 시절, 어른 스님들께서 들려주시던 말씀들이 지금도 경책이 되고 있어요. '승가는 인천의 사표가 되어야 한다.' 라며 자비가 철철 넘쳐나는 승가로 중생을 이끌어줘야 한다는 말씀을요."

그랬을 터다. 스님은 자신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했다.

"스님이 되어 잘 산다는 것이 뭐예요? 계율에 철저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위배됨 없이 당당하게 사는 거 아닌가요. 난 남들에게는 거절을 못하는 성품이에요. 근데 스스로에게는 아주 혹독하죠. 모르긴 해도 그 혹독함과 철저함이 수행을 하게 했고, 급식을 이어가게 만들지 않았나 합니다. 또한 일찍이 작고하신 아버님의 빈자리와 효를 다하지 못하고 여생을 마감하신 어머님에 대한 죄스러움이 여러 어르신들을 봉양해 드리는 일로 연을 짓고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쯤 되니 복덕을 구족해야 무엇이든 가능해진다고 일러주신 선지식의 말씀이 떠올랐다. 급식을 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을 듯해 여쭤봤다.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가장 절실한 것은 공간적인 부분이지요. 노천에서 급식이 이루어지니 비가 오는 날이면 급식이 안돼요. 그 부분이 해결되면 사시사철 어르신들 끼니를 해 드릴 수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급식에 임하니 부족하긴 해도 그때 그때 필요한 만큼의 후원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여유로운 정도는 아니지만 봉사자들의 보시와 저의 노력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여일한 기도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절로 되는 일은 없거든요."

우신 스님의 얘기가 끝나기 무섭게 전화 한통이 걸려온다. 누군가 스님의 급식에 마음을 보태고 싶다며 떡국을 보내겠노라는 전화였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로 오늘 하루 급식을 중단했기에 객(기자)에게도 스님과의 한담 기회가 주어진 셈인데 끊임없이 울려대는 유, 무선 전화기에 대고 스님은 연신 답변을 해야 했다. "네에, 오늘 급식 없어요. 내일은 하구요" 라며 콧등을 찌푸리고는 안타까움을 표하는 스님이다.

"보세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들의 급식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진 것 없으신 분, 혼자 사는 분,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분들 그렇게 세 부류의 어르신들이 급식소를 찾습니다. 그러니 비라도 오면 마음이 아주 편치 않아요. 다들 어디 가서 점심 드실까 하구요."

우신 스님의 진한 자비심이 느껴지는 대목이었다. 아울러 스님은 젊은 세대들을 위한 따끔한 말씀도 들려 줬다.

"사람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그 평등한 사람들 중에는 내가 잘 하는 것을 남이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숱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잘 하는 것을 찾아내어 그것을 향해 부지런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 노력에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러면 복도 절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게으르면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일에서든 '주인' 의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주어지는 만큼만, 시키는 만큼만 한다면 영원히 종사자로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일념으로 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경책이었다. 불교인으로 살아가며 어렵지 않게 듣는 말 중 하나가 '상구보리 하화중생' 일 것이다. 스님 역시 하화중생의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었다. 너나 없이 속고 있는데 그 업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우신 스님의 말이다. 그런 스님을 찾아오는 반연의 스님들도 적지 않다. 격려와 후원을 위해 어쩌다 귀한 걸음 해주시는 스님 중에는 앉은 자리에서 보시행을 치하하는 시를 한수 지어 걸어주는가 하면, 물품 후원도 아낌없이 이뤄져 스님을 힘나게 해준다.

그런 스님에게 물었다. "스님, 봉양하는 세대에서 봉양받는 세대가 되실 텐데요, 그때도 스님은 이 급식소를 이어나갈 생각이신가요?"

"저희 혜일암은 여느 절의 법당처럼 큰 법당도 아니고, 여느 도량처럼 여법한 형태의 모습도 아닙니다. 단지 무료급식이라는 특별한 이름표를 하나 더 갖고 있지요. 여일하게 혜일암의 급식을 이어나가 줄 누군가가 있다면 설혹 나 하나 봉양을 받지 않는다 해도 상관없어요. 몸 하나 들일 토굴생활로도 난 거뜬히 행복할 테니까요."

한담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스님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했다. 긍정성이 다분하고 즐거움이 일상이기도 하겠으나 스님은 예순 한 살 환갑을 맞아 인연 닿는 선방마다 대중공양을 하고 돌아왔다고 했다. 스스로를 위한 일에는 단 돈 몇 만원이 아까운데 누군가를 위해 보시를 하는 순간이면 그렇게도 큰 기쁨이라는 설명이었다. 이곳, 저곳 펴주고 베풀고 오니 너무도 좋아 그저 웃을 일 뿐이라고 했다. 건강한 육신으로 육십 평생을 부처님 밥 먹고 살았으니 감사하고, 그 감사한 마음을 1년 내내 대중공양으로 돌리고 싶다는 스님다운 소회였다.

유년시절, 어린 소녀는 집을 보라는 엄마의 말씀에 진종일 집 앞 바위에 앉아 집을 지키고 있었다고 했다. '마음 안의 집' 을 모른 채 살았기에 어린 소녀는 형상의 집을 지키려 했을 게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신 스님에게는 자비의 집이 처처에 가득하다. 오늘도 부산 구서동 전철역 급식소를 찾아드는 어르신들에게 스님은 마음을 쉬게 할 자비처소를 낱낱이 지어주고 있다.

글 · 사진=김윤희(월간 맑은소리맑은나라 대표)

전법일기

산부인과에 가다

모자를 벗어 손에 쥐었다가, 눈을 하늘에 두었다가, 땅을 내려다 보고 마침내 좌우를 살피며 몇 분쯤 병원 입구에서 서성거렸다. 가던 걸음을 멈추고 이런 나를 쳐다보는 시선들이 느껴졌다. 나는 얼굴을 한 번 쓸고는 큰 걸음으로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섰다.

구미의 한 산부인과 안으로 들어서자 한 손은 부른 배에 얹고 한 손은 허리에 댄 산모들이 눈에 들어왔다. 음, 음, 당장 눈을 어디에 둬야할지 몰라 헛기침이 나왔다. TV 다큐에서나 보았던 산부인과 모습이다. 마침 한 남자가 만삭의 아내를 부축하며 접수계로 다가서다 나와 딱, 눈이 마주쳤다. 눈빛에서 스님이 무슨 일로 산부인과에(?) 하는 의구심이 느껴졌다.

"안녕하세요. 대둔사 주지 진오라고 합니다. 원장 선생님을 뵐 수 있을까요?"



그림 · 박구원

발걸음을 떼는 일이 쉽지 않았던 만큼 나는 꼭 이곳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갈 곳 없는 이주 노동자들이 쉼터에 모여들면서 자연스럽게 여성 노동자들도 쉼터로 들어오는 사례가 생겼다. 그런데 이 여성들 대부분이 홀몸이 아니었다. 남자 친구를 만나고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 임신이 되면 일할 곳에서 눈치를 받아 마땅히 갈 곳도 없는 딱한 처지가 되었다.

"나 돈 없어요. 애기 낳으려면 이백오십만 원 달라고 했어요. 나 집도 없어요."

처음에는 임신중독으로 온몸이 탱탱 부은 여성을 어떻게 대해야할지 몰라 눈앞이 캄캄했다.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생각에 누구에게 전화를 걸지 고민을 했다.

나는 그때 아이를 낳는데 그렇게나 큰 돈이 든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 순산의 경우가 그렇고 수술을 하면 비용이 더 든다는 정보도 산부인과 상담을 받고 나서야 알게 되었다. 이제까지 나와 전혀 무관했던 세상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도움을 청하는 만삭의 이주여성을 생각해 결국 출산비용을 할인 받기 위해 용기를 내서 병원을 찾았다.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전후 사정을 전하고 나니 속이 후련했다.

다행이 병원과 그곳 의사 선생님 모두 지역사회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도움을 약속해주셨다. 연애도 모르고, 결혼도 안 해 본 학승이 속세에서 만난 인연들을 챙기려니 알아야 할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임금체불과 생필품 지원으로 시작했던 구미 마하이주민센터는 노동자 상담실 운영에서 쉼터 기능으로 확장되어 오갈 데 없는 외국인들에게 24시간 숙식을 제공하고 여성 노동자의 출산을 돕는 역할을 담당했다. 우리가 그 일을 담당하자고 권유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해야할 일이었다.

적막하던 센터에도 아이 울음소리가 시작되자 분위기가 여성과 아이를 배려하는 분위기로 흘렀다. 여성 노동자를 위해 비구니 스님이 필요했다. 마침 복지활동을 해 보고 싶다는 스님을 만나게 되고 어느덧 외국인 스님과 사회복지사 그리고 통역 담당 이주여성을 합쳐 8명의 일꾼이 센터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애환을 돌봐 주고 있다.

오늘은 중국 노동자 부부가 출산한 아이를 보러 온 걸음이었다. 오랜 산고로 지쳤을 텐데 들어서는 우리를 발견한 산모가 수줍게 웃으며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여줬다. 여자 아이였다.

"아이고, 귀여워라! 꽁시니~! "

당신 축하해요를 중국말로 전했더니 아기 엄마가 잇몸을 드러내며 행복해 한다. 행복은 가족이 구성되면서 시작되는 것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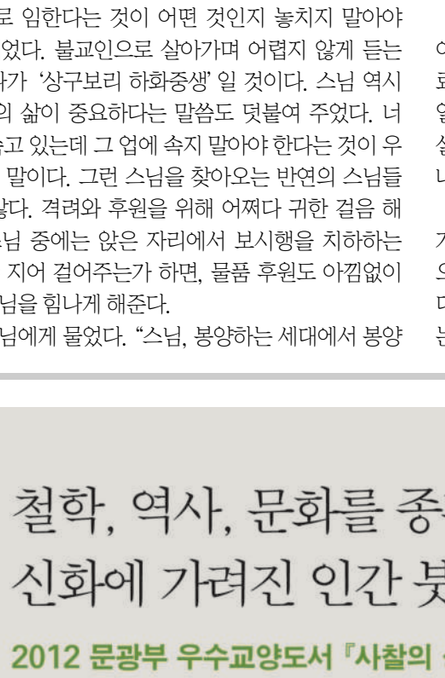
그런데 아기의 웃음은 어쩌면 이렇게 평화로울까? 세상의 모든 아빠들이 아이의 잠자는 모습을 보고 세상 근심 걱정을 모두 잊게 된다는 말이 이해되는 하루였다.



진오 스님
(꿈을이루는사람들 대표 · 구미 대둔사 주지)

철학, 역사, 문화를 종횡무진 오가며
신화에 가려진 인간 붓다의 참모습을 만나다

2012 문광부 우수교양도서 『사찰의 상징 세계』의 저자 자현 스님이
명쾌한 언어로 흥미롭게 풀어낸 붓다의 생애!



이 책에 담겨 있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붓다와 불교 이야기

- 붓다는 4월 8일에 탄신하신 게 아니다.
- 마야부인은 7일 만에 돌아가시지 않았다.
- 녹야원의 첫 설법 장소는 잘못된 것이다.
- '자등명 법등명' 의미는 전혀 다른 것이다.
- 붓다의 탑은 살아 계셨을 때도 유행했다.
- 붓다의 열반일은 2월 15일이 아니다.

붓다순례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인간 붓다의 위대한 발자취

불교 전문 사진작가 하지권의
인도 성지 순례 사진 100여 장 수록!

글_자현 | 사진_하지권 | 352쪽 | 올컬러 | 18,000원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15가지
불교적 성찰



글_곽철환
192쪽 | 12,500원

놓아버림,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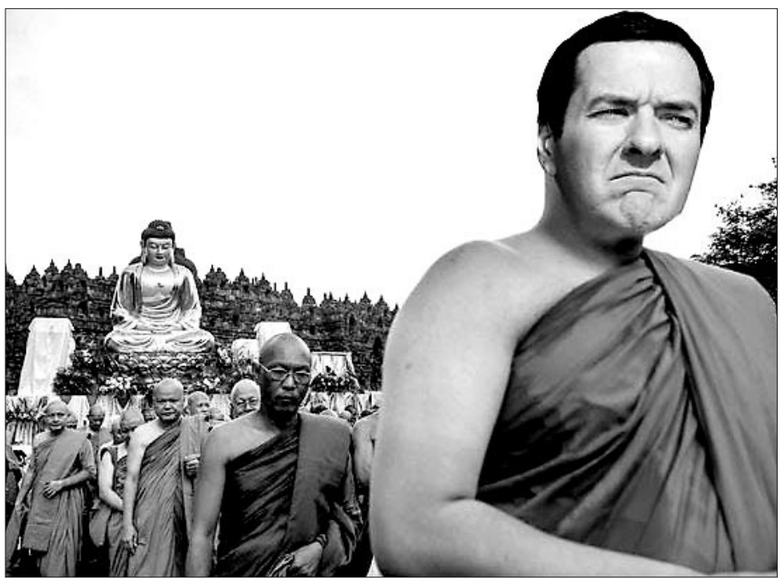
「시공 불교사전」의 저자 곽철환이
원고지 500매로 압축한 불교의 핵심

충돌하는 욕망과 가치들로 어지러운 상황을 돌파할 방법을 제시하는
'삶을 바꾸는 공부책'

Tel. (02)420-3200 Fax. (02)420-3400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불광출판사

英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 명상에 빠져들다

온 · 오프라인 '헤드스페이스' 명상에 심취



영국 재무장관 조지 오스본(사진 오른쪽)을 승려에 합성한 사진. 오스본은 영국서 최초로 공인받은 명상 컨설턴트인 헤드스페이스 사(社)의 브리튼 앤디 퍼디컴 대표의 지도를 받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헤드스페이스 사에서 개발한 명상 모바일 앱(app) 이미지.

〈Sunday People〉 지는 "조지 오스본(George Osborne) 영국 재무장관이 브리튼 앤디 퍼디컴(Briton Andy Puddicombe)과의 만남을 계기로 '드디어' 명상을 시작했다"며 "명상의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조화'와 '깨달음'이 과연 조지 오스본 장관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영국 경제를 되살리는 데 일조할 수 있을 지에 대중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Sunday People〉 지에 따르면 조지 오스본 장관은 현재 영국에서 최초로 공인받은 명상 컨설턴트인 헤드스페이스(Headspace) 사의 브리튼 앤디 퍼디컴 대표의 지도를 받는 한편 헤드스페이스 사에서 개발한 명상 모바일 앱(APP) '헤드스페이스'를 이용해 일상에서도 명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지 오스본 장관이 실참하고 있는 명상법인 '헤드스페이스'는 '하루 10분만 생각을 멈추면 인생이 가벼워진다'는 모토로 브리튼 앤디 퍼디컴 대표가 직접 개발한 것으로, '명상에 접근하기' → '명상 수행하기' → '명상을 삶과 통합하기'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자기계발 명상이다.

브리튼 앤디 퍼디컴 대표는 4명의 죽마고우의 죽음을 지켜보면서 가치관의 혼란을 겪었는데, 이때 출가를 결심했다. 당시 그는 히말라야에 있는 티베트 사원을 방문, 수계를 받은 후 스님으로서 18년 간 세계 곳곳에서 진언 염송과 명상 수행을 했다. 그리고 2004년 영국으로 돌아와 일반인들에게 명상을 이해하기 쉽게 소개하기 위해 지금의 헤드스페이스(Headspace) 사를 설립했다.

헤드스페이스 사는 오프라인 명상뿐만 아니라 자사의 이름 딴 '헤드스페이스'라는 명상 모바일 앱을 온라인에 선보였는데, 현재 이 엡은 150개국에서 100백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가치를 환산하자면 3천5백만 파운드(약 6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헤드스페이스가 영국 내 온 · 오프라인에서 최고 최대의 명상법이라고 말하기에 충분하다.

〈Sunday People〉 지에 따르면 조지 오스본 장관은 지난해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 10번지에서 열리는 소위 '다우닝가 파티(Downing Street party)'에서 브리튼 앤디 퍼디컴 대표를 처음 만났다.

영국의 미디어 재벌 아리아나 허핑턴(Arianna Huffington)도 함께 한 이 자리에서 조지 오스본 장관은 브리튼 앤디 퍼디컴 대표에게서 '스트레스를 이기고 숙면을 취하고 더 기분 좋아지는 방법'인 '헤드스페이스' 명상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Sunday People〉 지는 당시 파티 참석자의 말을 인용, "요란한 마음을 고요하게 잠재우는 효과적 방법이라는 데 조지 오스본 장관이 깊은 관심을 보였다."며 "특히 조지 오스본 장관은 모바일 앱인 '헤드스페이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명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했다"고 전했다.

또한 〈Sunday People〉 지는 브리튼 앤디 퍼디컴 대표의 말을 인용, "헤드스레이스 명상은 기쁨이나 환희에 휩싸일 때는 물론, 슬픔이나 분노가 솟구칠 때도 '고요하고 텅 빈 마음(헤드스페이스의 뜻)'을 아주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다"며 "그래서 '고요하고 텅 빈 마음'은 당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어떤 감정을 느끼든지 그 모든 생각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을 특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헤드스페이스' 즉, '고요하고 텅 빈 마음'은 이 순간에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든지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만족감 또는 충족감, 즉 그 표면적인 감정의 밑에 존재하는 평화로움을 표현하는 말이다. 이는 결코 표면적인 감정에 따라 변하지 않는 마음 상태이다.

모바일 앱으로 개발된 '헤드스페이스'의 나레이션은 할리우드 스타 기네스 팰트로(Gwyneth Paltrow)와 엠마 왓슨(Emma Watson)이 맡아, 영국 내에서 '명상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으며, 브리튼 앤디 퍼디컴 대표에 따르면 올림픽 선수, 프리미어 리그 스타와 글로벌 기업의 임원들 모두 이 앱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美 베리언카운티서 종교지도자 시위

단 쉬드(Dan Scheid) 스님이 주도…미시간 주요 도시 순회

미국 미시간 주의 베리언카운티(Berrien County) 종교 지도자를 '무장 드론(무인 항공기)' 사용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렸다고 〈Herald Palladium〉 지가 지난 1일 보도했다.

이번 항의 시위를 진행한 단 쉬드(Dan Scheid) 스님은 "무장 드론은 전장에서 '인간적인 판단'까지도 유보시키는 '살상무기'이며, 이에 베리언카운티의 종교계는 무장 드론을 종교윤리에 위배되는 무기로 규정한다"고 말했다.

〈Herald Palladium〉 지에 따르면 이번 항의시위에 참여한 베리언카운티의 종교지도자들은 뉴 버팔로(New Buffalo), 벤턴하버(Benton Harbor), 핫포드(Hartford)를 방문해 항위 시위를 진행하고, 미시간 주와 아이오와 주의 접경에 있는 밴뷰런카운티(Van Buren County)를 끝으로 항의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감시하고 있는 NGO '라우너(Rauner)'에 따르면, 지금까지 미국은 최소 4개 국가에서 1,600여 대의 무장 드론을 사용했고, 이로 인해 미국 시민을 포함해 4,700여 명이 사망했다.

"라우너 통계에서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아동의 비율은 2%에 이른다"고 전제한 단 쉬드(Dan Scheid) 스님은 "이는 종교지도자들이 살상에 앞서 '인간적인 판단'에 주목한 이유"라고 강조하고 "무장 드론을 금지하면, 전쟁터에서 극단적인 살상만큼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캐나다 카와사 호수지역, 불교사원 건립

'불교성지' VS '수력발전 개발' 갈등…해소

북미 지역 최대 규모… 지역 경제 · 문화 발전에 기여

캐나다 온타리오 지방의 카와사(Kawartha) 호수 인접 지역에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가 될 중국계 불교사원이 들어설 전망이다.

〈News Barrie〉지는 "카와사 호수 인접 지역에 '불교성지 개발'이냐 '친환경 수력발전 개발'이냐를 놓고 지금까지 각을 세웠던 지역 불교계와 주민들이 '불교사원 건축'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며 "이로써 카와사 호수 인접 지역에 북미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불교사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캐나다에서 중국계 불교사원을 찾기란 쉽지 않다"고 전제한 다이엔 첸(Diane Chen) 법사는 "중국 불교계의 성지인 참산(Cham Shan) 사원을 그대로 옮겨놓을 이번 불교사원은 중교불교에 대한 캐나다 불자들의 궁금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할 것"이라며 "보다 많은 불자들이 이곳을 방문해 기도하고 부처님 가피를 입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부터 '카와사 호수 불교사원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해 온 다이엔 첸 법사는 또한 "1,700 에이커에 달하는 이번 개발 프로젝트는 향후 카와사 호수 지역에 매년 4천5백여 명의 불자들이 방문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 이 지역 경제에 3백50만 달러의 경제적 효과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피터버러카운티(Peterborough County) 의회가 최근 '불교사원 건축'과 관련한 조사 용역을 의뢰한 결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긍정적'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전한 〈News Barrie〉 지는 "이를 통해 지역 불교계와 주민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며 "특히 피터버러카운티의 관광업계는 '중국불교'라는 새로운 관광분야를 반기도 있으며, 문화 · 예술계 역시 지역 문화 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캐나다 온타리오에 북미지역서 가장 큰 규모의 중국계 불교사원이 드러서게 된다. 사진은 호수 주변에 있는 불상.

달라이 라마, 중국에 민주주의 수용 촉구

달라이라마가 중국이 민주주의를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텐안먼 사태 희생자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했다.

달라이 라마는 '중도 노선' 캠페인의 공식 재개를 하루 앞두고 6월 5일 웹사이트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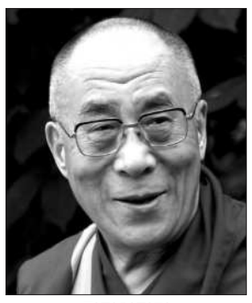
성명에서 중국이 본격적인 민주주의를 수용해야 한다면서 이는 "중국이 외부 세계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25주년을 맞은 텐안먼 사태를 언급하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위해 목숨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바친다"고 말하고 "이들 가치는 자유롭고 역동적인 사회의 기초"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달라이 라마의 이런 발언은 그를 위험한 분리주의자로 간주하고 텐안먼 사태에 대한 일체의 언급에 예민한 반응을 보여왔던 중국 정부를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외교부의 홍레이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들이 티베트를 중국으로부터 분리하려는 시도를 포기할 것을 권고한다"면서 달라이 라마의 발언에는 숨겨진 동기가 있다고 공격했다.

한편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의 분리 독립을 포기하는 대신 고도의 자치를 요구하는 이른바 '중도노선'을 표방하고 중국과 대화에 나섰지만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지난 2011년 정치 지도자로서의 직무에서 공식으로 은퇴했다.



달라이라마

달라이 라마와 정치 지도자 역할을 승계한 티베트 망명정부의 총리 롭상 상가이 등은 2010년 중국과의 대화가 결렬된 이후 4년만에 '중도 노선'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기 위한 캠페인을 공식 시작했다.

이는 최근 티베트인들의 절망감에서 비롯된 티베트 승려들의 분신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티베트 지도자들은 완전한 분리 독립 추진을 주장하면서 중국이 자치에 관한한 어떠한 양보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내부의 강경파들을 달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사찰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 찰 화 재 보 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3차

신묘장구다라니 천일기도

축령산 보현사에서는 '제 3차 신묘장구다라니 천일기도'를 아래와 같이 봉행합니다.

선근공덕의 인연으로 무루 동참하여 축령산 천하명당터의 기운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일시 : 불기 2558(2014)년 6월 25일 ~ 2017년 3월 22일까지

장소 : 축령산 보현사

문의 : ☎ 031)591-9023

(기도동참자 1인당 1년 10만원)

천일기도도량 축령산 보현사

보현선원 진명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남가로 1723-34

웰빙 힐링 빌리빙

깨달은 염불禪 깨달은 호흡법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나는 본래 부처인 나다

● 절, 염불, 독경, 다라니, 명상, 수행시 가슴, 어깨로 들숨하면 100% 상기병, 핫병, 냉병 걸린다. 조심하라!

● 행복 호르몬이 쏟아져 나와야 삼매 이룬다.

● 혀가 입천장을 탁탁 쳐야 생명뇌 일깨우는 진짜 건강법이다.

● 단전복식호흡이 저절로 되어져야 우주 태양, 지구 땅의 기운 모이고 돌려져 수승화강 된다.

● 신명나고 신바람 나는 기쁜 운률로 심신이완 되어야 번뇌가 뚝 떨어진다

● 수행, 운동, 등산, 공부, 일, 사우나 피곤하고 졸리면 호흡불량 100%

※건강법

귀에 소리나고 · 안구건조 비염 입안 헐고 · 머리 뜨겁고 · 얼굴 붉고 검고 · 손 발 배 차갑고 저리고 · 가슴 답답 · 허리 무릎 손마디 검고 · 혈압 높고 · 터질 것 같고 · 불면증 우울 공황장애 과호흡증 즉석에서 100% 효과

www.법왕정사.net

상담 ☎ 010.3487.0035

수행도우미

미국 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우리는 왜 불 · 조사님의 권능이 없는가?

學語之輩 說時似悟 (학어지배 설시사오)
말을 배우는 그 무리들은 말할 때는 깨달은 것 같으나

對境還迷 所謂言行 (대경환미 소위언행)
경계에 맞딱드리면 미혹함에 돌아가나니
이른바 말과 행실이

相違者也(상위자야)
서로 틀리기 때문이다

– 禪家龜鑑 중에서 –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의 권능을 보여주지 못하고 옛 조사들의 영험과 신비를 경쟁적으로 팔고 자랑만 하고 있을런지.....

불.조사님 들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이 [나]라는 주인공을 찾았지, 강산이 바뀌게 되는 날, [나]를 상품으로 팔아라 한 적이 어느 경전이나 조사어록을 봐도 나와 있지 않다.

"다만 후대를 위해 이 지침서를 남겨 놓고자 함은 나와 같이 길을 가고자 하는 이들을 위해 그릇됨이 없기를 염려하여 이 글을 남겨 놓을 뿐이노라." 하셨다.
그런데도 이 도량이 어쩌고 저쩌고 선전하며 조사의 영험과 신비만을 얘기하며 말 잘하는 앵무새가 되어 가고 썩은 고목이 되어 가니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 불 · 조사님을 닮아가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냥 부처님 제자일 뿐이다. 그런데도 내가 석가족 법맥을 이어 온 몇 대 손이다. 내가 한 때 부처님 제자로써 누구 누구였는데, 이 말세에 환생했다. 하며 중생을 구제하고자 부처님의 명을 받아 왔다는 등등.... 말과 글이 너무 난무하고 있다.
절집을 들락거리는 불자들이 그 말과 글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가뜩이나 자기가 다니는 절에 큰 스님 밖에 모르는 세상인데..... 지금 불자들은 말에 흔들리고,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제발 이 말세에 말과 글을 앞세우는 행위는 그만두고, 참다운 수행자로써 얻은 그 권능을 보일 때이다. 지금 말세에 병고로 고생하는데 왜 보여주지 못하나?

바르게 실천 수행하면 반드시 불.보살님의 권능은 생기게 마련이고, 지금이야말로 말세에 일어나는 삼재 중에서 질병재에 해당하는 육체적인 병과 정신적인 병을 고치는데 그 권능을 써야 할 것이다.

[사 례]

1. 서초구에 사시는 초등학교 교사 부부가 친구 가족을 데리고 왔다. 그 중에 친구의 여동생이란 분이 얼굴빛이 검고, 몸에 힘이 없어 보였다. 나이는 42세로 독신이고, 몸이 불편해서 노동은 할 수가 없고, 가벼운 집안청소 정도하면서 오빠와 같이 지내고 있는데 병명을 물어보니 백혈병이라고 한다. 그래서 종교를 물어보고 2일 기도해 주니 힘이 난다고 하면서 이참에 새벽 안거기도에 동참해 보겠다고 하길래 단 집에서 형제들과 같이 매일 새벽에 오라고 하고는 안거가 끝나고 바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 백혈병이 흔적도 없이 다 나았다고 하는 것이다. 그때 전 가족이 기뻐하며 눈물 흘리던 모습이 선하다. (서울)

2. 오래전 서울 있을 때 연이 되었던 분이 오랜 만에 찾아 왔는데 안색이 좋지 않다. 물으니 서울대 병원에서의 진단이 몸이 점점 굳어가는 희귀병이라고 한다. 수술을 일주일 앞두고 두려움에 왔다는 것이다. 척추에서 시작된 병으로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발견된 희귀병이라 수술을 해도 장담을 하지 못한다고 하길래 우선 2박3일 기도를 받게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의사가 회진차 와서 하는 말이 "어디 가서 기도 받고 왔느냐?"고 묻길래 "그렇다."고 하니 기적이라고..... 원래는 기계를 몸속에 넣어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눈물로 고맙다고 전화하고 그 후 시간이 나는 데로 절에 찾아와 기도를 하고 가곤 한다. 이번 안거 입재날도 다녀갔다.

※ 참고로 그 당시에,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 한분이 (2013. 6월에) 본 사례자와 같이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그분은 지금도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고 한다. 가족 중에 한분이 직장을 그만 두고 간병하고 있다면서 이번 안거에 와서 5분 정도 대중 앞에서 직접 얘기를 했다. (남양주)

3. 해마다 10월이 되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기 위해 가까운 곳에 가는데, 거기서 스님에게 주사를 놓던 이가 "스님! 어느 절에 계십니까?"하고 묻길래 "충해공원에 있는 연등사인데 아직 절은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하니 "스님에 대해서는 조금 압니다." 하며 친견을 하고자 하길래 다음 날 절로 찾아오라고 했다. 내용인즉 본인은 20여년전 부터 신장을 중심으로 주위가 좋지 않아 부산 복음병원에서 지금까지 한 달에 한번 검사와 처방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상태가 워낙 좋지 않아 혈액 투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종교를 물으니 불교라고 한다. 오래전부터 큰 절에 열심히 다니면서 기도도 열심히 했고 불교대학도 거쳤다고 한다. 집에 가서 부적등 기복적인 것들을 다 치우고 나서 기도생활 한다는 것은 좋으나 정법과 사법을 가려서 하라고 철저히 일러주고 새벽기도 2일 해 주고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밝은 모습으로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이번 안거에도 동참하고 있다. (거제)

4. 아는 분의 소개로 전화가 왔다. 남편이 오래 전에 대장암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간경화까지 오게되어 황달과 더불어 복수까지 차서 움직이는 데도 힘들다고 했다. 이미 5년전 부터 세브란스 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을 반복해 왔으나 이제는 아예 회복 가능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꼭 보호자와 같이 절에 오게 해 상담해 보니 그 환자 형제가 B형 간염 보균자라 했다. 이미 간 손상으로 세상을 떠난 분도 있었다. 종교가 무엇이냐고 물으니 불교라 했고, 집 가까운 곳에 있는 큰 절에 나가 매일 새벽기도에 동참하며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한다. 집에 가서 부적 등을 수거하고는 3일 기도해 주고, 20여일 절에서 생활한 후, 병원에 검사해 보니 의사 왈, B형 간염이 없어졌다 는 것이다. 그 동안 복수가 차서 고생했었는데, 허리가 42인치 이던 것이 32인치로 줄어든 것이다. 그 후 1달에 1번씩 서울로 가 기도해 주었는데 키가 큰 모습에서 환한 얼굴을 볼 수 있어 지금도 불.보살님께서 그 권능을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린다. (서울)

5. 42세 되는 여인이 병원 입원 치료를 거부하고 아는 분과 같이 절에 왔다. 그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참기 어려운 통증으로 하루 하루가 고통의 연속이고, 자꾸 어지러워 쓰러진다는 것이다. 그녀의 눈을 보니 신병과 지병이 같이 공존하고 있었고, 약은 신경계통 약은 기본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분마다 각기 다른 약을 복용한지도 오래 되었고, 특히 그 집안은 현재 신을 받은 이가 있었다. 집안에 신 받은 이가 있으면 가족이나 가까운 인척 중에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 또 다시 생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집에 가서 부처님께서 극구 하지 말라고 한 것(부적등....)을 제거하고는 2일 새벽예불 및 기도에 동참해서 두 번 기도 받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쩡하게 웃음을 되찾게 되자, 한 집안의 아내로써 열심히 살고 있으며, 새벽 안거에 동참하고 있다. (거제)

6. 전국에 대형 지원이 있는 큰 절에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 50대 초반의 여인을 형제들 이 절에 데리고 왔다. 데리고 오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한다. 본인이 다니는 큰 절 이외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지하방에서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두운 곳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밤만 되면 큰 절 법당에 갔다 오곤 했다는 것이다. "왜 낮에 가지, 밤에 갔느냐?" 고 물으니 어느 때 부터인가 절에서 안 나왔으면 하더란다.
그녀는 한 때 지역의 신도회장 소임도 맡았었고, 세 아이들을 유치원까지 다니게 했고, 지금은 그 아이들이 다 군에 갔다 온 성인이 되었지만, 그만큼 열성적으로 헌신적으로 절에 다니면서 온갖 봉사는 다 해 왔는데..... 절에서 오지 말라니? ..... 그녀는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신병의 장애를 받고 있었다. 새벽예불과 더불어 기도를 2일 해 주고 그녀는 정상인이 되었으나 그 집안에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었다. 20대 중반인 큰 아들이 일찍 신병이 들어 기도도 하고,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등등..... 절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도 없이 했지만 오히려 상태만 안 좋아져서 경기도 일원에 있는 정신병원을 전전긍긍하다가 본 절에 올 당시는 해남에 있는 대형 정신병원에 있었다. 그래서 바로 스님이 보호자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데려고 와 기도를 해 주고 지금은 약 후유증은 조금 있으나 청년으로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일산)

7. 어느 스님이 상담차 전화가 왔길래 많은 얘기를 하고 싶어하나 정확한 것은 눈을 보아야 하니 절로 찾아오라고 했다. "스님 정도 되시면 전화 음성만 들어도 정확하게 알 것 아니냐?"하길래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얘기하고 정녕 고통으로 부터 벗어나고 싶으면 정해준 날에 오라고 했다. 대면해 보니 신병이 오래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신체가 부자연스러웠다. 신병이 따라오게 되면 모든 기능이 정상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다. 매스컴과 유명세를 탔던 곳을 다 찾아다니기도하고, 스님으로서 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해 보았으나 별 소용이 없었다고 했다. 가족 중에 이미 신병으로 세상을 떠난 이도 있었고, 현재 신병으로 고생하는 이도 있었다. 기도를 해 주는 조건으로 "지금부터 스님 절에서 신문에 이미 밝힌대로 일체의 비불교적인 행위(사주.철학.삼재풀이.삼재기도.어류,조류방생.성지순례.산신기도.용왕기도 등등....)를 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주면 기도를 해 주겠다." 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연락도 없이 그 절에 가 보니 비불교적 행위 사주, 철학, 부적 등등을 일체 사절 한다는 안내문을 보고 돌아와서 그 스님을 오게 하여 신도들과 같이 2일 기도 후 지금은 건강한 모습으로 수행정진 하고 있다. (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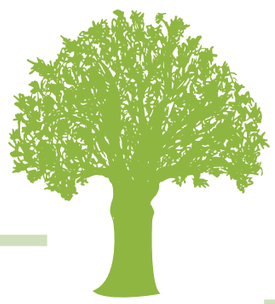
8. 결혼 한지 10여년이 지났는데도 태기가 보이지 않고 몸은 자꾸만 허약해지고, 특히 바깥나들이 하기가 무섭다는 것이다. 먼 거리는 아예 엄두도 못 내고, 바로 집 앞에 있는 슈퍼에 나가기도 무섭다고 했다. 또 슈퍼에 가는 도중에도 몇 번이나 쓰러져 눈을 떠보면 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비상시를 대비해서 연락처가 적힌 메모지를 항상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닌다고 했다. 환자의 집을 방문하여 부모 입회하에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힘이없어 처진 상태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숙인 채로 힘없이 앉아만 있는 것이다. 몇 번이고 고개를 들어보라 해도 못하다가 자꾸 말하니 마지못해 겨우 고개를 드는 순간, 스님의 눈과 마주쳤는데 환자 하는 말, "엄마, 내가 고개가 들어지네... 그리고 힘이 나네..." 하며 울먹거리며 그 동안에 있었던 고통의 얘기를 시작했다. 즉석에서 잠시 기도해 주고, 2일을 새벽에 절로 오라고 해 기도를 해 주었다. 그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고, 그 인연으로 안거 100일 기도에 동참하고 있었는데, 기도 회향 하루 전날 저녁나절에 찾아왔다. 기쁜 소식을 스님한테 전해야 한다면서 하는 얘기가 임신 3개월째라 했다. 지금 그때 태어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서 벌써 6살이 되어 유치원에 잘 다니고 있고, 이번에는 또 둘째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 (구리)

9. 학교에 다녀야 할 여자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찾아왔다. 우선 아이는 학장스님과 같이 있게 하고, 부모와 먼저 상담을 했다. 학교나 학원이나 어디를 가도 이해하지 못할 말과 행동 때문에 적응은 고사하고 다른 아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며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종교를 물으니 아빠는 불교, 엄마는 기독교, 아이는 천주교라 한다. 종교를 떠나 아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세히 얘기해 보라 하니 신경정신과 상담부터 인터넷을 뒤져 큰 절도 찾아가 보고, 무당을 찾아 굿도 해 보고, 심지어는 영험하다고 하는 기독교 전도사가 기도하다 기절하여 응급실로 실려가는 초유의 사태도 벌어지게 되었고, TV에 소개되었던 이를 찾아 최면까지 해 보았으나 오히려 증상만 더 심해지고 그때마다 그들에게 X자 들어가는 욕만 거침없이 내뱉더라는 것이다. 상담해 보니 양쪽 집안에 할머니들이 신을 모셨다고 한다. 학장스님보고 아이를 데려오라 하여 눈을 보니 접신현상이 뚜렷했다. 그때 아이의 엄마가 스님에게 슬며시 물었다. "빙의가 맞죠?" 그래서 "맞다." 고 했더니 "그러면, 누가 들어 있어요?"하며 다시 물었다. "00 00 와 몇 살 먹은 남자아이가 들어 있다." 고 했다. 그리고 나서 일요법회에 아이를 데리고 부모가 꼭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 알고 보니 지리산 큰 절에 갔다는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 뒤에 부모가 다시 찾아와서 아이를 좀 살려 달라고 간청 하길래 인연이 아니니 돌아가라고 하면서 전국 명산, 영산 사찰, 영험도량, 신비도량 등등... 유명한 곳을 다시한번 더 돌아보고 오라고 하며, 단호하게 내치는 데도 3시간이 지나도록 가지 않는 것이었다. "그럼 아이는 어디있냐?" 고 하니 그 절에서 15일 동안 있다가 빨리 데려가라는 전갈이 와서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것이다. 바로 데리고 오라 하니 병원에서도 상태가 심각하다며 놔주지를 않는다고 했다. 결국 입원 1달 만에야 아이를 데리고 나와 절에 와 신도들과 같이 새벽예불후 기도 받고, 아이의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창원)

※ 참고로 정신병동에 오랫동안 있었던 환자는 빙의, 접신현상이 제거되어도 약으로 인한 후유증이 심각함을 알아야 한다. 본 도량에서는 말기암 환자이든, 희귀병이든, 정신병이든 현대의학으로 1%의 가능성이 있는 환자는 받아주지 않고 있고, 더구나 일체의 약은 금물이다. 얼마있지 않으면 수험생 수능기도 한다고 수험생 발원문에 입시생 사진까지 붙여 중점적으로 불.보살님 전에 들이 밀고 있을 모습이 선하다. 소위 기도한다고 명산 사찰을 찾아 가정은 멀리하고 오직 내 아들, 딸만을 찾고 있는 모습을 생각하면 불교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다.

본 도량에서는 이런 기도뿐만 아니라, 매매, 합격, 승진, 사업번창 기도 등등... 이런 기도는 아예 사절하고 있다. 이럴 때 내 아들, 딸을 위한 **기도란 밖같으로 쫓아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가족이 있는 내 가정에서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들, 딸 방을 매일 쓸고 닦고, 책상을 매일 정리하라 하고 집안일은 타인에게 시키지 말고 엄마들이 스스로 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일을 할 때 힘이 들 것이고 그 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하라는 것이다. **힘이 들고 땀이 날 때가 바로 업장소멸이 되는 것이다.**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복지시설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동네 독거노인을 찾아서 말벗도 해 주고, 그의 손과 발이 되어 줄 때 힘이 들면 그때 불 · 보살님의 명호를 부르면서 하라. 그러면 힘듬은 어느새 사라지고 환희만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방생인 것이다.
주인공이 그러할 때 우리 아들, 딸은 주인공인 나를 닮아 **수동에서 능동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 갈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것이다.**
일류대학과 명문대는 성적순으로 가는 것이지, 부처님이나 하느님을 밤낮으로 부른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내가 변해서 나로 인하여 우리의 자식이 변하면 비록 일류대학을 못가고 지방대학을 나온다 하더라도 이 사회가 꼭 필요한 위대한 인재로써 각자의 몫을 다하여 큰 인물로 대성할 것이다. 아주 오래전에 세계적인 수행자가 비행기에 오르면서 기자의 질문에 한마디 하던 게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한국 불교는 기복신앙으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 기복신앙을 과감히 벗어 던질 때라야 한국 불교의 미래가 있을 것이다."라고 답했다.

불자들이여! 하루속히 빨리 깨어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인 바른 정법의 인연을 맺어 이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자가 주인공이 되기를 부처님 전에 발원해 봅니다.



불.법.승 정법 실천도량
연등사(선재불교대학)
여명 도안 합장
경남 거제시 연초면 송정리 519-3
(충해공원내)
T. 055)633-6555

불자 화백 장건조 씨 '우주형상' 전


장건조 作 '어머니의 마음'

불자 화백 장건조 씨의 '우주형상(宇宙形象)' 전이 6월 16일~21일 부산 금정문화회관 소전시실에서 열린다. 작가는 6년간 참선의 경험에서 얻은 '어머니의 마음' '우주' '정' 등의 작품 27점을 선보인다.

천주교 신자였던 장 화백은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6년전 불교에 입문 계룡산 무상사, 부산 해운정사 등에서 참선정진을 해왔다. 특히 해운정사에서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에게 화두를 받았다. '부모님 나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이던고' 이 화두는 그의 작품 세계에 새로운 변화를 주었다. 인간의 순수한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또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리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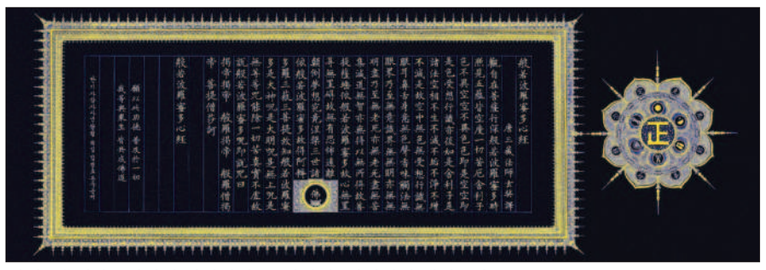
"30년이 넘은 해운정사의 빨래판, 도마, 의자 등을 주워 작품을 만들어 봤어요. 점은 우주이자 곧 제 근원을 말하죠.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은 빨래판과 도마로 표현해보았습니다. 이번 작품 활동을 통해 제 생명의 시작인 어머니에 대해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입대한 아들에게 매주 그림 편지를 보내 화제가 되기도 한 장건조 화백. 그는 오늘도 참선 화두를 통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넓혀 가고 있었다. (051)752-2545

정혜숙 기자

미국 가는 법사리 장엄의 결정체 '사경'

제9회 사경연구회원전… 6월 13일~26일 LA 한국문화원서


김경호作 '전통사경과 성경사경, 코란사경, 만다라의 대화 • 1'

한국의 전통사경이 미국 LA를 찾는다. 한국사경연구회와 LA한국문화원은 로스엔젤레스 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에서 6월 13일~26일 제9회 사경연구회원전 '법사리 장엄의 결정체, 사경'을 연다.

이번 전시에서는 김경호 작가의 제자 32명의 47점 작품이 선보인다. 만다라사경, 공필사경, 자수사경, 영자사경, 보탑사경 등의 다양한 전통사경을 만날 수 있다.

김경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찬조작품으로 '전통사경과 성경사경, 코란사경, 만다라의 대화 · 1' 과 '감지금니 아미타경'을 선보인다. 6월 21일 오전 11시에는 '한국 전통사경의 세계사적 의의와 가치'에 대한 특강 및 전통 금니사경 제작 시연회도 연다.

정혜숙 기자

서울국제도서전… 조정래 · 은희경 초대

올해로 20회를 맞는 '서울국제도서전'이 '책으로 만나는 세상, 책으로 꿈꾸는 미래'라는 주제로 6월 18일~22일 5일간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국내외 총 21개국 출판사가 참여하며, 행사에는 아동도서를 비롯한 인문사회, 과학, 문학, 예술, 철학 등 각 분야의 다양한 도서가 소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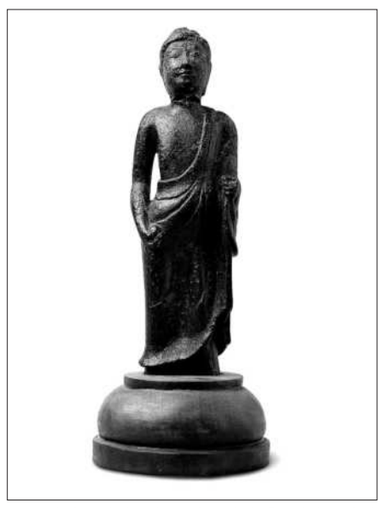
행사 기간 동안에는 '저자와의 대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서울국제도서전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은 '저자와의 대화'는 매년 영향력 있는 유명 작가들이 참여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독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으로 구성된다.

이번 행사에는 불자 작가인 조정래, 은희경을 비롯해 성석제, 윤대녕, 김탁환 등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가 참여한다. 또한 시인 최영미, 신경림 및 류군, 요조와 같은 산문 · 에세이 분야의 작가도 참여한다. 이번 '저자와의 대화'는 신간에 대한 에피소드는 물론 작가와 독자 사이의 문학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정혜숙 기자

치유와 염원의 상징 '약사불의 세계'

국립경주박물관 특별전…7월 13일까지


금동약사불입상, 경주 황룡사지 출토(삼국시대 신라 7세기)


금동약사불입상, 대구 도동 출토(통일신라 8세기)

약사불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열두 가지 큰 서원(十二大願)을 세웠다. 질병을 치유하고 수명을 연장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겠다는 원이 그 중 하나다. 그래서 약사불은 대의왕불(大醫王佛)이라고도 부른다. 중생의 아픔을 치료해주는 의사 부처님이란 뜻이다. 나아가 어리석음을 뜻하는 무지(無知)의 병까지 고쳐준다고 했다. 때문에 약사불은 치유와 염원의 상징이 되었다. 병을 낫게 하고 소원을 이루어준다는 약사불에 대한 신앙은 널리 퍼졌다. 그리고 수많은 약사불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오늘날까지 전해오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이영훈)은 7월 13일까지 '치유와 염원의 상징, 약사불의 세계'를 국립경주박물관 신라미술관 1층 로비에서 연다. 국립경주박물관은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모두 튼튼히 오래 사는 것을 바란다. 요즘 유행하는 '힐링(치유)'이란 말이 이를 반영한다. 오늘날처럼 의료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옛날에는 종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불교의 경우 그 대표적 신앙의 대상으로 약사불이라는 부처님이 존재한다. 이번 전시는 약사불의 의미와 시대적 양식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전시 취지를 전했다.

약사불은 한쪽 손에 약이 담긴 그릇을 상징하는 물건을 들고 있는데, 뚜껑이 있는 합(盒)이나 뚜껑이 없는 단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때로는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는 둥근 구슬인 보주(寶珠)로 표현되기도 한다. 7세기에는 오른손에 보주를 들고 서 있는 약사불이 유행하였으며, 8세기 이후에는 서 있는 약사불과 함께 앉아 있는 약사불도 많이 조성됐다. 앉아 있는 약사불의 오른손은 땅을 가리키는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이나 두려움을 없애준다는 시무외인(施無畏印)의 모양을 하고 있으나, 모두 왼손 바닥 위에는 약그릇이 올려져 있어 다른 불상과는 뚜렷이 구별된다.

연꽃좌대 빼어난 도동 출토 약사불
곡선의 美 황룡사지 약사불 등
중생구제 의미 담은 작품 한자리에

이번 전시에서는 △경주 황룡사지(삼국시대 신라 7세기) △경주 진현동(통일신라 8세기) △대구 도동(통일신라 8세기) △경주 월성 방내리(통일신라 9세기) 등에서 출토된 다양한 금동약사불입상을 만날 수 있다.

특히, 대구 도동 출토 통일신라 8세기 금동약사불입상은 고요히 명상에 잠긴 듯한 차분한 얼굴 표정이 보는 이에게 편안한 인상을 준다. 신체의 표현도 전체적으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빼어나며 발아래의 연꽃대좌가 잘 남아 있다. 연꽃대좌는 크게 3단으로 이루어졌다. 맨 아래쪽 받침에는 흔히 안상(眼象)으로 불리는 장식 구멍이 뚫려 있다. 그 위로는 끝이 살짝 올라간 넓적한 연꽃잎이, 다시 그 위로 단정한 모양의 연꽃잎이 각각 8개씩 새겨져 있다. 연꽃잎의 표현이 과장되지 않아 통일신라 불상의 절제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다.

경주 황룡사지 출토 삼국시대 7세기 금동약사불입상은 왼손에 약그릇을 든 일반적인 약사불입상과 달리, 오른손을 아래로 내려 둥근 보주와 같은 지물을 들고 있다. 왼쪽 다리에 힘을 빼서 무릎을 굽히고 오른쪽 엉덩이를 내민 자연스러운 곡선 자세는 삼국시대의 불입상에서는 보기 드문 작품으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불상이었음에 분명하다. 우리나라 약사불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도 평가되고 있다.

경주박물관 서유리 학예연구사는 "전시되는 약사불들은 높이 10cm 안팎으로 작은 편에 속한다. 당시에 이 약사불들을 어떤 방식으로 모셨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다만 크기가 작기 때문에 몸에 지니고 다니거나 집 안에 모시며 소원을 빌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054)740-7540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종교계 멘토 3인방 지혜의 메시지 전한다

tvN 특집토크쇼 '종교인들의 세상이야기'


법현 스님이 출연하는 tvN 특집 토크쇼 '종교인들의 세상이야기'가 6월 12일 저녁 6시 50분에 방송된다. 사진 왼쪽부터 인명진 목사, 법현 스님, 홍창진 신부

종교계 멘토 3인방이 전하는 지혜의 메시지가 안방극장을 찾아간다. tvN이 준비한 특집 토크쇼 '종교인들의 세상이야기'가 6월 12일 저녁 6시 50분에 방송된다. 종교계 멘토 3인방인 '열린 스님' 법현 스님, '포청천 목사' 인명진 목사, '괴짜 신부' 홍창진 신부가 출연 종교를 뛰어넘는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tvN '종교인들의 세상이야기'는 각기 다른 종교의 대표 얼굴들이 모여 대한민국이 행복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3부작 토크쇼로 이번이 세 번째 방송이다. 3명의 멘토들은 시민들의 소소한 질문부터 심각한 고민까지 촬영 현장에서 함께 듣고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5월 29일 첫 방송을 시작해 6월 5일 방송에 이어 6월 12일 3부에서는 '행복하십니까'라는 주제로 전파를 탄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씨와 개그우먼 김숙이 MC로 나서 프로그램을 이끈다.

패널로 참여한 종교계 멘토 3인방은 평소에도 종교 간의 소통과 화합을 몸소 실천하는 것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 쓴 소리도 아끼지 않는 시대의 멘토들이다. 특히, 불교생명윤리협회 집행위원이자 태고종 열린선원 선원장 법현 스님은 '쉬운 불교'를 모토로 시장 한복판에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위해 마음공부를 가르쳐 왔다.

tvN은 "시민과 종교지도자가 한 자리에 모여 이 사회의 자화상과 현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며 기획의도를 밝혔다.

정혜숙 기자

BTN '21세기 부루나, 붓다의 제자들' 첫방

BTN 이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들을 만나는 '21세기 부루나, 붓다의 제자들'을 개설했다.

BTN 은 "21세기 부루나 존자들은 단순히 법을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린이, 청소년, 군인 등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방법으로 계층을 공략한 포교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미디어시대에 걸맞는 문화포교까지 포교의 형태도 날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묵묵히 전법의 길을 걷고 있는 이들을 만나 진솔한 포교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한다"며 방송 취지를 전했다.

6월 10일 첫방송의 게스트로는 불교카툰신문 만만한뉴스팀의 지찬 스님, 양경수 작가가 출연한다. 방송은 매주 화요일 밤 11시 재방송은 목요일 오전 11시 30분, 금요일 오전 7시 30분이다.

정혜숙 기자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1-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www.shcandle.com
2014년
자연의 향으로 를 켜세요
『삼환양초』가 함께합니다


원기둥연꽃나비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 (7.4ϕ×29㎝)
밀납원기둥 연꽃나비
원 기 둥 108나비
3×6 꽃과나비
원기둥나비 – 화이트/핑크/옐로우/살구/그린/개나리(7.4ϕ×29㎝)
국산향
우리향,미연향,무향
쑥향,백목향,목향
설죽매,인삼향,대발향
신제품
원기둥금나비
밀대나비
육각초나비
수입향
와까바
후라지아
영원향 장,단(소바라)
라일락향
향수림

상담문의 031)766-0242 / 팩스 031)766-0233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농협 221133-51-020122 (입금자 : 장경분)

문화人

"삼천배 기도로 슬럼프 극복하고 연기의 소중함 다시 찾았죠"

불자 배우 우상욱 씨

극단 '공연배달서비스 간다'의 '유도 소년'은 요즘 대학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연극으로 연일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유도 소년'은 1997년 고교전국체전을 배경으로 피 끓는 청춘들의 성장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불자 배우 우상욱 씨(38)는 '유도 소년'의 코치 등 1인 4역의 멀티맨을 맡아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공연 3개월 전부터 복싱과 유도 등을 배우며 자신만의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그는 아무리 작은 역할이라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빙산이 보여지는 부분은 작지만 바다 아래에 거대한 산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대사 한마디 동작 하나를 보여주는 데에도 두터운 산을 쌓아 놓아야만 관객들에게 임펙트 있게 전달이 돼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맡더라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구해 저만의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데뷔한 배우 우상욱 씨는 지금까지 연극 '아버지, 연' '늘근 도둑 이야기' '올모스트 메인' '거울공주 평강이야기' '오월엔 결혼할꺼야' 등은 물론 영화 '아부의 왕' '호로비치를 위하여' 드라마 '신의선물-14일' '쓰리데이즈' '아내의 자격' 등에 출연하면서 연기자로서의 입지를 다져왔다. 특히 5년전 연극 '늘근 도둑 이야기'에서는 주인공 '젊은 도둑' 역을 맡는 영광을 안았다. 하지만 이 행운은 그의 인생에서 기쁨과 시련을 동시에 안겨주었다고.

"당시 '늘근 도둑'이 큰 인기를 끌면서 공연장이 세 개로 늘어났고 배우도 더 필요하게 됐죠. 공연을 보름 앞두고 '젊은 도둑' 역 제의가 들어왔어요. 정말 기뻤죠. 하지만 대사가 워낙 방대하기도 했고, 갑작스럽게 맡은 역할이라 제대로 된 연기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선배들의 비난이 쏟아졌죠."


불자 배우 우상욱 씨는 '유도 소년'의 코치 등 1인 4역의 멀티맨을 맡아 관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다.

연일 매진 행렬로 인기몰이 중인 연극 '유도 소년' 코치 역으로 열연 불교 소재 연극 연출도 '발원'

연기생활 7년만에 얻은 영광의 기회였지만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고 혹독한 시련이 불어 닥쳤다. 그후 2년 동안 아무런 역할도 들어오지 않았고 사귀던 여자 친구와도 헤어졌다. 연기자의 길은 더 이상 자신이 없었고 모든 것이 절망스럽기만 했다. 그리던 어느날 삼천배를 결심했다.

"배우의 길을 계속 가야할지를 결정하고 싶었어요. 한 달 동안 매일 108배를 하면서 삼천배를 준비했죠. 그리고 강원도 양양 휴휴암을 찾았어요. 밤 9시부터 휴휴암 관음전에서 삼천배를 시작했죠. 그런데 천배를 넘어서자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더 이상 못할 거 같아 좌복에 머리를 대고 엎드려 있었죠. 그때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같았어요. '상욱아! 그렇게 배우가 하고 싶냐? 그러면 한번 해봐'. 그 말씀에 다시 힘을 내어 절을 했죠."

이렇게 이어진 절은 마지막 200배를 남겨두고 다시 고비를 맞았다. 다리가 끊어질 거 같은 고통에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었던 것이다. 자책이 밀려왔다. '약속한 삼천배도 다 채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하니 펑펑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30분이 지나자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 미치도록 연기를 하고 싶구나!" 바로 자신의 목소리였다. 연기를 계속하고 싶은 자신의 의지를 알아채는 순간이었다. 벌떡 일어나 죽을 힘을 다해 나머지 200배를 했다. 그렇게 무사히 삼천배가 끝났다.

"기도의 가피였는지 그 이후부터 신기하게도 역할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무대에 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무대에 다시 올라보니 뼈져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객들과 함께 울고 웃을 때 제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도, 그래서 배우는 어쩔 수 없는 제 천직이라는 것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진정성 있는 연기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주는 좋은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유도 소년이 끝나면 청소년 뮤지컬 연출을 계획하고 있다는 우 씨는 앞으로 불교를 소재로 한 연극도 만들어보고 싶다며 의지를 다졌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관객들에게 호평 받고 있는 연극 '유도 소년'의 배우들. 왼쪽 첫 번째가 배우 우상욱 씨.


2009년 연극 '늘근 도둑 이야기'에서 젊은 도둑 역을 맡아 연기했다.

거룻배 찾아 맑은 휘파람 불고 싶네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㉔ 여주 신륵사 (上)




신륵사 극락보전과 다층석탑(보물제225호)

성긴 소나무는 푸른 돌 곁이로다.
사찰은 신선의 경계가 열리었고
보제의 영당은 환하게 트이었네.
현령은 자주 홀을 허리에 꽂고
산승은 홀로 담장을 향하누나.
어떻게 하면 거룻배를 찾아가서
광활함 속에 맑은 휘파람 불어 볼꼬.

시는 풍경으로 시작되고 있다. 산과 강 그리고 소나무와 푸른 바위가 다 동원되어 신륵사 풍경을 그렸다. 그리고는 곧바로 그 풍경을 '신선의 경계'로 끌어올리고 '보제(普濟)의 영당이 환하다'는 표현으로 나옹 스님에 대한 그리움과 절의 위엄을 살려냈다.

경련의 '현령은 자주 홀을 허리에 꽂고'라는 말은 당나라 때의 고사(故事)를 인용한 것인데 , 여주 고을 수령이 경치 좋은 여강에 '접대용 뱃놀이'를 자주 나온다는 뜻이다. 때문에 이어지는 '산승은 홀로 담장을 향하누나'라는 말이 묘한 대조를 이룬다. 스님들은 세간의 뱃놀이에 아랑곳 앉고 면벽 수행에 힘쓴다는 것이다. 선비들의 시끌벅적한 뱃놀이와 절집의 고요한 분위기가 극적으로 대조되며 시의 긴장감을 끌어 올리는 것이다.

뒷사람 볼까봐 부끄러워

그러한 세간과 출세간의 경계를 한 눈으로 바라보는 이색은 마지막 구절에서 '맑은 휘파람'을 갈망하는 속내를 비친다. 선비의 길이든 스님의 길이든 그 종착은 결국 '거룻배를 찾아가서' '맑은 휘파람'을 부는 것이니, 거룻배는 흐트러짐 없는 정진을 휘파람은 깨달음을 뜻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겠다.

나옹 스님의 열반도량

남한강의 유려한 흐름, 그 여정의 절정은 여강(驪江)에 있다. 태백 검룡소에서 발원한 남한강이 여주 지경에서는 여강이란 이름으로 불린다. 그 승경(勝景)의 백미는 봉미산 아래 신륵사(神勒寺) 일대다. 낮은 산은 절을 품었고 절은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품고 있다. 고즈넉한 산사의 풍경은 동쪽 언덕 높은 전탑(塼塔 보물 제226호)과 팔각정자 강월헌(江月軒)으로 인해 완성된다.

신륵사는 고려 말의 고승 나옹혜근(懶翁慧勤 1320~1376)이 열반한 곳이다.

신륵사에는 나옹 스님의 부도와 탑비가 있다. 또 동쪽 전탑 아래 강을 연접한 커다란 바위 위에 작은 3층 석탑이 있는데 나옹 스님을 화장한 곳임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이라 한다.

산과 강이 멀지 않고 그 사이에 소담하게 자리한 절은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절경 속의 절경이다. 커다란 암벽에 부딪치는 물결은 잠시도 그침이 없어 절을 찾은 선비들의 시심을 돋우었을 것이다.

나옹 스님의 비문을 쓴 목은 이색(牧隱 李穡 1328~1396)은 신륵사를 여러 번 찾았다. 당연히 신륵사의 풍경 속에서 시회를 즐겼고, 나옹 스님을 그리워하는 시도 남겼다.

여강형승천하희(驪江形勝天下稀)
사시풍경피천기(四時風景披天機)

이 세상에서 보기 드문 여강의 형승
사시 따라 풍경이 천기를 보여 주네.

이색은 '여강(驪江)에 모여 술 마시며'라는 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목은집(牧隱集)〉 제34권에 수록된 이 시는 26행이나 되는데, 강과 절과 산의 풍경 그리고 시주(詩酒)를 즐기는 기쁨, 스님과 선비들이 격의 없이 담론하는 흥취를 상세하게 그려내고 있다.

〈목은집(牧隱集)〉 제10권에 실린 '신륵사(神勒寺)에 놀러 가려 했다가 가지 못하고 인하여 단운(短韻)의 시를 짓다'는 제목의 오언율시는 이색이 신륵사와 나옹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한다.

원수장강외(遠峀長江外)
소송취석방(疏松翠石傍)
초제개복지(招提開福地)
보제창진당(普濟敞眞堂)
현령빈요홀(縣令頻腰笏)
산승독면장(山僧獨面墻)
하당심야정(何當尋野艇)
청소의창망(淸嘯倚蒼茫)

먼 산봉우리는 긴 강의 밖이요
아래애차호강산(我來愛此好江山)
종일승주우의란(終日乘舟又倚欄)
수저삼라개불찰(水底森羅開佛刹)
임간은약견선단(林間隱約見仙壇)
지심돈교요전혜(指心頓敎遙傳慧)
재사웅문혹이한(載事雄文酷以韓)
진중노선근수간(珍重老禪勤授簡)
유제환괴후인간(留題還愧後人看)

강산이 하도 좋아 내 여기 와서
종일토록 배 타고 또 누(樓)에 기댔네.
물 밑에 너울너울 사찰이 서 있고
숲 사이 아른아른 강이 보이네.
지심의 교는 혜사(慧師)에게 전수받고
사적 실은 문장은 한유(韓愈)와 같네.
진중한 늙은 스님이 시를 청하는데
뒷사람이 볼까봐 부끄러운 걸.

이색의 제자로 정몽주 이숭인 정도전 등과 함께 수학한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의 시다. 〈양촌집(陽村集)〉 제3권에 '신륵사(神勒寺) 판상시(板上詩)에 차운하다'는 제목으로 실렸다.

신륵사의 풍경이 좋아 종일 뱃놀이를 하고 누각에 기대어 숲과 강을 바라보며 쉬는 여유로움이 시의 앞부분을 장식하고 있다. 그러나 뒷부분은 팽팽하다. 혜능(慧能) 대사로부터 전승되어 온 직지인심의 선법(禪法)을 전해 받은 나옹 스님의 행적과 당나라의 대문호 한유(韓愈)에 비하는 문장력을 갖춘 이색의 비문을 상기 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신륵사의 역사와 문화를 상기하는 자신에게 스님이 시 한 수를 청하다니! 양촌선생은 슬며시 허투루 썼다가는 후세에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꼬리를 낮추며 시를 매듭짓는다. 은근하면서도 해학적인 양촌의 마음이 재미있다.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5/28 ~ 6/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붓다순례	자현	불광출판사
3	도쿄대학 불교학과	정상교	동아시아
4	닦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5	마음의 정원을 거닐다	지안	불광출판사
6	아들에게 남기는 어머니의 마음공부	최혜자	운주사
7	선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향적	조계종출판사
8	향기로운 동다여 깨달음의 환희라네	원학	김영사
9	마하박가(율장대품)	전재성	한국빨알리성전협회
10	무문관(수행자와 중문학자가 함께 풀이한)	안재철, 수암	운주사



초기불교, 아비담마 논서가 계승

니까야와 아비담마의 철학과 그 전개

와타나베 후미마로지음 | 김한상 옮김
동국대학교출판부 | 2만원



아비담마(abhidhamma · 논장 · 論藏) 철학의 기원을 가장 오래된 빨리 니까야와 단편적인 산스크리트 판본 그리고 한역대장경과의 비교를 통해 각기 다른 부파의 접근법으로 분석한 학술서로 불교철학의 논리적 측면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탐구하고 있다.

논(論)이란 원래 법(法)에 대한 연구를 의미한다. 이 원래의 뜻에서 볼 때 아비담마의 기원은 부처님 재세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무렵 이미 비구들 사이에서 부처님의 교법에 대한 학습, 연구, 토의가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은 〈아함경〉의 기술을 통해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비담마는 후대에 주로 교단이 여러 부파로 나누어진 뒤 그 부파들 안에서 급속히 발전한 아함의 연구 및 그 교의를 조직화하려는 노력 등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의 소산으로 점차 여러 부파들 안에서 저술된 교의의 해설서, 강요서 논술서 등을 아비담마라고 한다. 바로 이것이 논장의 내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저자는 논장, 즉 아비담마 삐따까가 부처님의 직설이 아니라 후대 논사들의 철학적 사유의 산물이라는 견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다. 저자는 아비담마가 경장에 나타난 토론 형식의 직접적인 발전이고,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은 논리적 전개 과정에 관심을 가짐으로써 마음, 마음작용, 물질, 열반에 관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을 것이라고 서술한다.

저자는 '담마에 대한' 이란 뜻을 지닌 용어 아비담마의 의미부터 탐구한다. 왜냐하면 그는 초기불교의 논증과 추론의 방법이 아비담마 논서들의 체계적이고 형식화된 표현으로 곧바로 계승되었다고 바르게 추정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비담마라는 방법 자체는 불교도들의 초기 논리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저자는 니까야에서부터 더 체계적이고 철학적인 아비담마 문헌에 이르기까지 불교철학의 논리적 측면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탐구한다. 저자는 특히 상좌부, 설일체유부, 독자부가 심도 있는 철학적 논쟁에 채용한 기법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저자는 빨리 원전들과 한역본들로 전해지는 산스크리트 아비달마 텍스트들을 면밀히 대조하고 있다.

저자의 연구 중심 테마는 불교 전통에서 사유나 추론의 한 방법으로 논리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직설로 여겨지는 법문들, 특히 대화들 중 일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대화체이지만 다른 일부는 논리적 원칙들이 구현되는 체계적인 방식의 논증들로 가득하다. 여기서 독자는 연구 텍스트가 접근 가능한 불교 전승의 최초기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명하기 위해서 저자가 다른 판본들의 한역 불전과 빨리본을 면밀히 대조하였음을 주목해야 한다. 만약 양자 사이에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대조 작업은 B.C. 3세기의 부파분열로 상이한 판본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존재했던 텍스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아비담마 후대 논사들의 산물아닌 경장속 '토론'의 직접적인 발전

저자는 부파분열 이후의 발전에 대한 논의의 초점으로서 기원전 3세기 초엽에 상좌부로부터 떨어져 나온 독자부가 신봉한 뿍갈라(puggala)에 대한 논쟁에 천착하고 있다. 그가 자세한 분석을 위해 쓴 원전들은 빨리본 〈까타왓투〉와 한역본 〈식신족론〉이다. 이 두 텍스트의 수집은 설일체유부의 공식적 분열 이전 두 부파들의 접근법 간에 존재하던 초기 상이점을 설명한다.

총 2부 12장으로 구성된 책은 제1부의 중심 테마는 아비담마 철학의 기원으로서 담마라는 용어의 다의성을 논의하면서 시작된다. 1부에서 저자는 자신이 아비담마 철학의 주요 특징들로 간주하는 것을 개괄한 다음에, 숫따 빠따까(경장 經藏 Sutta-pitaka)와 아비담마 빠따까(abhidhamma · 논장 · 論藏)에 나타나는 부처님의 사상에 대한 주제별 요강인 〈마띠까〉를 간략하게 서술한다. 이러한 정형화된 마띠까는 이비담마 빠따까의 발전에서 가장 고층을 의미한다는 것이 저자의 추정이다. 또한 아비담마라는 용어는 〈니까야〉와 〈아가마〉에서 철학적 개념을 정의한 교리를 지칭하는 것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고 결론을 내린다.

2부는 '논리적 견지에서 초기 불교도들이 사용한 논법의 스타일이 지닌 특징들이 분명해지는 곳' 인 대화형식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저자는 니까야와 아가마 자체에도 아주 잘 계발된 대화형식이 존재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니까야와 아가마에서 쓰인 '네 가지 질문에 대한 설명' 에 대해 엄밀히 분석하고 있다. 부처님이 반대한 육사외도 중 한 명인 산자야 벨랏티뿟따가 형이상학적 질문들에 답변한 '뱀장어처럼 종잡을 수 없는 애매모호한 교설' 에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저자는 초기불교의 추론 방식으로서 '딱까' 와 '담마딱까' 의 관계를 고찰한다. 담마딱까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사성제)에 입각한 추론' 으로 명확하게 밝혀진다. 이는 경들에 나타나는 논리적 기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이어진다.

저자는 후반부에서 B.C. 3세기 초반 상좌부에서 분립한 독자부의 보특가라론(補特伽羅論)을 반박하는 논쟁을 상세히 논하고 있다. 이러한 논쟁은 3세기 분열 이전의 핵심적인 공통분모로부터 나왔을 상좌부와 설일체유부의 상이한 판본들인 〈까타왓투〉와 〈식신족론〉에 빨리어와 한문으로 각각 보전되어 있다. 이러한 공헌은 이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는 뿍갈라에 관해 독자부와 벌인 논쟁에 대한 〈식신족론〉의 기여가 이제까지 제대로 주목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자는 11장에서 〈까타왓투〉와 〈식신족론〉의 엄격히 형식화된 논의들을 고찰한다. 여기서 진정한 '형식논리학' 이 불교 전통에서 처음 등장한다. 아쇼까 왕의 통치기에 서로 갈라진 두 부파가 전승한 이 두 텍스트의 부분적 일치는 엄격한 논증 절차로 형식화된 논의를 전개하던 관습에서 비롯된 형식논리학 이 발생한 시기가 B.C. 3세기임을 확인해 주는 듯하다. 본 연구의 백미는 이제까지 〈까타왓투〉의 기록과 충분히 비교되고 분석되지 않았던, 독자부를 논박하는 〈식신족론〉의 전모를 밝힌 것이다.

박재완 기자 wanihollo@hyunbul.com

원고지 500매로 압축한 부처님 말씀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

곽철환 지음 | 불광출판사 펴냄 | 1만2천5백원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일까" 〈불교길라잡이〉와 〈시공불교사전〉의 저자 곽철환이 평생 품어온 의문이다. 책은 저자 자신이 품어왔던 의문에 대한 답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방대함을 흔히 8만 4천 가지 경문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한국의 고려대장경만 해도 그 양이 엄청나다. 거기에 남방에서 보존해온 초기경전과 다양한 논서까지 더하면 가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다. 그러나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가르친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어떤 경전을 보더라도 그 대의를 알기란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불교의 핵심일까? 저자는 부처님의 방대한 가르침에서 한 구절 한 구절을 모아 단락을 만들고, 단락과 단락을 모아 한 편의 글이 되기까지 쓰고 읽고 다시 쓰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자신이 배우고 익히며 실천해온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을 정리했다. 그렇게 원고지 500매로 압축되어 나온 책이 〈이것이 불교의 핵심이다〉이다.

"불교는 고(苦)에서 시작해서 열반으로 마친다." 저자는 우리가 궁극에 도달하고 싶은 '열반' 은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소멸이라고 말한다. "중생의 탐욕이 끝이 없는 건, 에고의 속성이 '부족감' 이어서 결코 만족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분노는 '저항' 이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저항이고, 오고 가는 인연을 거스르는 저항이고, 허망한 에고에 상처를 받아서 치솟는 저항이다. 어리석음은 자신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매사에 얼마나 잘 분노하는지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다." 며 "따라서 열반으로 가는 길에 복잡한 교리 따위는 필요 없다. 에고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면, 탐욕과 분노, 어리석음은 자연히 사라진다"고 말한다.

저자가 방대한 부처님의 말씀을 핵심만 골라 정리한 이유는 중생 '열반' 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잡한 교리보다 열반으로 가는 길의 걸림돌인 삼독을 벗어나는 수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조금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온갖 헛된 생각과 불안이 엄습해온다. 모두 에고에 대한 집착이 불러일으키는 망상이다. 이미 알고 있지만, 마음은 결코 내 뜻대로 쉽게 평안해지지 않는다. 끊임없는 망상은 불교에 대해 많이 안다고 해서 잦아드는 개 아니다. 이 대목이 이번 책의 취지를 강조한다. '앎' 이 곧 '됨' 이 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지나치게 '앎' 을 추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이 책이 나온 '이유' 이다. 중요한 것은 마음 가득한 부질없는 생각과 감정을 소멸시킬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책은 그렇게 마음속에서 부질없는 생각과 감정을 소멸시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 '앎' 이라고 할 수 있다. 불교를 배우는 목적은 단지 이런저런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함이다. 마음의 작용을 파헤치는 복잡한 교리에 몰두하기보다 고(苦)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여 안심을 자주 누리라는 뜻의 압축된 텍스트이다.

책은 고(苦)는 무엇인지, 왜 일어나는지, 어떻게 일어나는 지를 설명하고, 고(苦)에서 열반으로 가는 4제, 고(苦)가 일어나고 소멸하는 열두 과정, 무상(無常)과 무아(無我), 공(空) 등으로 불교의 핵심을 짚는다. 그리고 열반으로 가는 세 가지 수행 3학과, 4염처(念處), 위빠사나, 선(禪)까지 열반으로 가기 위한 '수행' 의 핵심을 소개한 후, 탐진치에서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는 '4무량심(자비희사 · 慈悲喜捨)' 을 '실천' 으로 제시한다.

박재완 기자

"문제는 신심(信心)"

신심으로 여는 행복

우룡 스님 지음 | 효림 펴냄 | 6천5백원



경주 함월사 조실로 계시는 우룡 스님의 법문을 모은 책이다. 2013년 월간 〈법공양〉 1월호~6월호에 실은 글과 그 이전의 두 달 분 글을 함께 모아 엮었다.

불자 삶의 기초가 되는 신심이 무엇인지를 밝힌 다음, 윤회에 대한 확신, 믿음 깊은 공경과 기도 등의 내용을 다루었다. 그리고 불자들의 믿음과 실천의 원리인 불성과 무주상, 불자들이 꼭 실천해야 할 것들을 설하고 있다.

우룡 스님은 첫 장 '신심' 을 통해 신행의 기본은 '신심(信心)' 이며, 불자라면 모두가 신심부터 굳건하게 세우고 불교를 믿어야 한다는 말로 법문을 시작한다.

이어 '상념공경의 믿음과 기도' 에서는 불교신행의 근본바탕으로 '공경' 을 꼽으며, 참된 불자들의 삶이란 늘 삼보를 생각하고 공경하는 상념공경에서 시작된다고 전한다. 그 중 공경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관응 스님의 이야기를 통해 거룩하고 공손하고 경건한 신심의 '상념공경' 이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삼보의 가피와 불보살님의 자비에 대한 의심 없는 온전한 믿음을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성취로 향하는 지름길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윤회' 의 장에서는 인과응보에 대한 믿음의 퇴색을 경계하고 보이지 않는 반쪽 세상을 늘 돌아보며 살 것을 당부한다.

또한 네 번째 '부처님 오신 뜻과 불성' 의 장은 설산동자, 보시태자, 인욕선인 등 부처님의 전생 수행담과 탄생에 얽힌 인연설화와 함께 '불성을 망각한 채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스스로의 불성을 주춧돌 삼아 정진할 것을 담고 있다.

다섯 번째 장 '무주상하면 무한행복이' 에서 스님은 그릇된 마음을 다스리고 참된 마음을 유지하기 위해 먼저 아상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한다.

여섯 번째 장 '이 실천만은 꼭' 에서는 불자들이 단순히 절에 다니는 것만을 신행생활의 전부로 삼을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루어나가기를 염원한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작은 실천 큰 행복' 을 통해 가족을 향한 오체투지야말로 나의 욕심과 고집을 사라지게 하고 '나' 를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무아체득의 방법이자 확실한 수해의 첫걸음이라 힘주어 말한다.

박재완 기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66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신간! 바로보인 선문염송 제25권
세계 최대의 공안집인 선문염송, 전 30권중 25권 출간!
운문, 장경, 경청선사, 부 상좌의 공안이 실려 있다. 선문 사상 최초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한 칙도 빠짐없이 평하고 송하여 공안 참구의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


완전한 우리말 불공예식법


불공예식법이란, 우러러 공경을 다해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으로부터 불보살님들의 가피를 구하는 예법 등을 총칭함이다. 이러한 귀중한 예법들이 흡족한 우리말본이 없어서 아쉬웠는데, (중략) 50여 년 전 대구 보현사 시절부터 준비했던 원고를 정리하여 오늘에야 출간하게 되니 감회가 새롭다.
– 대원 문재현 선사 서문 중에서
이 시대에 맞는 석문의범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 처명)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전생서 열반까지 옛 그림으로 만나는 부처



옛 그림, 불교에 빠지다

조정육 지음

아트북스 펴냄

1만8천원

이 책은 스물아홉 살에 출가해서 여든 살에 열반에 든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와 발자취를 따라가되, '전생'에서 '열반'하기까지의 과정을 불화(佛畵)가 아닌 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사군자, 병풍화 등의 옛 그림으로 들려준다. 특이한 접근방식 만큼이나 여덟 개의 장으로 나눈 구성도 예사롭지 않다. 이 구성은 부처님 생애 요약본으로 통하는 〈팔상도(八相圖)〉에서 형식을 빌려왔다. 팔상도는 도솔천서 호명보살로 있던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상에 내려온 '도솔래의상' 서부터 쿠시나가라 사라쌍수 아래서 열반에 든 '쌍림열반상'까지 생의 중요한 장면을 여덟 개의 그림으로 압축한 불화다. 여기에, 부처님의 생에 추임새를 더하는 옛 그림이 포개진다. 부처님의 일생은 다시 옛 그림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한마디로 이 책을 집약하면 위대한 부처님의 생애와 옛 그림이 상부상조하는 가운데, 한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은 부처님과의 만남을 드라마틱하게 펼쳐 놓았다.

사실 옛 그림과 부처님과는 무관하다. 옛 그림이 부처의 삶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불교의 가르침을 소재로 한 것도 아니다. 이런 조합은 낯선 방식의 글쓰기이다. 그래서 혹자는 부처님 일대기를 옛 그림으로 조형한 스토리텔링 방식이 뜨악할 법하다. 이는 저자의 전공이 옛 그림인 탓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따로 있다. 불법(佛法)의 세계를 불화로만 설명하던 좁은 테두리를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오래전부터 불교서 인생 진리를 구한 저자는 꾸준히 불교 공부에 매진하며,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석가모니 부처님 처럼 진리를 깨닫기도 쉽지 않지만 깨달은 진리를 실천하며 평생을 바치기는 더욱 어렵다"며 "쉽지 않은 일을 45년 동안 오롯한 마음으로 실천한 이가 바로 부처님"이라고 존경의 의미를 표한다. 저자 역시 부처님처럼 살기 위해 노력중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그동안의 정진을 바탕으로 옛 그림을 조명한다. 부처님의 각 생애에 부합할 만한 그림들을 엄선해 그 의미를 깊고 넓게 만든다. '전생'과 정선의 〈단발령망금강〉, '탄생'과 〈왕세자탄강진하도〉, '생로병사'와 신윤복의 〈미인도〉, 강세황의 〈복천오부인상〉, '출가'와 〈파교설후〉, '고행'과 〈석가모니 고행상〉, '깨달음'과 이인문의 〈강산무진도〉, '전법'과 안견의 〈몽유도원도〉, '60아라한'과 이인상의 〈송하수업도〉, '업보'와 김득신의 〈벼타작〉, '열반'과 〈일월오봉도〉식이다.

저자는 책에서 진경산수화와 본생담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피력한다. "진경산수화의 전개 과정은 '본생담'의 그것과 닮아 있다. 위대한 분에 대한 존경심서 하나의 '본생담'이 출현하자 이에 자극 받은 다른 이야기가 뒤를 이었고 마침내 500여 종이 넘는 풍부한 이야기가 꽃핀 것과 같다. 정선이 〈단발령망금강〉에 구름을 넣은 이유는 속세와 구분되는 금강산의 신령스러움을 드러내고자 함이었다."고 설명한다. 이 말에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야기는 본생담+겸재 정선의 진경산수화+현재의 우리로 긴밀하게 짜여 있다. 각 글이 목표로 삼은 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저자는 화가만큼이나 애틋하고 안목높게 그림을 가이드한다. 가령 이렇다. "조희룡의 〈홍백매8곡병〉은 노목에 대한 예찬이다. 오랜 세월을 견뎌낸 노목의 껍질은 농투성이의 손바닥처럼 거칠거칠하다. 조희룡은 용 비늘처럼 거친 노목의 질감을 드러내기 위해 나무속을 비웠다. 대신 거친 껍질 쪽에 농담이 다른 선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칠함으로써 세월을 표현했다."



통도사 영산전 팔상도

옛 그림과 불교의 행복한 동행

전3권으로 완간될 '불법승' 시리즈

이런 실감나는 묘사는 부처님의 생을 언급할 때도 이어진다. 저자의 글에는 자신의 체험이 저변에 깔려 있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진정성이 가득하다.

저자는 "자비심은 구도심보다 위대하다. 자비심이 바탕이 된 전법은 출가만큼 중요하다. 출가가 '위대한 버림'이었다면 전법은 '위대한 선택'이다. 석가모니 부처의 위대한 선택에 의해 우리는 사문 고타마가 겪었던 고생을 겪지 않고서도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무명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석가모니 부처님과 똑같은 해탈의 즐거움을 누리게 됐다"고 고백한다.

저자의 진심 속에서 우리는 옛 그림도 익히고 부처님의 일생도 접하게 된다. 일석이조다. 그런데 저자는 한 걸음 더 나간다. 이들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저자의 삶과 만나서, 올바르게 사는 법을 숙고히 한다.

옛 그림과 부처의 발자취와 통하는 저자의 개인사는 먼 과거사인 옛 그림과 부처의 생을 현재진행형으로 만든다. 그러면서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옛 그림의 메시지이자 부처의 가르침임을 일깨워준다. 만약 저자의 개인사가 빠지면 이야기는 '현재' 없는 과거사가 되고, 우리와는 무관한 '그들만의 이야기'에 머물게 된다. 그만큼 개인사의 노출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가정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사찰 요리 61선

걸구쟁이네 자연음식

안서연 지음 | 이가서 펴냄 | 1만4천원



요즘 종편 프로그램중에 인기가 있는 것이 있다. 바로 '먹거리 X파일'이다. 먹거리는 넘쳐나지만 정작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요즘과 잘 맞아 떨어지는 기획때문이다.

이 책의 저자는 이 프로그램의 착한 식당 5호점에 선정된 '걸구쟁이네' 음식점 대표다. 이 식당은 2012년 국산 채소로만 차린 착한 나물집으로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에서 철저한 검증 후 착한 식당으로 뽑혔다. 선정 당시 박연경 푸드컨설턴트는 "냉이 같은 흔한 식재료로 상을 차렸다. 그런데 반찬들 하나하나가 원재료의 맛을 잘 살려냈다. 주인의 내공이 느껴진다"고 평했다.

이 책은 오신채, 육류, 해물 없이 영양도 맛도 챙기는 사찰식 요리법 61가지를 소개하고 있다. 화학조미료도 일체 사용하지 않고 집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나물요리부터 효소, 장아찌, 주전부리 등이다.

저자가 소개하는 사찰음식 요리법은 몸과 정신을 이롭게 하며 바쁘게 사는 현대인에게 수묵화의 여백처럼 잠시 쉬어가게 만든다. 인스턴트 음식과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에 길들여져 처음에는 입에 안 맞고 낯설 수도 있지만, 오염되지 않은 재료 본연의 맛을 알아가면서 결국은 입도 즐겁고 몸도 편해지는, 더불어 마음도 차분해지는 음식들이다.

사찰음식은 오신채, 즉 매운 채소인 파, 마늘, 달래, 부추, 흥거(산마늘 종류)를 쓰지 않고, 육류와 어류를 사용하지 않는다. 육류와 어류는 계율로 살생을 금했으니 당연한 것이고, 오신채는 수행자의 화를 일으켜 동하게 하므로 예부터 쓰지 않았다. 음식에는 조급해지고 거세어지며 참지 못하여 쉽게 동하게 하는 동적인 음식과 그렇지 않은 정적인 음식이 있는데, 정적인 음식은 동적인 음식에 비해 편안함이 있고 소화가 잘되는 자연스러운 음식이다. 사찰음식은 바로 이 정적인 음식으로 몸과 정신을 이롭게 하는 건강한 섭생 음식인 것이다.

걸구쟁이네 사찰음식은 공기 좋고, 오염되지 않은 산야에서 구한 제철 나물에 최소한의 간만 해 맛있게 무쳐내거나, 약성 좋은 산야초로 효소를 만들고, 장아찌를 담근 것들이다.

전이나 부각 같은 주전부리와 도토리 된장 수제비 같은 별미 상차림도 있다. 익숙하지 않아 어렵게 느낄 수 있고 특별한 음식이라 여길 수 있지만, 결코 어렵지도 않고 값비싼 재료를 사용하는 요리들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자연음식, 사찰음식에 쓰는 재료들의 특성과 약성을 알아보고, 재료 손질법부터 재료별 조리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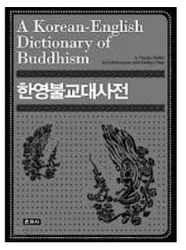
총 4부로 구성되었는데, 제1부에서는 나물 요리 조리법과 함께 나물 손질법이라든가 보관법, 나물을 데칠 때 노하우, 나물의 특성에 따라 어떤 조리법과 양념을 쓰면 좋은지, 제철 나물 등을 알려준다. 또한 제 2부 에서는 효소를 비롯한 각종 장아찌 담그는 법과, 장아찌 담글 때의 유의사항, 활용법 등을 알려주고, 제 3부 에서는 조림이나, 강정, 찜 같은 요리의 조리법과 조리법에 따라 양념 쓰는 노하우, 도토리 된장 수제비와 콩나물 버섯 밥과 같은 별미 요리의 조리법을 설명해 준다. 마지막 제 4부는 부각, 전, 총떡, 장떡 같은 심심풀이 먹거리를 모아 소개하고, '걸구쟁이네'에서 내고 있는 무말랭이 차와 산야초 차에 대해 알려준다. 각 가정서 해 먹어 보면 충분히 착한 식단이 될 수 있는 레시피들이다.

김주일 기자

12000여개의 방대한 표제어 설명 … 국내 한영불교사전 중 최대 규모

A Korean-English Dictionary of Buddhism: 한영불교대사전

찰스 뮬러 · 전옥배 공저 | 운주사 펴냄 | 9만원



사전은 한 분야의 학문적 수준은 물론 한나라의 출판 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다. 그 자체만으로도 동시대의 학문적 수준을 가늠하는 총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문의 영역에서 다양한 형식과 수준 및 관점을 가진 사전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관점서 본다면, 한국 불교학계는 더 많은 사전이 필요하다. 특히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은 기제로서의 한영 불교영어 사전은 절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12,000여 개에 이르는 방대한 표제어, 그에 대한 다양한 측면의 상세한 설명, 표제어의 의미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본의미 등으로 구성된 이 사전은 전 세계 50여 불교학자들이 참여한 전자불교사전을 토대로 편집된 한영불교사전이다. 이 사전의 모태는 동경대 뮬러 교수가 운영하는 인터넷전자불교사전(Digital Dictionary of Buddhism)이다. DDB는 뮬러 교수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불교 관련 학자들이 공동 참여하는 세계최대의 전자불교사전이다. 현재는 약 6만여 개의 표제어가 올라와 있다. 이번 사전에서는 전자사전서 불교연구나 불교이해에 필요하다고 판단된 표제어를 우선 추출해 정리하고, 아울러 한국불교와 관련된 표제어들을 보충하는 형식을 취해 편집 보완했다. 표제어는 주로 불교 교리, 사상, 역사, 문헌 등과 관련된 용어들이며, 특히 한국불교와 관련해서는 주요 인물, 사상, 사찰, 문헌, 문화 등을 포괄적으로 다뤄 한국 사전으로서의 특색을 살렸으며, 국내에서 출간된 한영불교사전 중 최대 규모다.

불교계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가한 해설은 해당 표제어에 대해 피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설명을 넘어 근원적인 해석을 해 놓았다. 즉 학문적이거나 학술적인 설명은 전문가들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을 위한 사전이다. 각 표제어 및 설명에서 산스크리트어를 표기해 놓은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기본의미(Basic meaning)이다. 표제어의 의미를 한눈에 보여주는 기본의미를 별도로 표기해놓아 상세히 설명을 보기 전에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비전문가들이나 상세한 설명을 읽기에 버거운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물론 기본 의미는 각 표제어가 갖는 여러 것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를 위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읽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전서 또다른 특징은 고유명사에 대한 영어식 풀어쓰기나 개념에 대한 풀

50여 학자 참여한 전자사전 토대

표제어 해석 위한 '기본의미' 표기

이를 한자/한글을 병기해 놓아 우리나라 독자들을 비롯한 한자문화권 이용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배려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자문화권 독자들이 이 사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한자 총획 색인을 부록으로 첨부했다. 이런 세세한 배려가 아니더라도 사전의 편찬은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 책 역시 기획부터 출판까지 7년여 시간이 소요됐다.

이번 사전 편찬에는 두 학자의 의기투합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바로 찰스 뮬러 동경대 교수와 전옥배 한국불교번역연구원장이다. 현재 일본 동경대 인문사회 대학원 교수인 찰스 뮬러 교수는 10여 년간 원효 사상에 빠져 원효의 여러 저술을 영어나 일본어로 된 논문으로 발표했다.

동국대 대학원 불교학과를 수료한 전옥배 원장도 현재 한국불교번역연구원(KIBET)의 책임자로 재직하며 불교 영역 및 통역 사업과 국제학술대회 등의 기획에 주력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공동 저자들이 함께 웃고 있다. 왼쪽부터 전옥배 원장과 찰스 뮬러 교수.

禪農敎團 宗務法人 우리불교 曹溪宗 종도모집

입 종 안 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덕리 209-8번지 광덕사

◦ 총무원 : 전화 041)584-4153 / Mobile 010)6478-1569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작금 세계불교문화가 수직적 종신제(교황적 이념)에
집착되어 불교문화의 수평적(평등이념)
지위를 잃어 가는 말세적 불교 문화의 분열상을
보면서 불교 국가간 종단간 소통과 교류 및
연대만이 더 큰 불교세계를 이루고 소멸되어가는
불교 문화의 재 창달의 길이라 여겨
세계불교 연합체를 만들고자 합니다.
(군소 종단의 적극 동참을 희망 합니다)

문의 041)584-4153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1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조실)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붓다의 물리학

9. 물성의 그룹들

생성물질의 상호관계 공부… 통제 벗어나자

물성들은 단독으로 일어나지 않고 항상 집단적으로 그룹들로 일어난다. 단단함 즉 땅 성품이 있으면 반드시 그 외의 세 가지 사대와 또한 색상, 맛, 냄새 그리고 영양소도 항상 있다. 이것들은 8원소 기본물성들이다. 이 나누어 얻을 수 없는 8원소 기본 물성들로만 구성된 물질들 그룹을 '순수한 8원소 모임'이라고 한다.

몸의 순수한 8원소 모임은 마음, 온도 또는 영양분에 의해 생성되며, 몸 밖의 순수한 8원소는 오직 온도에 의해서만 만들어 진다.

업에 의해 생성된 물질의 그룹들은 최소한 9원소 물성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나누어 얻을 수 없는 8가지 물성들과 생명기능(지위띤드리야)으로 이런 그룹을 '9원소 모임' 이라 한다. 시각기관, 청각기관, 후각기관, 미각기관, 몸감각기관, 심장토대, 여성기능, 남성기능은 업에 의해 생성되는 다른 종류들의 물성들로 이들 물성들 각각은 나누어 얻을 수 없는 8원소 물성들과 생명기능이 함께 일어나서 그들은 10가지 물성들 그룹 즉 10원소 모임으로 일어난다. 그런 10원소 모임의 모든 물성들은 업에 의해 만들어 진다. 그래서 눈-10원소, 귀-10원소, 코-10원소, 혀-10원소, 몸-10원소, 심장-10원소, 여성기능-10원소 그리고 남성기능-10원소라고 부른다. 몸-10원소에 관해서 말하자면 이것은 몸 감각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생기고 사라지고 한다.

업은 재생연결의식(빠띠산디찟따)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물질모임들을 생산한다. 인간의 경우에는 업은 그 순간부터 몸-10원소, 성(남성 또는 여성기능)-10원소, 심장토대-10원소 이 세 가지를 생산하며, 일생동안 이들을 만든다. 눈-10원소와 귀, 코, 혀-10원소는 생의 첫 순간에 만들어지지 않고 나중에 만들어 진다.

재생연결의식의 마음은 물질을 만들지 않는다. 재생연결의식 바로 다음에 일어나는 소위 생명체연속의식(바왕가찟따)은 물질을 만든다. 마음 한 순간은 극히 짧은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즉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지는 세 단계다. 마음은 일어나는 순간에 물질을 만든다. 왜냐하면 이 때 마음의 힘이 세기 때문이다. 머무는 순간과 사라지는 순간은 힘이 약해 물질을 생산할 수 없다. (청정도론 20, 32)

재생연결의식에 이어 일어나는 마음, 생명체연속의식이 일어날 때 그것은 순수한 8원소를 만든다. 그 후에 마음은 순수한 8원소 이외에 몸짓 암시와 같이 일어나는, 말 암시 같이 일어나는, 그리고 항상 함께 일어나는 세 가지 물성인 경안성, 유연성, 적응성과 같이 일어나는 그룹들을 만든다. 이 세 가지 물성도 몸짓의 암시나 말의 암시와 함께 한 그룹으로 일어난다. 말의 암시의 경우에는, 소리도 말의 암시와 같이 한 그룹으로 일어난다.

일생동안 마음은 물질을 만들어 내지만 모든 마음들이 다 물질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재생연결의식은 물질을 만들지 않는다. 마음들 중에 물질을 만들지 않는 것에는 안식, 이식 등 오식도 그렇다. 안식은 단지 보기만 하고 다른 능력이 없다. 어떤 마음들은 몸짓의 암시나 말의 암시 이외의 물질을 만들 수 있고, 어떤 마음들은 이 두 종류의 암시를 만든다.

마음들 중에서 두 종류의 암시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욕계의 선업마음들이다. 그래서 선정(자나)을 얻었거나 도와 과의 지혜를 깨달은 마음들에서는 못한다.

온도(열 성품)는 몸 안의 물성그룹들을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몸밖에 물성의 그룹들도 만들 수 있다. 바깥 물질의 경우에는 그것은 '순수한 8원소' 와 소리와 같이 하는 그룹들도 만들 수 있다. 몸이 아닌 물질들은 업, 마음, 영양분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고 전적으로 온도에 의해서만 만들어 진다. 우리가 바위나 식물을 볼 때 그들이 지속된다고 보지만, 그들은 온도에서 비롯된 물질들로 구성되어 항상 끊임없이 생기고 사라지고 하고 있다. 물질들은 끊임없이 계속 교체되고 있지만 우리는 물질들이 사라져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몸의 물질그룹들에 있어서, 온도는 순수한 8원소와 또 경안성, 유연성, 적응성과 함께 일어나는 그룹들도 만든다.

우리가 보았듯이, 업은 재생연결의식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생명체에서 물질을 만든다. 업은 마음의 세 순간-일어나는 순간, 머무는 순간, 그리고 사라지는 순간- 각각에서 물질을 만들어 낸다. 업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들의 각 그룹에는 사대의 하나인 열이 있는데 이것이 재생연결의식이 일어나는 순간이 아닌, 유지되는 순간에 새로운 물질을 만든다. 열 성품은 그 유지되는 순간동안 다른 물질들을 만들며, 일어나는 순간에는 물질들을 만들 수 없다. 그것은 순수한 8원소를 만들며 생성된 순간부터 일생동안 그것이 유지되는 순간에 물질들을 만들어 낸다.

삼켜진 음식 속에 있는 영양분은 물질들을 만들어 내고 그것은 몸을 지지하고 유지시킨다. 영양분에 의해 생성된 물질들은 생명체의 몸에서만 일어난다. 영양분은 순수한 8원소를 만들고 또 경안성, 유연성, 적응성과 함께하는 물성그룹들도 만든다.

영양소는 각 물성그룹에 있는 8원소 기본물질의 하나다. 영양소에 의해 발생한 8원소들에 있는 영양소는 다시 영양소를 가진 8원소를 만들고 이와 같이 해서 여러 번의 8원소들의 발생을 연결시킨다. 〈청정도론〉(20, 37)에 의하면 하루에 섭취한 영양소는 이 같이 몸을 7일간 동안 유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업, 마음, 온도 그리고 영양분에 의해 생성된 물질그룹들은 서로 상관되어 서로서로 유지시킨다. 만약 업만이 물질을 생성한다면 몸은 계속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 인간계 이외에 다른 존재계 있고
> 선처와 악처에 태어남은 업의 결과
> 인간계에서는 업에 의해 만들어진
> 눈 · 귀 · 코 · 혀 · 몸 감각 10원소가
> 다른 지각대상들을 지각한다
>
> **음식 영양분서 8원소와 물성그룹 발생**
> **8원소는 반복해서 8원소 만들어 연결**
> **하루섭취 영양소는 7일간 몸 유지시켜**
>
> **업·마음·온도·영양분이 물질 연동**
> **업 홀로 물질 생성한다면 몸 존재 못해**

표1. 업에의해 만들어지는 10원소

종류	눈 십원소 깔라파	몸 십원소 깔라파	성 십원소 깔라파	생명 구원소 깔라파	심장 십원소 깔라파
질	투명	투명	불투명	불투명	불투명
기원	업	업	업	업	업
특징	빛에 민감하다.	접촉에 민감하다. (땅,불,바람)	성을 결정한다.		마음과 마음부수를 지원한다.
1	땅	땅	땅	땅	땅
2	물	물	물	물	물
3	불	불	불	불	불
4	바람	바람	바람	바람	바람
5	색깔	색깔	색깔	색깔	색깔
6	냄새	냄새	냄새	냄새	냄새
7	맛	맛	맛	맛	맛
8	영양소	영양소	영양소	영양소	영양소
9	생명기능	생명기능	생명기능	생명기능	생명기능
10	눈 투명요소	몸 투명요소	성 요소		심장요소

〈청정도론〉(XVII, 196)에서는 이렇게 적고 있다.

1. "…하지만 그들은 이렇게 서로 굳건하게 연결되어 비록 바람에 지쳐 초라해졌지만, 갈대다발들이 사방에서 함께 지탱하듯이 쓰러지지 않고 견딘다. 또 비록 대양 한가운데 어느 곳의 파도에 지쳐 초라해 졌지만 지지할 것을 발견한 부표 잃은 보트처럼, 일년, 이년,…백년, 수명이 다하도록 가치가 다 없어질 때까지 버틸 수 있다."

〈앗타살리니〉 (1, 1권, 3부, 1장, 84)에 의하면 몸짓의 암시와 관련해 마음에 의해 생성된 물질그룹들은 업, 온도, 영양분에 의해 생성된 물질그룹들과 연동되어 있다.

2. "마음에 의해 생성된 몸 물질이 움직일 때, 다른 세 가지 원인들에 의해 생성된 몸 물질도 움직일까, 혹은 안 움직일까? 후자는 전자와 똑같이 움직이며, 언제나 따라간다. 흘러가는 물에 버려 진 막대기, 풀 등이 물을 따라 가고 또 서고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그래서 완전한 과정이 결탁된다…"

업, 마음, 온도, 영양분 네 가지 요인들에 의해 생성된 물질과 그들의 상호관계에 대한 공부를 하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몸의 현상에 대한 조건들의 복잡성과 기능들을 알 수가 있다. 우리 몸을 통제하는 자아가 없다고 우리에게 상기시켜 줄 것이다.

모든 종류의 물질들이 생명이 탄생하는 다양한 존재계에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인간계 이외에 다른 존재계가 있다. 선처와 악처에 태어나는 것은 업의 결과다. 인간계에 태어나는 것은 선업의 결과다. 일생동안 선업과 불선업-즉 오식을 통해 유쾌한 대상과 불쾌한 대상을 인식하는-의 결과가 발생할 조건들이 있다. 인간계에는 업에 의해 만들어진 눈, 귀, 코, 혀, 그리고 몸 감각 10원소가 일어나서 다른 지각대상들을 지각하게 된다.

감각인상에 집착하는 것의 불이익을 잘 아는 사람들은 높은 정도의 고요함을 개발할 바른 조건을 축적시켜왔기에 선정단계들을 얻을 수 있다. 선정의 다양한 단계들의 결과에 따라 더 적은 감각인상이 일어나거나, 결코 일어나지 않는 더 높은 존재계에 탄생하게 된다. 더 높은 존재계 일부에서는 코의 감성, 혀의 감성, 몸의 감성과 성 등의 10원소들은 없으며, 눈감성과 귀감성, 심장토대 등의 10원소들과 생명기능 9원소(생명기능과 8원소 기본물질)만 일어난다. 영양분에 의해 만들어지는 물질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세계에서는 살기 위해 음식이 필요하지 않는다.

표2. 물질의 원인이 되는 마음들

마 음	마음의 수	마음에서 생긴 물질	자 세	암 시	미 소
탐욕에 뿌리 한 것-기쁨함께	4	+	+	+	+
탐욕에 뿌리 한 것-평온함께	4	+	+	+	-
성냄에 뿌리 한 것	2	+	+	+	-
미혹에 뿌리 한 것	2	+	+	+	-
전오식	10	-	-	-	-
받아들임	2	+	-	-	-
조사	3	+	-	-	-
오문전향	1	+	-	-	-
의문전향	1	+	+	+	-
미소짓는	1	+	+	+	+
욕제 善 - 기쁨함께	4	+	+	+	+
욕제 善 - 평온함께	4	+	+	+	-
욕제 과보	8	+	-	-	-
욕제 작용 - 기쁨함께	4	+	+	+	+
욕제 작용 - 평온함께	4	+	+	+	-
색계 善	5	+	+	-	-
색계 과보	5		-	-	-
색계 작용	5	+	+	-	-
무색계 善	4	+	+	-	-
무색계 과보	4	-	-	-	-
무색계 작용	4	+	+	-	-
출세간	8	+	+	-	-
신통지	2	+	+	-	-

높은 존재계 중 하나에는 마음이 없고, 물질 밖에 없다. 여기에는 눈, 귀, 다른 감성, 성, 그리고 심장토대의 이러한 10원소들은 없다. 소리는 일어나지 않고, 마음이 의해 생성되는 물질들도 없다. 왜냐하면 마음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업은 생명기능 9원소를 생의 첫 순간 생성하고 그 후에 온도도 물질을 생성한다.

더 높은 존재계의 일부에서는 단지 마음만 발생하며 그래서 그런 세계에서는 물질은 일어나지 않는다.



위오기(공주대 경영학과 교수)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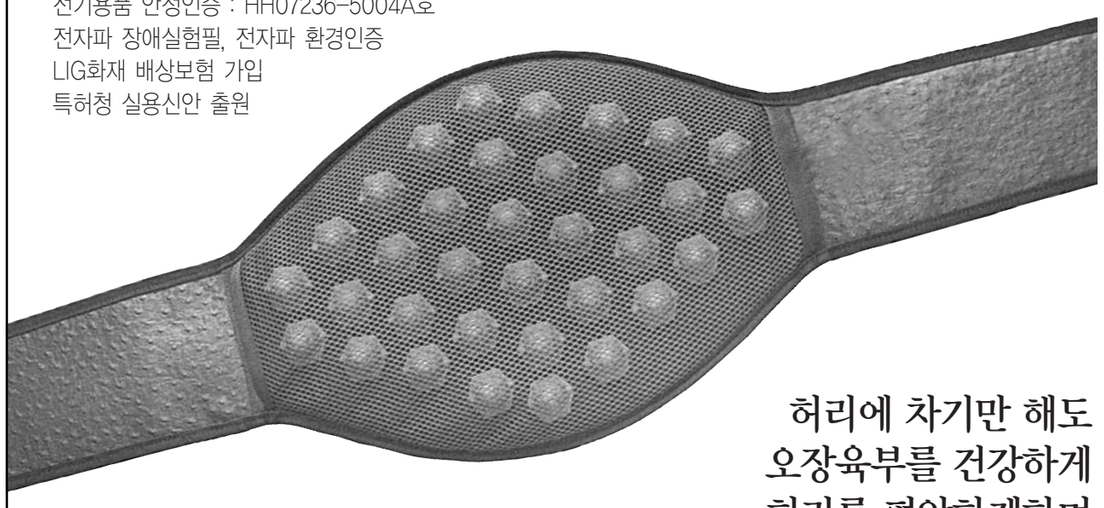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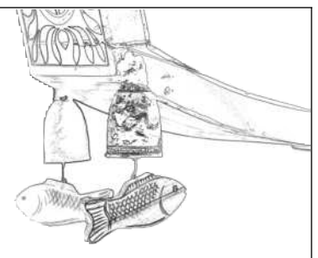
생 활 안 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작은 선행이 돌아오지 않으리라고 하찮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떨어져 큰 항아리를 가득 채우듯
작은 선행이 쌓여 큰 공덕을 이루리라.

- 법구경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 (부산)

물상 역학 비법전수

일주일만 배워도 상담가능
사찰운영에 필요한 모든 방편전수
스님되실분, 사찰운영하시는 분
-사주, 궁합, 이사, 택일, 작명
※조상영가 배워 천도재 할 수 있음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부산) 010-3591-5277

수 맥

삼일단기 교육생 모집
수맥탐사 이론실기
* 교육과정 이수 후
* 개인사업자 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영남범음의 그윽한 소리

로 염불,집전 해 드립니다.
사찰 각종 제 및 행사
대웅전 불사 원만 성취 발원
영남소리, 사물, 바라,
작법무료전수
055)744-5300
010-5243-3587
경남 진주 여여암 법일 합장

허리병 고치는 법

저서 : 허리병 7일만에 고치는 요법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출원
아픈분 및 배울분은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네이버 허리선생 혜경
50년전통 010-3829-7582

범음범패 학인모집

불교의식 전문
초급, 중급, 고급반
실전위주 최단기간 교육
사찰행사 접수 받습니다
(49재, 천도재, 회심곡 등)
법 선 암 (부산, 통영)
010-6569-1010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백발백중 귀장술

초보자 환영
쉽게보는 원판제공
다음. 네이버에서
"귀장술 원판" 검색
외울 필요 없음
010-8558-2345



천상을 여는 지장대사

원력으로 조상천도,
빙의퇴마,천병,신병,
우울증,틱장애,
가정우환, 병명없이
치유못한 환자 치유
(극락암)
010-5152-1222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도)
031)585-4626

몸이 자주 부으시는 분, 치유해 드립니다

(배우실 분)
010-4411-6636

최 면 퇴 마

-전생체험, 심리치료 7회완성
-입문반 3회완성 40만
-실전반 4회완성 60만
-수강료 특별할인,
최면의 대중화
(부산) 010-9342-9794

기문둔갑 강의

역학을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기문비법을 전수합니다
사업자, 성패에 대해서, 학업생 학과
선택, 남여결혼문제, 부부문제 등
세밀하고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님직접 강의. 수시모집
010-3544-9777

빙의 기치유 한방쑥뜸

대구 심향사(약사도량 : 법화경)
전통사경,사불,현대사경,작품사경
사주 · 인생상담
부처님 진신사리 봉안도량
다음카페 : 심향사 사경원
053)244-9995
010-3677-3845 보성 합장

비구입니다 화주보살님 인연을 기다립니다

011-850-0176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북지역 천년고찰)
010-8559-9400

명리학(사주철학) 지도

(1)명리학+성명학
(2)완전기초부터 자격증
합격까지 완벽한 지도
(3)주1-2회, 3-4개월 완성
(4)경력34년, 병제철학원장
(5)사주,작명,개명,택일,모든상담
010-3695-1626
서울 9호선 가양역 10번 3분거리

달마도 40×60㎝, 한점 5천원

불사하시는 스님들을 위하여
선물이나 불사용으로
청암 달마도를 그려서
저렴하게 드립니다
010-2953-8770
농협 919-02-137213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노보살님 원함)
02)917-3363

디자인 결혼정보

초혼, 재혼
처음같은 마음으로 인연을
맺어 드리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결혼,사랑행복,사랑미래
결혼은 인생의 디자인입니다
010-5230-3671
02)816-3671
서울 성북구 정릉4동 보국문로 195
반야도 합장

불사 준비하는 60세 비구입니다

절,신축,수리,조립식 등
화재예방, 스프링쿨러
저렴하게
시설해 드립니다
010-4570-4899
010-7321-0404

신병 알콜중독자, 정신이상자를 도력으로 치유하는 육관도사입니다. 정신병원 환자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출장치유해드립니다
소개인도 해주시면
사례하겠습니다
신병치유 육관도사
010-3123-1325

기도의 달인 대주스님

-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리는 날짜와 시간이 서로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4거리 백선사

☎ 032)664-0048 / 011-741-0867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1-772-4606 제행 합장
서울 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 출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상운사)
033)482-3382
010-3764-3661

불교문화시설 가입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인비록人秘錄 - 죽어서 가는 길

도서출판 대도대한 펴냄 / 값 15,000원 / 전화 063)643-7285
"엄마 뱃속에서의 10달은 태어나서의 100년을 준비함이요,
살아서의 100년은 죽음 후의 1000년을 준비함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종교를 가졌든, 어떤 도를 닦든, 착하든 나쁘든
그 누구도 사후세계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 바르게 사후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판매서점 :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알라딘, 예스24 등)

강력한 삶의 변화 원네스 치유명상

1 부모, 자녀,부부,관계개선 치유명상
* 가족세우기(지도자과정, 특별세션, 개인세션)
2 하나로 깨어나기 명상
* 성장과 성공을 위한 깨달음

네이버카페 - 원네스 가족세우기(참조)
신청문의 : 혜산스님 010-4114-6600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천년고찰 범어사 말사 국청사에서 50~60대 신심있는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금정구)
051)517-5003
010-9663-5003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극락납골 봉안당

- 천도대도량의 쾌적한 법당형 납골 봉안당
- 도심사찰 최초! 영대네거리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
- 설, 추석, 기일마다 지극정성으로 축원해드립니다.
- 언제나 염불, 기도 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상조서비스 - 후불제 상품(163만원)으로 장례발생시 바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053-474-8228, 010-8582-7034
※ 예비수행승(행자) 모집 ☎ 010-9562-8228

영 가 찾 는 법 강 좌

간단하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 왕초보반, 영가반(철학관, 포교원 운영자 등)
- 강 의 내 용 - 초 보 반 : 쉬운 오행풀이로 듣기만 해도 기억할 수 있음
- 영가특강반 : 한 맺혀 간 조상, 조상(귀신)의 발동을 아는 법 등

※ 수시 상담 및 접수를 받고 있으니 해당지역에 문의 바람

백암역리원 02)597-1101. 010-9150-2284 (1.9호선 노량진역 5번출구 동작구청 옆)
대 구 출 강 053)944-3272. 010-9885-8424 (1호선 아양교역 2번출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통영의 아름다운 경관 편백나무 숲으로 어우러진
웰빙의 조계종 사찰에서 기도하며
가족처럼 지내실 공양주 한분을 모십니다.
- 보시는 월 130만원 - 개인방사
- 2박3일 휴가, 기타사항은 상담 후 결정합니다.

상담전화 055)645-5324 (24시간상담)

탈 종 공 고

- 사찰명 : 계룡사
- 주 지 : 지연(장복원)
- 주 소 : 경남 거제시 고현동 계룡로 7길 24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1일

사단법인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풍수계 최초 밝혀낸 혈맥의 신통발복력!

-반드시 발복흥성유지되는 혈맥생기터-

- 명당은 반드시 땅속혈맥 갖춰야 진터
- 맥과 혈 짚어내는 비술득통
- 도승들이 펼친 산수혈맥주술법 도통

흥망성쇠 좌우하는 양택 음택!!

- 길터, 흉터 출장감정
- 명당점지, 묘이장 화장 상담

▶ 절암자 사업장(공장,매장) 점포 사무실 주택 묘지 납골터 수목장 등

※ 우리터문화는 자연과학이자 생명공학이다.
※ 태극혈맥터에서 인물나고 부자되고 가문이 흥성한다.

태극산수혈맥지리원
덕숭산인 지천공
H·P 010-4600-7399
절로암토굴 041)337-7399

빙의 퇴마 전문가 과정 강의

1 빙의환자는 천도재나 구병시식을 해도 해결되지 않으며 반드시 퇴마 후 퇴마한 영가와 조상천도재를 해야 합니다.
2 이십여년간 연구하고 퇴마해 온 경험과 비법으로 오로지 제행스님만이 할 수 있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3 상담에서 퇴마까지 실제로 사용한 강의로 배우면 누구나 퇴마 전문가가 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제행스님 직접강의 및 퇴마, 사주, 작명, 예약상담과 출장퇴마 합니다.
▷ 책 구입 : 농협 552-01-047918 비룡정사 (정가 13,000원)
- 참가비 : 200만원 (정원 5명 선착순. 통화 후 접수)
특전(1) : 수강생 전원에게 1회씩 무료출장 퇴마해 줌으로 해서 배운 되로 하면 된다는 확신과 자신감을 주겠습니다.
특전(2) : 배우려는 의지만 있다면 퇴마를 할 수 있게 끝까지 책임지도 하겠습니다.

(개인지도 수시모집 : 퇴마 심리상담. 사주(기문둔갑). 작명)

장 소 : 서울 서초구 방배1동 923-6번지 아크로타워 (주차가능)
서울지하철 2호선 방배역 3번출구, 7호선 내방역 3번출구
전 화 : 011-772-4606 제행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화요일 (팩스, 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화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거짓말하지 마라. 자기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시켜 거짓말하거나 수단을 써서 거짓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불설범망경 -

사 찰 안 내

- 아름다운 토굴 -
(자급자족 가능)
- 위치 : 경남 고성
- 총부지: 970평, 건물 : 4동
- 청정지역지정, 자연산 약초 (봉삼, 비비초, 산초, 제피, 엉개, 산나물 등등)
- 요양처 최적지(환우 있는분)
- 가액 : 1억 8천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사 찰 -
- 위치 : 부산 바다 전망 좋은 사찰
- 대지 : 2,700평
- 건물 : 법당 50평, 요사채, 산신각, 다실, 주지실
- 텃밭 : 300평
- 가액 : 6억 8천만원

※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사 찰 전 문
연 산 공인중개사사무소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사찰(급)안내
- 용인시토굴 양도
- 임시법당 15㎡, 요사채 79㎡
- 토지900㎡ 양지IC 부근
- 현재는 주택이나 사찰로 가능함
- 양도금액 : 3억 5천원 조정 가능함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010-7347-1010 (사찰전문)
010-3426-9393(사찰경매전문)

사 찰 안 내
- 위치 : 지리산 청학동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계곡접 해발 700미터)
- 대지 1,815평, 부지조성완료, 정동향
- 법당 목조30평, 산신각 목조7평, 요사채25평, 창고1동, 해우소 1동
- 심야전기 및 전기판넬사용.
- 노인복지, 요양원, 연수원, 선원 등 최적임
- 가액 : 13억

010-3403-335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통영시 도천동 도리1길 부근
- 종교부지 800평, 산 812평, 전 350평,
- 법당 21.8평, 요사채 21.5평, 삼성각 2평
- 가액 : 6억

055)645-9171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주차 40대가능
- 가액: 4억 5천만원
- 8억원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현지 답사 조절가능)

010-9889-3188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경남하동암자
- 부지 : 700평
- 인법당 : 70평
- 차량진입, 계곡, 풍광좋음
- 양도가 : 1억8천
- 위치 : 전남 토굴
- 부지 : 200평
- 인법당 : 30평
- 요사 : 30평
- 양도가 : 4300만원

※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운영,구하는사찰 있습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광진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 김용각)
02)723-4082 / 010-4586-4525
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낙원동 243-3(401호) (탑골공원길 21)

< 사찰안내 : 전문가 이박사에게 >
*전국에 도량을 구하시거나 양도 하실때는 이박사에게
*전국에 수백건의 사찰을 보유하고 있으며
*참되고 좋은인연을 찾아드립니다.(방문접수, 비밀보장)
■ 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사찰부지, 매매임대전문중개사

010-7347-1010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대표:이규철)
010-3426-9393 이박사공인중개사(대표: 이현종)
주소: 강원도 원주시 모래내길 50(성일아파트 상가 108호)
■ 전국사찰. 암자. 토굴. 포교원 양도 급히 구함!!!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신정 시장 입구
- 2층건물에 2층, 평수 45평
- 법당 20평
- 공양간, 큰방, 작은방, 옷방
- 보증금 2천만원, 월 60만원
- 보증금 1천만원, 월 70만원
- 전세도 가능
-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 꼭 필요한 분만 연락 바랍니다

010-9767-4119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북 옥천읍에서 5분거리, 대전에서 10분거리
- 대지 505평, 1층 요사채40평, 2층 와가법당 20평(단청필)
- 옥외건물 20평(창고), 화장실, 샤워실, 창고 6평
- 수려한 금잔디 및 조경, 6층석탑 주변 팬션 및 별장있음
- 대전 영동간 4차선 국도 300M 접
- 가액 : 3억7천만원

010-3645-136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 백마산 줄기의 계곡이 흐르는 아늑한 사찰
- 법당 20평, 산신각 5평, 요사채 9평, 공양간 45평, 총평수 1,000평
- 가액 : 6억 9천만원

010-2772-7210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 법당24평, 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1동, 산신각
- 사용가능평수 약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3억2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시내 전철역세권, 노선버스 최다
- 재벌을 길러낸 터, 포교 최적지
- 100M 전방재개발확정, 아파트 2천세대
- 법당 30평, 부처님 5분, 천불전불사중 현재 약 300분
  1층 : 차고, 창고, 일주문 / 2층 : 법당, 방3개, 공양간, 화장실2개
  3층 : 방3개, 산신당, 빈공간 20평, 화장실 1개
- 대지 140평, 건평 107평
- 가액 : 15억(융자 4억포함) 시세가 이하
- 학업관계로 부득이 안내(절충가능)

010-8634-7851
(부동산 사절, 꼭 하실분만)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 여수, 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010-5234-550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878-50번지
- 종교부지 1,700평(대웅사) 병산리, 산168-2번지 4,130평(총 5,830평) 건물, 대웅전 1동, 요사채(1,2층) 1동, 기도방 1동, 승방 1동
- 입주조건 : 양도 또는 임대(임대에서 매수전환, 절충가능)

010-4437-00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남 해수욕장 부근 (6차선 대로에서 30m)
- 법당: 삼존불, 후불, 신중, 각탱화
- 남향기와집, 큰방, 종무실, 입식주방, 화장실 넓음
- 텃밭, 대지 114평(건물 34평)
- 주차시설완비 소임관계로 급 양도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랍니다.
- 몸만오시면 됨, 조용한 마을에 위치

070-4142-492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남구 대명동 성당시장 부근
- 4층 건물 3층 52평
- 법당, 친견실, 후원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45만원 시설비 1,800만원

010-6335-599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아파트 상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사 찰 안 내
- 밀양 목조 단청 법당
- 요사채, 산신각, 용왕각
- 마을인근 전망좋고, 주차 얼마든지 가능
- 부산 40분, 창원 30분
- 대지 1100㎡, 건 180㎡
- 가액 : 4억 3천만원

(주)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
051)861-2233
010-5346-4138 (중개보조원)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절 터 안 내
- 부산 기장 최상의 위치입니다
- 해운대 기장 동부산관광단지 접근성이 좋습니다
- 현재 2층 주택이 있습니다
- 토지면적 1064㎡(322평), 2층주택 148㎡(45평)
- 가액 : 6억 7천만원 융자 4억 5천만원 가능합니다

(주)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
051)861-2233
010-8676-2278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53번길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 수성구 두산동 2층
- 법당 삼존불 35평
- 시설 : 쑥뜸훈증침대 6대 옷20벌 추출기 2대, 포장기 1대
- 약초 : 200여가지 모든 것 전수
- 보증금 :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3,000만원, 조정가능

011-573-4438

토굴겸 임법당 안내
- 위치 : 김천역에서 도보로 10분
- 총평수 : 56평
- 가액 : 6천 5백만원

010-9609-1919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양산시 물금역2길-12 기차역 3분거리
- 3층건물3층 (옥상사용가능) 50평
- 미타전 지장신중단, 큰방 2,
- 가액 : 주방집기 500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1,000만원

010-6593-7982

싼 암자외 터 안내
- 위치: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신일리 계고물 흐르는 끝지점
- 대지 163평 법당 약 15평 요사채 33평, 주변 국유지
- 노스님 모시고 살기 딱 좋음
- 외 강원도 충청북도 경상남도 북도 있구요 꼭 필요하신분만 전화 주시면 지번알려드립니다
- 사례비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 부동산업자 상담 불가

010-3288-131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 온천 및 화왕산 국립공원대로변, 교통요지
- 목조단청, 전통토기와, 대웅전 30평
- 종교부지 600여평, 요사채(60평), 화장실2개, 석탑, 주차장, 창고(산신각,칠성각), 산밑에 위치,
- 도로인접, 심야보일라, CCTV설치, 컨1동, 텃밭경작
- 가액:융자3천안고, 3억3천만원(평당 70만원시세)

010-8664-8259
(답사하실분만 전화주세요)

인 산 대 건
- 위치: 경북 영덕군 창수면 창수리 614
- 대지 456평, 건물60평(수리중)
- 해발 500시야에둔 대자연의 국유림
- 이곳에서 귀하의 건광과 꿈을

급양도 주인직
010-7621-7621
010-2641-2641
010-8899-8899

작은 암자 안내
- 위치 : 울산 남구 터미널 5분거리
- 총평수 약70평, 임법당 약40평
- 창고 4평, 주방외 방 2칸, 시설일체
- 가액 : 1억 3천만원
- 기도시간 10시~ 12시 전화못받습니다

010-8582-6055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 대지405평, 대웅전 30평 단청필, 요사채 55평 단청필, 삼성각 5평 단청필, 공양실 20평
- 모자라는 금액은 부동산 교환가능
- 교통편리함, 화장실 및 창고 20평
- 주지스님 건강 악화로 급 안내함
- 가액 : 6억(융자 3억 가능함)

011-825-166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내사찰
- 대지 300여평, 법당 : 목조, 천불전(목조),
- 지장,신중,산신,칠성 탱화
- 삼성각, 요사채 2동
- 텃밭있고 전망좋음
- 250년된 사찰
- 가액 15억

010-8625-1225

사찰(급)안내
- 위치: 경기도 포천시(50년된사찰)
- 대지 300평, 미륵불상4.5M
- 지장,신중,산신,칠성 탱화
- 삼존불, 텃밭, 집기일체
- 가액 : 전세 3,000만원. 양도도 가능

010-6311-4920
010-7128-503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영천
- 대지 100평, 건평 52평
- 삼존불, 소불 50불
- 법당, 산신각, 큰방2, 화장실
- 가액 : 1억 500만원

010-3857-2305

토 굴 안 내
- 중부 곤지암 IC 에서 10km
- 대지 : 150평 (건물 2층 60평 - 조립식)
- 소임관계로 급 양도
- 양도가 : 1억 9천

010-9305-6715

전 원 주 택
- 땅을 알고 터를 잡으시고 좋은환경 좋은이웃 찾아오세요
- 위치 : 경남 창녕군 부곡
- 대지 167평, 건평 30평 목조, 기와, 황토방, 정자
- 가액: 2억 8천 5백만원

010-3703-587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무안
- 대지 183평
- 건평 60평, 법당 18평
- 건강상 부득이 안내
- 가액 : 2억 6천만원

011-9330-586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병곡면 각리리
- 대지 300평, 전 450평
- 대웅전 25평, 요사채 40평
- 사찰 근교에 바다가 있음
- 개인사정상 급매
- 가액 : 3억 7천만원 (융자 5천5백만원)

010-4747-316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010-8725-3196

사 찰 안 내
- 위치: 김천시 면소재 김천역 교통15분거리
- 건물 32평, 근린생활시설 사찰, 등기필
- 대지 : 도지료 년 35만원
- 내용 : 법당, 방 2개, 주방, 세면장
- 여건: 큰길변, 좋은 요지, 남향, 현대식시설, 생활편리함
- 가액 : 6천 9백만원

054)435-1259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유곡면
- 대지 약 800평, 임야 2,300평
- 대웅전 20평, 산신각 7평, 용왕전, 요사채 50평
- 가액 : 2억 9천(절충가능)

010-9395-6675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인근 20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건축물 목조
- 대웅전 29평 요사채 20평, 방4, 욕실1, 공양간 10평, 방1개, 해우소 3평반 3칸
- 지하수 130m 물수량 100톤 일급수 CC카메라 9대시설
- 사찰경내지 계곡물흐름, 조경완벽
-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가액: 3억 8천만원(꼭 하실 분만 전화요망)

※ 장난전화사절 ※
010-9338-011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 예술 고등학교 부근
- 5층 건물에 2층 50평
- 아미타 삼존불 후불탱화
- 오피스텔 최신식형 법당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100만 시설비 3,500만원

010-2485-8799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현삼면 면소재지 부근
- 100가옥 사는 동네 맨 뒷집(산자락)
- 면적 1,164평방미터에 법당 34평, 주차시설 및 조경 좋음 (법당까지 승용차 진입가능)
- 모든시설 일체 완비
- 가액 : 6천만원(절충가능)

010-6621-9400

재개발 내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남구 감만동
- 평수 : 대지 82평, 건평 약100평,
- 현대식 4층법당 (1층 상가 2층 빌라2동 3,4층 법당)
- 전망:재개발 입박지, 부산북항 대교근접지, 5분거리 난복지관, 시장,마트, 대학교, 버스정류장위치
- 가액 : 7억 5천 주인직접

010-4409-1347

사찰(전세)안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온천장
- 대지 210평
- 건평 80평
- 법당완비, 시설완벽
- 가액 : 전세 1천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4천만원

010-3193-3689

도심속의 암자(급)
- 위치 : 충북 옥천군 옥천읍
- 역, 나들목, 터미널 10분 이내
- 한옥 40평 (문중부지 200평)
- 5500만원
- 시설비 1500만원(상담후 조절가능)
- 몸만 오셔서 법회가능
- 상담 스님 최상

010-6651-666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시 동래구 사직 3동 140-70 금정시장 사거리
- 4층 중 3층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시설비 1,500만원, 월세 40만원

010-5656-0445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광주 운암동 위치 최고, 주차편리
- 3층 건물중 2층 32평
- 법당 삼존불 후불 칠성 신중탱화
- 불단원목 연등 영가등 인등전기, LED 전체리모델링
- 인터버냉낭방기 2대 방3개 즉시법회가능
- 가액 : 보증금 천만원 월 4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62)513-039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부산 서구 충무동 교차로 주변
- 5층 건물 2층 82평, 지하철 대중교통 3~5분이내
- 삼존불, 지장보살, 삼신당, 호신불324(분양10%)
- 법당과 요사채 분리 (기공, 철학, 교육 등 다용도 이용가)
- 임대조건 : 보증금 2천 월 66만 3천 월 55만 / 4천 월 44만 선택 시설비: 답사후 절충

010-4590-6777
010-3869-6799

암 자 전 세 (동 해)
- 위치 : 강원 동해시내(바다 조망)
- 임야 3,349(대지 500평) 포함 건물 5동, 약 120평(1동 80평 신축건물)
- 특징 : 유명한 약수물 있음, 방13개 시내지만 산속같음, 차량 진입
- 창건: 약 70년된 암자, 소쿠리터
- 가액 : 보증금 6천만원(전세)

010-7325-3838

여기! 도심속 참 좋은 도량 포교원 임대
- 위치 : 경남 김해시 어방동 (대우유토피아 아파트 인제대)부근
- 2층 법당 45평, 1층 공양간 및 다용도실 30평
- 창고 주차장 시설은 완벽하며 즉시법회 가능한 참 행복이 샘솟는 도량입니다. 비구스님 인연 요망
- 가액 : 보증금 1천5백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5천만원(약간절충)
- 2층만 계약가능 1천만원 월 50만원

주지직 010-4288-3776

포교원 선원 안내
- 위치 : 서울 잠실, 자연선원 4층 건물 2층 약 45평
- 방2 화장실2, 선방과 거실
- 가액:보증금 2,000만원 월세 120만원
- 시설비 저렴함 협의사항, 모든 주거시설 완비, 몸만 들어와 운영됨

※ 인수시 모든 주거시설 양도함

010-8714-3922
070-7761-6616

암 자 안 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예당저수지 위 150년된 암자
- 법당, 요사채, 예당저수지가 훤히 보이는 천하에 명당자리
- 약 2만평 관상수 주목 10년생
- 만평, 장뇌삼 5천평 요사채 및 창고
- 소유주, 직접매각(가격협의)

010-5097-3468
010-8505-2032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경남 마산시 진동자동차 전용도로 종점 사거리
- 대지:160평, 건평: 80평
- 1 ~ 2층 양옥기와집
- 법당: 20평, 아미타삼존불 주차장완
- 1층 근린생활시설용도, 2층 주택용,
- 요사채 : 40평, 공양간 20평, 별도다용도실 30평
- 창원, 마산 시내 5 ~ 7분거리
- 가액 : 3 억 4천(융자1억 6천포함) 가액절충

055)271-6670
010-8008-791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상동면(상동IC에서 5분거리)
- 사찰창건 25년 종교용지외 930평, 임야 2,870평, 합계 : 약 3,800평
  대웅전 : 목조 22평(단청완벽)
- 요사채 2동, 종각, 산신각, 용왕각 등
- 약 100평 노인요양복지, 연수원, 선원 등 기타 개발 최적지
- 가액 : 12억

010-3847-4705

마음 길들이기

달라이 라마 (티베트 승려)

〈5 · 끝〉 통찰지로 자애 키우기

모든 존재의 자성은 空… 그 '空'을 보아야 해탈

겉모습과 실제의 차이를 구별하기

나는 어떤 것의 겉모습과 실제 모습간의 차이를 설명할 때 종종 환영이나 거울, 물에 비친 그림자나 신기루 같은 예를 든다. 거울에 비친 얼굴 모습이 실제 얼굴이 아님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거울에 비친 모습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닫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본래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거울에 비친 얼굴 모습이 실제 얼굴이 아님을 아는 것이 곧 공을 진정으로 깨닫는 것이라면 자신의 몸, 자신의 팔, 자신의 집 같은 다른 대상을 생각했을 때도 즉각 그것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쉽지 않다.

다시 말하자면 일체 존재와 현상들은 '환상'이 아니라 '환상 같은 것'이다. 나, 그리고 모든 현상들을 환상 같은 것으로 보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대상의 거짓된 모습을 아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존재와 현상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명상을 통해서 모든 현상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을 찾아보지만 그런 성질을 찾지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 현상들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환상과도 같다는 것을 알게 된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일체는 거짓되고 현혹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사물의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실제 모습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이 영원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괴로움에 이르는 길이 행복에 이르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맛있는 음식을 과하게 먹는 것은 즐거움의 원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우리는 행복을 원하지만 무지 때문에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한지를 모른다. 괴로움을 가져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움을 원하지 않으면서도 괴로움을 불러일으키는 것들을 추구한다.

마술 쇼를 보는 사람들은 마술사의 속임수에 넘어간다. 그러한 속임수로 인해 자기가 말이나 코끼리 등을 보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겉모습에 현혹돼 어떤 현상의 좋거나 싫은 상태를 부풀리고, 그로 인해 탐욕과 성냄이라는 해로운 마음을 일으켜 업을 쌓게 된다.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나'가 아닌 것이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나'로 보이고 그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통찰지로 자애를 키우기

자애와 연민을 키우려면 처음에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애와 연민 같은 이타적인 태도를 무한하게 키우려면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애와 연민을 실천하려면 통찰지를 닦아야 한다. 통찰지가 없으면 어떤 이를 도와주고 싶어도 자신의 노력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를 분명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선한 마음과 지혜가 결합돼야 한다.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

"윤회하는 존재들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큰 갈채를 보낸다. 그들은 자신이 '나'라는 과장된 생각을 하고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사물에 집착하면서 마치 우물 속을 오르내리는 두레박처럼 무력하게 윤회를 거듭한다." –찬드라키르티 〈부록〉

위에서 인용한 시를 통해 중생들이 고통을 받는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사랑을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찬드라키르티는 윤회하는 존재들의 모습을 두레박이 우물을 오르내리는 모습에 비유한다. 태어나고 죽음을 거듭하는 존재의 모습이 왜 우물을 오르내리는 두레박과 비슷할까? 거기에는 여섯 가지 비슷한 점이 있다.

첫째, 두레박이 밧줄에 묶여 있듯이 모든 존재들은 해로운 마음과 그로 인한 행위에 묶여 있다.

둘째, 두레박이 우물 속을 오르내리는 움직임이 물길는 사람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윤회는 다스려지지 않은 마음, 특히 '나'가 독자적으로 존재한다고 믿고 그로 인해 '나의 것'이 있다는 그릇된 믿음으로 인해 이루어진다.

셋째, 두레박이 끝없이 우물을 오르내리듯이 모든 중생들은 윤회의 커다란 우물 속에서 덧없는 행복과 덧없는 고통 사이를 끝없이 방황한다.

넷째, 두레박을 끌어올리기는 매우 힘들지만 내리기는 쉽듯이 우리 중생들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하지만 고통 속으로는 떨어지는 것은 쉽다.

다섯째, 두레박이 자신의 움직임을 결정하지 못하듯이, 한 사람의 삶을 이루는 요인들은 과거의 무지와 애착, 그리고 집착의 결과다. 그와 똑같은 현재의 요인들이 마치 바다에 일렁이는 파도처럼 우리의 내생에 문제를 일으킨다.

여섯째, 두레박이 우물을 오르내릴 때 우물 벽에 이리저리 부딪치듯이 중생들은 매일매일 고통과 변화의 괴로움으로 인해,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과정에 갇힌 채 시달리고 있다.

찬드라키르티는 이와 같은 비유를 통해 윤회의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통찰지를 알려 준다. 윤회에 대한 이와 같은 내용을 나 자신에게 적용해 봄으로써 내가 어떠한 곤경에 처해 있는지를 이해하고, 그처럼 되풀이되는 문제로부터 벗어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키워야 한다. 만일 나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기 파멸의 굴레 속에서 헤매고 있다는 것을 숙고함으로써 내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았다면, 다른 존재들의 고통에 대해 생각할 때도 그들의 고통이 절실하게 와 닿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곤경에서 구해야겠다는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통찰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확장하기

해로운 마음은 우리 내면의 적이며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이러한 해로운 마음은 우리에게 해만 끼칠 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에 반드시 극복해야만 한다. 해로운 마음이 우리의 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것들을 없애기 위한 방법을 취해야 한다.



선하고 악한 행동 모두 무지에서 비롯
오직 무지를 없애야 해탈 할 수 있어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윤회 벗어나는 기회
자성의 공함 직접 깨닫고 업을 쌓지 말아야

해로운 마음을 없애려면 우리는 그것들을 불러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 문제가 되는 모든 해로운 마음은 탐욕과 성냄으로부터 생겨나며 그것의 뿌리는 무지다. 무지란 모든 존재와 현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들의 본질을 적극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것이다.

우리는 해로운 마음에 휘말려 해로운 성향을 심어주는 행동을 한다. 불선한 행동은 행복하지 않은 삶으로 윤회하는 결과를 낳고, 선한 행동은 행복한 삶으로 다시 태어나는 결과를 낳는다. 하지만 불선한 행동이나 선한 행동 두 가지가 모두 무지로부터 비롯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 즉 자성의 공함을 직접 깨닫는 것이다. 명상을 통해 자성의 공함에 익숙해지면 다시 태어나게 하는 업을 더 이상 쌓지 않게 된다. 나아가 다른 사람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다시 태어나는 것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윤회는 자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그 같은 오해를 인식해야 한다. 윤회를 일으키는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은 오직 무지를 없앰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는 무지가 모든 다른 원인들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괴로움과 괴로움의 원인들을 근절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을 계발해 주는 명상법을 설명했다. 이러한 과정을 꾸준히 내면화하면 단지 말에만 그치지 않고 실제로 해탈하고자 하는 의지를 낼 수 있다.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점차로 목표가 변하게 된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고통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고 발원하게 되면 좀 더 큰 능력을 지닌 수행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티베트의 학자이자 수행자인 총카파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수행에 필요한 세 가지 근본 원리〉에서 말하듯이,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해탈하고자 밤낮으로 몰두한다.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에 열중한다. 윤회에서 완전히 해탈하지 못한다면 인간으로서의 삶의 의미가 달성된 것이 아니라고 자각하게 된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윤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다. 왜냐하면 계정혜의 세가지 수행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계를 지키는 것은 몸과 말과 마음으로 불선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좀 더 불선한 나쁜 마음들은 선정 수행이라는 집중 명상을 통해서 억제된다. 잠재된 불선한 마음을 최종적으로 근절시키게 되는 것은 자성의 공함에 대한 통찰지를 계발함으로서 달성된다.

처음에는 계를 지키는 수행을 해야 한다. 해로운 마음의 영향하에 있을 때는 말과 행동이 거칠어져서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 때문이다. 계를 지키는 것은 이러한 거친 행동을 통제해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해로운 마음을 근절할 수 없다. 해탈은 해로운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 대에 비로소 얻을 수 있다.

다음은 자신의 윤회의 굴레 속에 갇혀 있음을 자각하고 나면 반드시 시작해야 하는 절차다.

첫째, 우선 이번 생에서 겪는 괴로움의 정도를 인식하는 훈련을 한다.

둘째, 그리고 나서 '윤회'라고 불리는 생을 거듭하며 계속되는 모든 형태의 괴로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계정혜를 닦는다.

셋째, 이러한 수행을 완성함으로써 마침내 윤회에서 벗어나 모든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해서 해탈에 이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목표가 완전히 달성된 것은 아니다. 다른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획득하는 데 방해가 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 장애물은 모든 존재와 현상들의 본질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 마음속에 남아 있는 성향이다. 무지 자체가 극복됐다고 해도 이 성향들은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 온전한 앎을 방해한다.

이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다른 이들을 도우려고 해도 작은 도움밖에는 줄 수가 없다. 우리의 관점은 여전히 자신의 행복을 우선적으로 생각한다. 자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더 높은 경지에 도달하는 과정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혼자만의 평화 속에 살고 있을 뿐이다.

혼자만의 평화 속에 안주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즉 다른 이들의 이익을 위하는 이타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계속 늦추기 때문이다. 자신만을 주로 돌보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키우게 되며, 이 같은 태도는 나중에 큰 자애와 연민을 키우는 훈련을 할 때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처음부터 자신의 이익에만 마음을 쏟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공을 이해하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돼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겠다는 결의를 단단히 하게 된다. 다른 이들의 괴로움 역시 무지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면 그들도 모든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돼 그들을 돕겠다는 결의를 단단히 하게 된다. 이와 같이 통찰지를 통해 심오한 지혜와 자애와 연민으로 표현된다.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현상이 공한데도 중생들은 자성이 있다는 생각에 매달린다."

모든 존재에게 자성이 없음을 이해하고 무지로 인해 어떻게 괴로움이 나타나는지를 볼 수 있게 되면 좀 더 깊은 자애와 연민을 키울 수 있다. 자성의 공함을 깨달으면 자애와 연민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모든 존재와 현상의 궁극적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우리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괴로움을 겪고 싶어하지 않는 무한한 중생들을 떠올리게 된다. 그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에 걸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었으며,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어 우리를 도와주었다. 그런 친밀감과 아울러 왜 그들이 생을 거듭하며 고통의 굴레 속에서 괴로워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갖게 되면 그들의 행복에 대해 진심으로 염려하게 되는 것이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달라이 라마의 〈마음 길들이기〉(이솔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996호 | 불자정보

TEL 02)2004-8213(直)
FAX 02)737-0696
(원고접수)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찰(터)안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
- 대지 60평, 건평 1층 30평, 2층 법당 27평
- 석불, 석등
- 가액 : 2억 9천만원

010-3695-4575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남 사천시 시내중심지
- 평수 : 60평
- 바다와 인접한 완벽한 시설 완비, 시장과 인접함
- 시설비 3,0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010-8616-573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계성마을
- 평수 : 730평, 법당 : 30평
- 삼존불, 산신각(신중탱화, 나한탱화), 칠성탱화, 연못, 정각, 두줄기 흐르는 냇가가 있음
- 주지실 : 방2칸, 공양간2칸,방3칸 화장실2칸
- 가액: 3억2천만원(시설비 포함, 절충가능)

055)931-7971
010-4844-7098

사찰(터)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회화면
- 평수: 3만6천평
- 평당 : 만오천원
- 최적의 절터

010-8616-5733

사 찰 안 내
- 위치 : 진주에서7분거리
- 등기 실평수 553평, 기타 평수 있음
- 대웅전, 천불전, 요사채, 방 35개
- 산신각, 종각, 용왕당, 황토방, 주차 40대가능
- 가액: 4억 5천만원
- 8억원 이상이나 건강상 이유로 급 안내 (현지 답사 조절가능)

010-9889-31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 인법당 27평
- 삼존불,지장보살, 소불100여불,삼성각
- 큰방2,친견실1,공양간
- 집기일체양도
- 잔디밭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1억7천5백만원

010-6808-5546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동
- 2층건물2층, 삼존불,법당 35평
- 시설물일체, 10관 종
- 방2, 화장실2, 공양간, 출입구 옥상 별도사용, 법회즉시 가능
- 시설비:2천5백만원
- 보증금: 300만원, 월 33만원

010-8528-9093

포교원안내
- 위치: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도로변 아파트 상가 2층 약 60평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 큰 공양간, 큰방 1, 작은방 2, 욕실
- 시설환경, 위치 특 A급
- 가액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500만원

010-5173-3355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갤러리 색즉시공



서예가 김정호 作 〈부모은중경〉

서예가 김정호 作 〈부모은중경〉

2014 소식 끊긴 자식 걱정

배 안에 품고 지켜준 은혜, 해산 때 고통을 이겨낸 은혜, 자식을 낳고 근심을 잊은 은혜, 쓴 것은 삼키고 단것만 뱉어 먹인 은혜, 마른자리 진자리 가려 누인 은혜,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먼 길 떠나면 걱정해 준 은혜, 자식을 위해 궂은 일 마다하지 않은 은혜, 끝까지 염려하고 사랑해준 은혜. 자식이 깊이 헤아려야 할 부모의 은혜다. 곧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을 설명해 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부모, 부모의 부모, 모두 이렇게 자식을 기르며 살았다. 배 안에 품어 고통을 이기고 낳은 자식, 쓴 것은 당신이 먹고 단 것만 먹이고, 마른자리에만 누이고 젖을 먹여 키우고, 먼 길 떠나면 걱정으로 기다리던 자식이건만, 그 걱정으로 기다리던 자식은 끝내 돌아오지 못하니 그 깊은 부모의 은혜 아무리 깊어도 소용이 없어라. 2014년 봄날 바다 한 가운데서 소식 끊긴 '자식' 생각하니 〈부모은중경〉 중에 '먼 길 떠나면 걱정으로 기다리는 은혜' 가슴을 친다. **글=박재완 기자**

세상을 바꾸는 것은 컴퓨터가 아닌 인간

Buddha in Comic & Ani

⑪ 호소다 마모루 '섬머 워즈'



호소다 마모루의 '섬머워즈'

현재 사회는 SNS(네트워크 서비스, Social Network Service) 전성시대다.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은 누구에게나 있는 사이버 공간이 됐고, 손쉽게 이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 폰은 이제는 필수품이 됐다. SNS가 자신을 대변하는 창구가 됐고, 세상과 소통하는 또 다른 플랫폼으로 자리잡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실 현실에서 인간은 육체에 담겨 있으므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만 집단 아바타의 사념체인 사이버 네트워킹은 제한이 없다.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육체의 역할을 축소시키고 인터넷의 가상공간에 자신의 정신을 의탁하게 만들었다.

분명 우리의 생활은 '스마트' 해졌지만, 삶이 '스마트' 해진 것은 아니다. SNS는 우리를 끊임없이 노출시킨다. 이에 대한 피로감 호소하는 사람들도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소통이라고 말하지만, SNS에 쓰여진 몇몇 문구가 나를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친해진 사람들과 진지한 교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자신의 사이버 정보 누출에 노심초사하는 것은 사실이다.

2009년 호소다 마모루가 내놓은 애니메이션 '섬머워즈'는 주제가 '사이버 테러'라는 점에서 개봉 초부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작품이다. '시간을 달리는 소녀'로 화려하게 데뷔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의 적자로 평가받는 호소다 마모루의 차기작이었기 때문에 그 관심과 기대는 더했다. 개봉 후 평단과 관객의 평은 호불호가 극명히 갈렸지만, '섬머워즈'는 살필만 할 작품이다.

'섬머워즈'의 사회는 '오즈(OZ)'라는 인터넷 네트워크에서 모든 것이 이뤄진다. 가벼운 오락부터 비즈니스, 심지어는 모든 관공서의 업무가 '오즈'라는 가상 공간을 통해 처리된다. 말 그대로 사이버 네트워크의 사회이다. 이런 '오즈'에서 보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인공 소노카 겐지는 짝사랑하던 과학부 선배인 나츠미에게 함께 시골에 가는 아르바이트를 소개받고 동행하게 된다. 그러나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선배의 말과는 달리, 진짜 목적은 그녀의 남자 친구 행세를 해주는 것이었다. 결국, 겐지는 나츠미의 시골에서 나츠미의 가족들을 만나고 '오즈'는 해킹 프로그램의 침입을 받고 세계는 혼란에 빠진다.

'섬머워즈'는 주인공 겐지와 나츠미 그리고 나츠미 가족 27명이 한여름 인터넷에서 벌이는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다.

'섬머워즈'의 초반 설정은 매우 흥미롭다. 모든 국가가 '오즈'라는 인터넷 시스템에 좌우되는 첨단시대에 근대의 산물로 보여지는 대가족들이 한적한 시골에서 자신의 터전을 잡고 살아가고 있다.

SNS 시대 明暗 유쾌하게 그린
가족들의 한여름 아바타 전쟁
'공동체 회복' 화두 제시한 수작

본격적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고전적인 대가족 네트워크와 현대적인 사이버 네트워크를 모두 보여주고 주인공 겐지가 두 곳 모두 발을 담그게 만든다. 초반의 이 과정은 이후 주인공이 두 가치 중 어느 하나에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가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극중에서 세상의 혼란을 가져온 것은 '러브머신'이라는 해킹프로그램 때문이다. '러브머신'의 해킹 방법은 다른 사람의 계정인 어카운트를 빼앗는 것이다. 작품에서 '어카운트=아바타'는 현실 인간의 또 다른 자아이고, '사이버 상의 영혼'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아바타를 빼앗긴다는 것은 곧 정체성의 말소이자 자기 권력 기능의 강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섬머워즈'의 한 장면. 극중 인물의 계정 '어카운트'로 해킹프로그램과 맞서는 것이 작품의 주된 이야기다.

'러브머신'이라는 해킹프로그램의 이름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러브머신'은 그 안에 '알고 싶은 욕구'를 삽입시킨 인공지능으로 설정돼 있다.

개발자는 나츠미의 삼촌인 와비스케. 그는 양자로 가문에서는 천덕꾸러기와 같은 존재였다. 성공지향적인 그의 성격은 여기서 기인한다.

두 이름은 매우 연관성이 있습니다. 와비스케를 한자로 쓰면 '侘助'가 됩니다. 여기서 '와비(わび, 侘(び))'는 일본어로 걱정내지 수심, 외로움을 뜻합니다. 애초 환영받지 못한 서자에게 어울리는 이름은 것이다.

그가 만들어낸 '러브머신'도 마찬가지다. 끝없이 알려하는 존재인 '러브머신'은 다른 어카운트를 먹어치움으로서 그 안의 정보들을 알아간다.

사랑이나 애정이라는 감정은 누구를 알고 싶다는 호기심에서 출발하지만, 타자화된 현대 사회에서 인간은 집단 속에서 살아가지만 항상 고독하다. 결국 와비스케와 러브머신은 과도화된 정보화 시대에 외로운 섬을 수 밖에 없는 현대인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애니매이션 '섬머워즈'는 밖에서는 가족 공동체의 복원을 안에서는 부당한 거대 권력에 대한 전 세계적 군중의 힘을 보여준다. SNS 시대에서 결국 공동체로의 회귀가 강조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신뢰가 기인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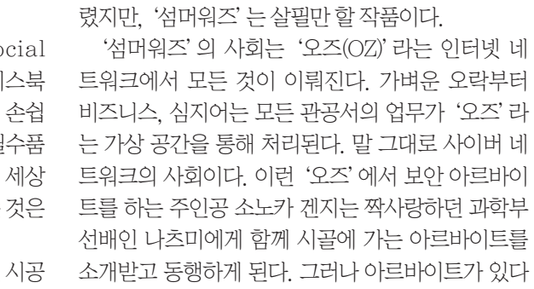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孝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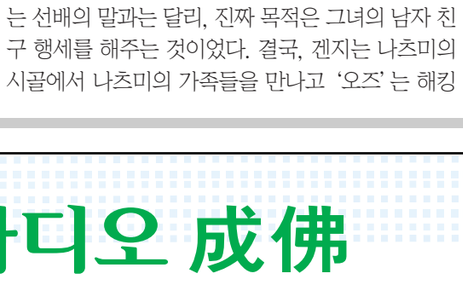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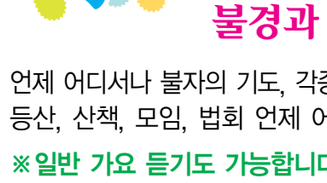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만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며,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바로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청색, 홍색)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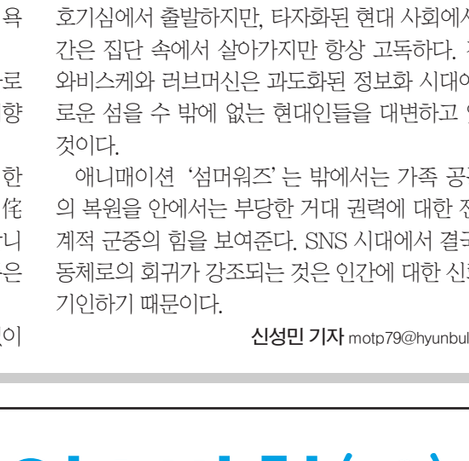
□ 향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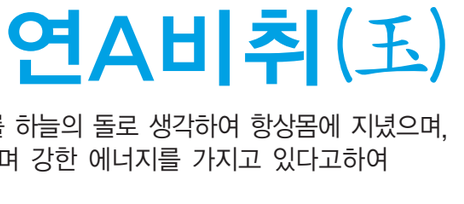
□ 찬불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비취는?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비취팔찌 – 중(흰옥) 가액 ₩6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불법은 생동력 있는 현실이지 죽은게 불법이 아니에요

한마음 주인공이 무엇인지요

문) 이제 갓 불교에 입문하게 된 불자입니다. 그런데 한마음 주인공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 예를 들어서 큰 불기둥이 하나 하늘을 꿰고 땅을 딛고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이 우리가 돌아가는 수레가, 우리가 생활하고 돌아가는 수레가 그 불기둥을 가운데다 끼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게. 그냥 쉬는 사이 없이 그대로 돌아가요. 그런데 벌써 주인공을 내가 일부러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하게 된 것도, 살아서 이렇게 움죽거리게 된 것도 주인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걸 떠나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하면은 벌써 그렇게 살아서 움죽거리는 거 자체가 바로 주인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인공은, 중심이 되고 돌아가는 이 모습 자체가 이렇게 움죽거리게 하는 건 바로 '공' 이거든요. 그게 쉴 새 없고 찰나찰나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는, 인간 자체가 수레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수레가 돌려면 중심이 없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 힘을 배출해 주지 않는데. 하다못해 차바퀴도 이 중심을 끼워 주니깐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 중심이 끼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퀴가 제대로 돌아갑니까. 그렇듯이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무는 자기 뿌리를 믿어야 된다. 그 자기 뿌리에 꿰여서 바로 이 싹이 이렇게 살고 있으니깐 말입니다. 그래서 뿌리와 뿌리끼리,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되고 통신이 되고, 또 말과 말이 통신이 되고, 아래서는 모든 에너지를 흡수해서 위로 올려보내고 위에서는 또 에너지를 흡수해서 내려보내고, 정맥동맥이 돌아가듯. 이렇게 상대성 원리로서 인간이 다 이렇게 움죽거리고 살고 있단 얘깁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공이 없다면 지금 몸도 정신계도 없어요. 무효예요. 내가 없다면 다 무효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각자 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거지, 내가 없는데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깐 '꼭 알아야 되겠다. 이 세상에 나와서는 절대 그냥 갈 수는 없다. 나를 움죽거리게 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야겠다.' 좀 이러란 말입니다. 모든 일체 만물만생이 다 중심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기계도 그렇고, 모두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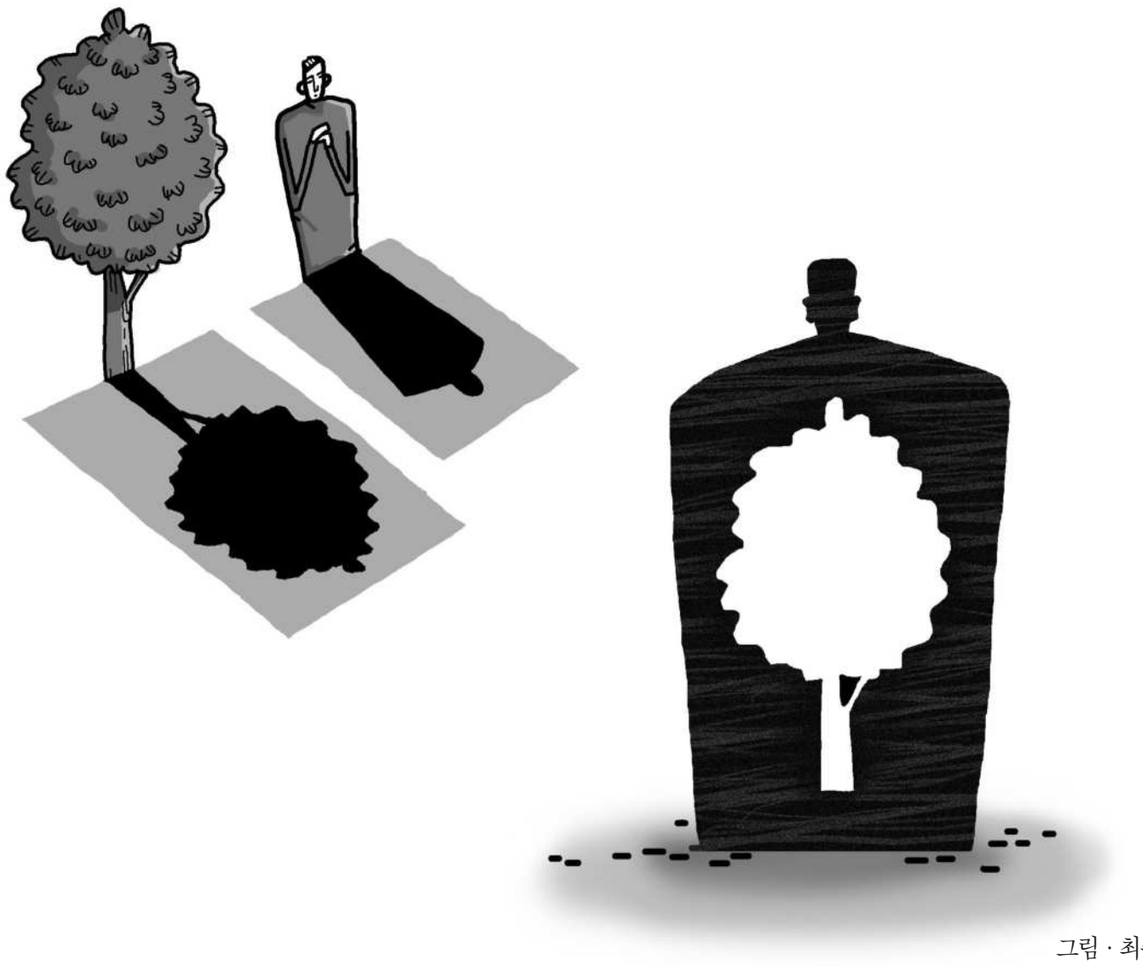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좋은 인연들이 생겼으면…

문) 제 주변에는 아직까지 좋은 인연보다 나쁜 인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인연이 생길 수 있을까요.

답) 그것도 내 마음에 달려 있어요. 이 세상은 삼천대천세계 우주 천하가 다 마음과 마음을 전달하면서 돌아가고 마음과 마음을 이어서 돌아가는 거지,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통한다,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어떤 악연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둘이 아닌 까닭에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한다면 전체가 가설이 돼 있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냥 불이 들어와요, 그쪽에도. 그래서 그 악연의 업보가 그냥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고 다시금 밝은 마음으로써 이어지게 되죠. 더디고 이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설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이 마음 세계에서는 같이 돌아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꽃밭을 이렇게 봤으면 그냥 꽃과 우리와 눈 시선이 맞으면서 마음도 같이 부딪쳐집니다, 전기가 접선이 되는 것처럼. 그럭해 가지고 인연이 되는 거지, 인연이 되려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맞부딪쳤을 때에 만약에 내 마음이 넓고 착하고 그러면은 그 꽃의 마음도 내 마음 속과 같이 동일하게 되죠. 그래서 무명을 벗고 다른 모습으로 화하게 됩니다, 또.

개를 한 마리 놓았다거나 고양이를 놓았다거나, 가정에 놓았다 하더라도 그 가정의 사람이 살고 있는 차원에 따라서 개도 따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든지 개든지 차원이 높은 집에 인연이 되면은 그 인연에 따라서 무명을 벗고, 또는 그 인연에 따라서 악행을 하는 인연을 만나면은 그냥 그 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누적이 될 수 있게끔 악업 선업을 만들고 말입니다. 선업을 짓기는커녕 악업을 더 짓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게 그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인연을 만나기가 참 어렵다 이런 소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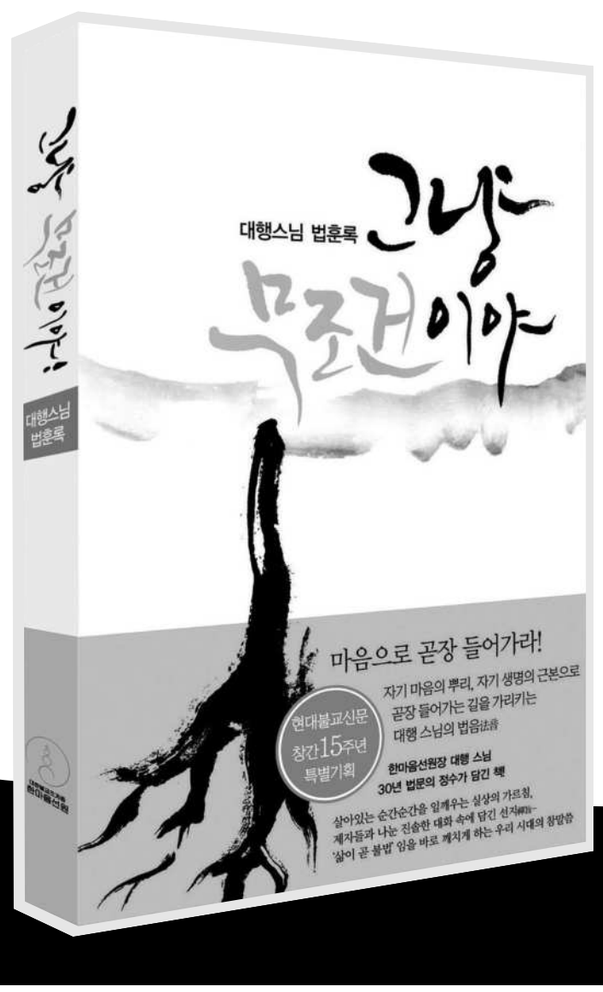
사람도 나쁜 인연을 만나면은 나쁘게 업보를 짓고 돌아가지만 인연을, 좋은 사람으로 하여금 인연을 짓는다면 악업이 없어지고 선업이 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게끔 돼 있는 거죠. 보세요. 새들이 새 알을 낳는데도, 또는 개가 개 새끼를 낳는 데도,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도 인연 따라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않습니까. 개가 사람을 낳을 수 없고 사람이 개 낳을 수 없고, 또는 새가 새 새끼 낳지, 사람 새끼 낳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인연에 따라서 그렇게 엄청난 문제들이 벌어진다 이 소립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게, 악연이다 생각을 하면 악연이고, 그것이 우리가 수억겁 광년을 거쳐 오면서 항상 남의 탓으로 돌리니까 그런 악연을 짓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악연이라고 하지 말고 '예전에 몰랐을 때 내 모습 같구나.' 하고서 '모든 거를 너만이 해결할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맡길 때에 바로 거기까지 접선이 되고 바로 통신이 돼서 그 마음도 아리땁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깐 그 악연을 없애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마는 용도에 따라서 어떠한 걸 가리지 말고 모든 것을 내 불바퀴에 넣기만 하면 그 악연이 타 버리고 좋은 샘물이 나와서 우리가 맛있게 먹고 맛있게 쓸 수 있는, 시원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지혜 있고 아주 마음의 발전이 됐다면 아주 영리하게 바꿔서 대치할 수 있는 그런 의견과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 그 무(無)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바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것이 바로 무의 세계에 그 심성으로 하여금 돌아서 현재에 나오는 겁니다, 그게. 마음이라는 건 채찍과도 같고, 다스리는 마음이 엄청난 문제를 낳기도 하고, 바로 엄청난 선덕을 행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달렸다 이런 소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하죠. 그건 무슨 까닭입니까. 과거에 살면서 내가 악업 선업을 얼마나 지었느냐에 따라서 현재에 나오니까, 자꾸 안에서 푸파거리고 그게 자꾸 등장을 하니까, 독 안에 들어도 못 면하게끔 만들어요, 자꾸.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일체 만물만생이 다 중심 없이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 29면에서 계속

그래서 어떠한 의식 속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속지 말고 다 그 자리에 되놔라 이런 소립니다. 되놓기만 해서 안 되는 건 뭐냐 하면은 모두 각자 차원들에 따라서, 그 닥치는 용도에 의해서 모든 것이 벌써 자기가 알고 돌아가잖습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담겨 있다 하면은 나쁜 의미를 거기다 놓고 잘 돌려서 신선한 물로 쓰듯이 신선하게 돌려놓으란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물건을 가지고 배추가 썩고 아주 요리를 못해 먹을 정도라면 딱 버리고 새 거를 빨리 놓아서 해야 되잖아요. 썩은 걸 놓고도 그것이 성해지기를 바라고 그냥 있다면 그것이 안 되니까, 빨리 썩은 거를 대치해서 거기 놓고 너만이, 썩은 것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새 것도 거기서 나올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돌려놓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마음은 어떻게 보면 생산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생산처가 좋은 일에 생산처가 돼야지, 언짢은 일에 생산처가 되면은 안 되잖아요. 고거를 가려서 다스리란 말입니다.

계층간 소득 격차가 심한데…

문) 현대 사회는 계층간 소득 격차가 심해 놀고 먹는 부자가 있는가 하면 살기 힘들어 자살까지 생각하게 되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어떡하면 극복할 수 있을는지요.

답) 모든 사람들이, 부산에서 왔든 광주에서 왔든 대구에서 왔든 서울에서 왔든 충북에서 왔든 어디서 왔든 온 거죠? 가는 길이 있고 오는 길이 있죠? 그런데 오는 것만 알고 되돌아가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가는 길과 오는 길이 두 개가 한데 합쳐서 작용을 해야 할 텐데 작용을 못하는 까닭에, 즉 말하자면 물질계와 정신계가 한데 합쳐져서 작용을 해야 보이지 않는데 50%에서 보이는 데로 나오게끔 돼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헤어나질 못하는 거고 물질로만이, 물질세계에서만의 관습에 의해서, 그냥 여직껏 살아나온 관습, 인과, 업보, 유전 이런 걸로 꽉 뭉쳐서 돌아가니까 이게 부작용이 나고, 모든 게 이루어지는 데 접근이 되지 않고, 또는 공덕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전체가 같이 돌아가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공덕이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개별적인 하나의 생각으로서 사니까. 한 마음 주인공이다 하는 것도 포괄적인 하나이지 개별적인 하나가 아닙니다.

그리고 마음은 체가 없어서 수만 개를 이룰 수도 있고 아주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하나도 없앨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정신계의 발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정신계를, 즉 말하자면 자기가 정신계의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현실계 50%에서만 살려니까 길을, 가는 길만 알지 오는 길은 모른다 이 소리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엔 없고 거죽의 모든 그 관습에 의해서만 생각을 하게 되지, 정말 진실하게 뿌리에서부터 가지까지, 이파리까지 생각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뿌리가 있어 깊이 묻어져야 가지가 생기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텐데 그렇지 못한 까닭이다 이겁니다, 모든 게.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냥 뭐, 이러고저러고 이러고저러고 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 마음 깊은 속에서 스스로 과거에 살던 자기의 영혼의 근본이 발현이 되거든요. 발현이 되면은 현실의 내가 그거와 둘이 아니게 작용을 할 때에 에너지 광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 수 화 풍 이 자체가 대두가 돼서 광력 전력 자력 통신력이 재료로 주어져 있다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다섯 가지 오신통이 굴려지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은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거, 보는 게 없이 보는 거, 듣는 게 없이 듣는 거, 또는 남의 속을 아는 게 없이 아는 거, 과거를 아는 게 없이 과거를 전체 아는 거. 이런 것을 이누진으로 하여금 모든 걸 굴린다 이 소리죠. 그거를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주인공에다, 한마음 주인공에다 죄 놓으라느냐. '거기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 거기서만이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이러는 거는 모든 것이 그 숙명통, 즉 말하자면 과거를 전부 아는 게 숙명통이라고 하죠. 숙명통 천이통 천안통 신족통 또 타심통, 이렇게 다섯 가지. 누진통, 이렇게 여섯 가지로 나눠지는데, 과거에 살던 그 인연들이 여기에 모두, 숙명통이 자체가 전부 악업 선업이 뭉쳐 있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걸 컴퓨터로 비유하는데 그 컴퓨터에 입력이, 과거에 입력이 돼 가지고 현실에 자꾸 그게 나오는 거지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를 거기다가 되맡겨 놓는다면은 앞서 입력했던 게 없어질 거 아니냐 이겁니다. 새로 넣는 것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로 또 넣으면 또 앞서 게 없어지고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거기다 되놔라 이거죠. 거기다가 되맡기고 '안되는 것도 거기니까 되는 것도 거기다, 안되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되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거다. 그러니깐 거기서만이 해결을 해 줄 것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고 거기다 맡겨 놓아라 이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 저녁에 다, 없는 사람 줘서 당장 내일 아침에 쌀거리가 없어서 밥을 못 먹게 돼도 오밤중에라도 쌀이 들어와요. 그건 무슨 연고냐. 말 없는 데서 무심도, 즉 무심으로써 모든 사람들한테 마음이 오고 가는 게 있기 때문에 인연의 끈과 끈이 다 직결돼 있어서 가설이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러니까 능력이 좀 있어야 모든 거를 놓을 수도 있는 거다 이 소리죠. 그게 능력이 없으면 놓을 수가 없거든요. 발발발발 하고, 당장 없는데 이걸 어떡하면 좋을까, 당장 안되는데 이걸 어떡하면 좋은가 하고 발발발발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량으로만 야단법석을 하니까. 워낙 보이지 않는 데서 벌써 작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만들어 주진 않고 자기가 그냥 발산을 하니까 그 말한 발산은 풍지박산이 돼서 없어지고, 귀신 방귀 뀌면 없어지듯이 없어지곤 말아 버린 거죠, 뭐. 그러니까 모든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하면 돌에 세워 놔도 산다고 그랬어요. 바가지 한 쪽이 없어도 '바가지가 없는데 어쩌나.' 하고, 금방 순간 없으니까. 이건 바가지로 비유하는 거예요. 쌀을 일 바가지가 없으니깐, '아이, 바가지가 없네. 이걸 어디다 일지?' 하고 하는 순간, 생각이 한 순간에 벌써 이게 바가지는 들어오고 있어요.

> 자기주인공이 없다면 지금 몸도 정신계도 없어요.
> 내가 없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 그러니까 '꼭 알아야 되겠다.
> 이 세상에 나와서 절대 그냥 갈 수 없다.
> 나를 움죽거리게 하는 놈이 어떤 놈인지 알아야 되겠다.' 하고
> 좀 그러란 말입니다.

이렇게 광대무변한 묘법인데도 여러분이 정신에게 기울이지 않고, 자기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을 믿고 자기를 다스리면서 그렇게 거기다 맡겨 놓을 줄 모르고 이렇게 생활을 하니까 뭐, 50% 가는 길밖에 모르는 거죠. 오는 길 50%하고 맞먹어서 이렇게 작용을 해야 될 텐데 그렇질 못하니깐 그런 거 아니겠소? 좀 어설프더라도 열심히, 열심히 자기 끌고 다니는 자기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모든 것은 거기에서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안되는 것도 거기니까 되게 하는 것도 거기다라는 거를 꼭 믿으셔야 합니다.

남은 인생 지혜롭게 살고 싶어요

문) 저는 정년퇴임하고 조용히 집에 있으면서 저를 돌아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곤 합니다. 지금까지는 가장으로서 최선을 다했고 가끔씩 크고 작은 문제들도 있었지만 크게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가족들 마음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 좀 더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 여러분이 어느 가정으로서 이렇게 한 모임을 가지고 한 식구라고 사는데요, 언제 적에 한 식구로 살았습니까? 영원합니까, 그게? 한 철 사는 겁니다, 한 철. 우리 스님네들이 한 철 나가서 살고 한 철 또 들어오고 이러는 거와 마찬가집니다. 그래서 한 철, 이게 한 철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철 이 집에서 모여서 살다가 또 헤어졌다가 다른 데 가서 또 한 철 삽니다. 그러니 네 부모 내 부모가 어디 따로 있습니까? 통틀어 본다면 네 부모 내 부모, 내 자식 네 자식이 따로 없어요. 또 그거보다 더 크게 본다면 사생이 따로 없단 얘기에요. 너무 모습을 바꿔 가면서 진화돼서 화해서 자꾸자꾸 돌아가니까요. 그러니 내가 위대하고 잘나고 조건 좋고, '내 이렇게 사니까 이만하면 만족해.' 이러지마는 그것도 틀린 거예요. 그것도 한 철이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한 철이다. 나그네 한 철. 인생은 나그네의 길. 이것을 한 철이라고 보죠. 한 철이라고 하는 데서 볼 때는 여러분이 전부 나그네의 길이에요, 이게. 무슨 어디 내 남편 내 자식 이거 착 두지 마세요. 착을 두면요, 더 외려 걸려서 법망에 걸리고, 레이더망에 걸리면 가지 못하죠? 자꾸. 그렇듯이 유의 세계 무의 세계를 넘나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옴치고 뛰지도 못해 가지고 자꾸 걸려 가지고 되는 노릇이 없거든요. 그러니 모든 자손들과 남편과 아내 모두, 어떠한 일이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주인공밖에는 해결 못하는 거, 주인공이 다….' 주인공은 다 같거든. '주인공이 다 끌고 다니는 건데, 주인공 운전수가 다 끌고 다니지 내 어찌 그것을 맘대로 하랴. 주인공밖에는 해결 못한다.' 하고 믿으면서 딱 놔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야 이것이 발이 묶이지 않으니까. 이 마음 자체가 체가 없으니까 발이 묶이지 않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다가 육신을 잘 끌고 다니는 거다. 여러분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잘못되는 것도 마음으로 지어서 잘못되는 거죠. 내가 꼭 저걸 괜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가지고는 돈을 왕창, 돈 쪼끔 탄 거 가지곤 왕창 들여 가지곤 홀딱 집어먹고선 죽겠네 살겠네 하거든. 그것도 자기 마음이에요. 그것이 너그럽게 볼 수 없는 그런 눈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육안으로만 봤기 때문에. 심안을 통해서 봤더라면 그것이 그렇지 않을 건데, 그게 그렇게…. 가난한 것도 그렇고 모두가 전부 보면 자기 탓이에요. 그 억지로 못해요.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그 계발을 해서 내 마음에 놓는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섯 가지가 계발이 된다. 그 다섯 가지가 계발이 되면 오신통을 그대로 여여하게 할 수 있는 자유권을 얻을 때 그때 다시 체험을 하면서 또 보임을 한다.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자연적으로 우주 법계가 다 공통점이 될 수 있어요. 우주 법계가 다, 우리네 몸뚱이에 그 법계가 있는 거와 같이, 법망이 있고 법계가 있고 그렇듯이 그냥 전부 통해요. 즉 말하자면 그 통신망을 넘나든다는 얘기죠. 통신, 이 천체 통신. 통신이 잘되니까 심안으로도 밝게 볼 수 있고 또 그게 통신이 되면 모습 없는 모습들이 천이, 신족 이런 거, 타심 숙명 이런 것이 다 발로가 돼서 동시에 용도대로, 미리미리 그냥 이렇게 한생각이 나면 그냥 그 즉시 찰나의 살림살이죠, 그래서. 그대로 그냥 바깥으로 나오는 현실이에요.

불법은 생동력 있는 현실이지 죽은 게 부처님 법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심성과학이라고도 할 수 있고 천체물리학이고도 할 수 있죠. 아니 학술이 들어가도 되죠, 전체니까. 그러니 인간으로서 태어났으면 이 도리를 알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자 세상보기

6.4 선거, 민주주의 그리고 '평형수'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요 축제이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by the people'의 위력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도 하고 허리 굽혀 다가오는 후보자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허세도 즐길 수 있다. 그런데 이번 6.4 지방선거는 참으로 침울하게 치렀다.

세월호의 침몰은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이루었다는 그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허상이 낱낱이 노출된 참담한 사건이었다. 국민들은 슬퍼하고 분노했다. 동시에 대한민국을 이끌어 온 공직자와 정치인을 비롯한 소위 지배 엘리트에 대한 절망도 극에 달했다. 대한민국호의 '평형수'의 부재는 결국 세월호의 침몰로 이어진 것이다.

이제 지방자치호의 선장과 항해사 등을 새롭게 뽑았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절망 속에서 지방선거가 끝났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배를 띄우고 항해를 시작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덕목이다. 그만큼 선장과 항해사의 역할이 매우 크다. 세월호의 침몰과정에서 보여준 선장과 항해사의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되새기고 싶지도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자주 회자되던 지방자치 단체장의 비리가 새삼스레 이와 연결된다.

한국의 정치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다. 세월호 침몰 사건은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미국의 교육사회운동가인 파커 파머(P.J. Palmer)는 "Healing the Heart of Democracy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으로 국내출판)"에서 이 시대의 정치를 '비통한 자들의 정치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는 국민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드는 정치를 보면서 민주주의의 치유를 '마음수행'의 가능성에서 찾고 있다. 즉 민주주의의 성패를 마음 수행에 두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한 물리적, 제도적 인프라보다 귀중한 것이 민주적인 정의사회를 창출하는 '마음공부'라는 것이다.

흔히 마음공부에 몰두하는 사람은 정치와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고민보다는 자기 존재에 대한 물음을 하는 자로서 속세에서 먼 사람으로 인식하기 쉽다.

그러나 파머는 내면과 외면을 분리시키는 생각 자체가 지금의 정치와 민주주의를 왜곡시키는 뿌리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온갖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음이 부서지고 깨진다. 당위와 현실의 비극적 간극 사이에서 비통한 자들이 된다. 고해의 바다를 항해하면서 나타나는 당연한 현실이기도 할 것이다. 문제는 이 비통함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찾느냐에 있다. 여기서 마음수행의 중요성이 나타난다. 마음수행의 핵은 '부서져서 흩어지는 것(broken apart)'이 아니라 '부서져서 열리는(broken open)' 마음이 되는 것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소쩍새는 가슴 아프게 우는 것이리라.

지금 우리의 마음은 부서지고 깨져 있다. 부서져서 수천 개의 조각으로 흩어진다면 결국 우리는 분노와 파멸의 늪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면서도 흩어지지 않고 복합성과 모순을 끌어안을 위대한 능력으로 열린다면 그 결과는 새로운 희망의 마당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부서지고 깨지면서 열린 마음이 되는 길은 마음속에 일어나는 각종 번뇌와 모순을 긴장감 있게 포용하면서 자비스럽게 바라보는 것이리라.

정치란 권력을 사용하여 인간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인간적인 기획이다. 부서지고 깨지면서 열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보다 정의롭고 자비로운 세계를 만들 지혜와 용기를 생성시키는 원천이다. 비통한 사람들의 마음수행은 결코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와 민주주의의 '평형수'이다. 그래서 비통한 사람들의 이번 선거는 범상치 않다.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발언대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을 마치며

지난 3월 2일 제주 한라산 백록담에서 천고제를 지내고 3일 법경사를 시작으로 진행된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가 6월 10일 회향했다. 회향 후에는 진영 논리를 타파해낼 '대한민국 야단법석 시민위원회'를 구성했다. 100일간 순례를 통해 순례단이 느낀 점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화쟁의 꽃' 피워내겠습니다



성유진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 본대

순례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낯설었던 '화쟁', 길을 걸으며 사람들을 만나고, 길 위에서 얻어먹고 자는 생활들이 익숙해질 100일 무렵에 순례가 일단락됐다.

화쟁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내가 순례길에 함께 나설 마음을 먹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도법 스님께서 쓰신 〈지금 당장,〉을 보면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치유해낼 중재자 또는 조율자가 없다며 통탄하는 대목이 나온다.

갈등의 당사자들이 '화쟁꾼'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 갈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들은 싸움꾼이 되고 만다. 밀양 송전탑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자 시골 할머니 · 할아버지들이 전사가 되어 마을을 지키고 계신 모습을 봤다. 그 싸움에서 그분들을 버텨내도록 하는 것은 지금까지 시민사회에서 해온 연대의 방식으로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싸움을 멈추고 다시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진 못했다.

일면적인 평가일지 모르지만, 화쟁 순례를 오기 전부터 수많은 한국사회의 갈등 현장들을 보면서 느꼈던 한계다. 그것을 나 자신의 한계로 성찰하게 되었을 때, 도법 스님의 통탄이 마찬가지로 나의 안타까움이 됐다.

사람들에게 '화쟁 순례'를 했다고 하면, 순례 동안 화쟁을 널리 펼치고, 첨예한 갈등을 뚝딱 해결해냈길 기대하는 것 같다.

그러나 실제로 순례길에서 우리는 배우느라 바빴다. 소박한 삶을 이어가기 위한 바람이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 안타까운 현장에서, 갈등과 대립이 사람과 사회에 얼마나 아픈 일인지 배웠다.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싸움에 나선 사람들의 정의로움과 용기를 배웠다.

우리의 모든 걸음과 배움이 '화쟁꾼'으로서의 실력으로 쌓였기를 빈다. '화쟁의 꽃을 피워낼 수 있도록 좋은 밭을 일구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100일 간의 순례를 마음에 새기고자 한다.

"내 몸짓 하나가 생명평화의 걸음"



박상진
화쟁코리아
100일 순례단 간사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 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순례 중 잠시 짬이 나 본 영화 〈역린〉에 상책(왕의 서책을 관리하는 직책)의 대사다. 정유역변이라는 모티브로 상상이 가미된 팩션영화이긴 하지만 순례 중인 나에게는 또 하나의 순례로서 다가왔다. 극중에서 정조 즉위 1년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세상을 바꾸고자 했던 정조는 '중용' 스물세 번째 장의 구절을 이용해 메시지를 던진다. 순례를 마무리 할 때가 돼 '자신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는 순례에 지극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이해를 옮겨갔다.

순례가 거의 끝나가는 지금 출발할 때를 돌아보면 원효스님의 '화쟁' 정신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길에서 배움을 얻겠다는 마음 반, '100일이란 시간으로 사회에 어떤 변화와 흐름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의문도 절반이 있었던 것 같다. 하지만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 스승이라는 마음으로 배우며 '화쟁'의 씨앗을 심고 크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걷다보니 나에게도 내가 만났던 상대에게도 작지만 변화가 있었다.

순례단이 순례를 시작하고 마칠 때 마음을 모았던 생명평화 100배 서원 절명상이라는 순서가 있다. 서원 중에는 "내 작은 몸짓하나하나가 생명평화의 큰 걸음"이라는 서원이 있다. 비록 서툴고 쉽진 않겠지만 순례 때처럼 내 자신을 성찰하며 내가먼저 손 내밀고 마음을 여는 하루하루를 살아낼 때 전국에 순례단과 함께 심은 화쟁의 싹이 아름드리나무로 쑥쑥 자라나리라 믿으며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고 싶다.

社說

문화재 도난 줄이는 성보 백서 발간

조계종 문화부가 도난 문화재 실태 파악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 부쳤다. 최근 경매장서 잇달아 도난된 문화재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도난백서까지 새롭게 제작할 계획이다. 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적 크게 일자 한층 더 강화할 목적이다. 이에 현재 조계종 문화부측은 불교문화재연구소, 불교중앙박물관 직원들이 그동안 모아온 도난목록 대조작업중이다. 향후 호법부와도 연계해 도난당한 성보 문화재 정보도 정리한다.

조계종이 그동안 도난문화재 관리 노력을 전혀 안했던 것은 아니다. 이미 1984년 1월부터 1999년 6월까지 불교회화, 불교조각, 탑파, 석등, 불교공예, 전적, 경판 등 도난된 불교문화재를 대상으로 백서를 발간했다. 또한 지금까지 총 300여 점의 도난문화재 향방도 파악했다. 물론 도난시기, 유통경로 등에 대한 기록부족으로 회수는 못했다.

하지만 이번 백서가 발간돼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다면 도난된 불교문화재가 거래되는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그래서 도난품 거래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성보 도난도 줄어들 것이다. 문화부가 노리는 효과도 바로 그것이다.

그만큼 도난 백서의 발간은 도난 문화재 회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조계종 문화부는 5월 29일 〈도난백서〉 등을 토대로 전시전 물품 모니터링을 통해 경매 직전 도난문화재를 발견해 회수했다. 이 모두가 도난 백서가 있어 가능했다. 조계종 성보보존위가 최근 발간한 〈성보〉 9호를 보면 조계종이 사찰문화재 실태파악, 도난백서 발간 등에 나선 2002년을 기점으로 매년 10건에서 4건 이하로 성보문화재 도난사건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밝혔다. 발간 이후 공항과 항만, 경찰서 등에 배포돼 도난문화재가 불법으로 해외로 유출되는 것이 방지됐기 때문이다. 감시 관리를 더하면 분명 더 줄을 것이다. 백서 발간을 계속 충실히 보완해주길 바란다.

청소년 출가 장학제도는 인재불사다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 해결은 한국불교의 큰 숙제이다. 인재가 줄고 나이가 드는 것은 한 집단에 있어 그리 반가울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출가 인재의 감소는 너무 뚜렷하다.

조계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0년 출가자는 476명으로 지난 10년간 꾸준히 줄고 있는 중이다. 실제 2011년 268명이었던 출가자수는 2012년에는 219명으로 뚝 떨어졌다. 10여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치다.

이 같이 젊은 인재의 출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제도 중 하나가 '청소년 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이다.

'청소년출가, 단기출가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6월 제정, 8월에 공포됐으며, 이후 일부 개정과정을 거쳐 올해 4월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됐다. 이에 따라 조계종 등록 청소년 출가자들은 다양한 장학지원과 특례 혜택을 받게 된다.

실제 특별법에 의거해 만 13~19세의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소년출가자들은 행자교육과정 중 일상 · 입문 · 본사교육이 면제되고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불교대학 등 종립대학에 진학할 경우에는 등록금과 수업료를 지원한다.

만 19~30세 청년 출가자도 사미 · 사미니계 수지 후 승가대학에 진학할 경우 우선선발 특전과 종립대학에 등록금 및 수업료를 지원한다. 군법사에 지원할 경우 우선 선발과 전역 후 공찰사암 우선 임용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혜택을 받을 대상자는 모두 41명이다. 이들이 원만히 혜택을 받고 인천의 스승으로 거듭나는 데에는 종단의 관심과 역할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특별법을 통한 장학 사업이 끊기지 않고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 인재는 하루 아침에 양성되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는 투자만이 양질의 인재를 만들 수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전국
서울. 수원

수강생모집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 40-0863341호
서비스등록번호 : 41-0213393호
저작권등록번호 : C-2011-003967호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신문,인터넷, 정 · 부정기 간행물, 도서, TV, 유 · 무선라디오 광고 및 교재 무단복제, 강의하면 민 형사상 엄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 저작권 : 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상표법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저작권자
상표권자 정흥교 (법화 종헌)

저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교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강의 일정표
◇ 제 1일 – 구단구궁의 제법칙
◇ 제 2일 – 구단구궁비결 문구해석
◇ 제 3일 – 교재 중심(일련의 사태 재해석)
◇ 제 4일 – 구단구궁용신의 제밥칙
◇ 제 5일 – 구단구궁 실전감정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구단구궁법대학
경기도 화성시 떡전고을로 114-1. 1층 (서울지하철 1호선 병점역 앞) ☎ 전화 010-7415-0803
인터넷 검색창 : 구단구궁법
〈우체국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法果

생활속에 만나는 부처님 말씀

지혜와 깨달음을 담은 법구경, 그 귀한 가르침을 법과에 담았습니다. 과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귀한 가르침!

세대를 가리지 않고 진한 감동을 선물할 수있는 법과.. 법과와 함께 하세요!

■ 법과란?

기존의 포춘쿠키를 현대적이고 불교식으로 재해석하여 생활법구경, 각종 행사 용도에 맞는 문구를 넣어 불교형으로 탄생시킨 것이 **'법과(法果)'** 입니다

법과는 과하지 않으면서 고급스러운 법과전용 포장지에 포장되며
법과안에는 법구경의 지혜로움이 적혀있는 슬립지가 있습니다.

쿠 키



포장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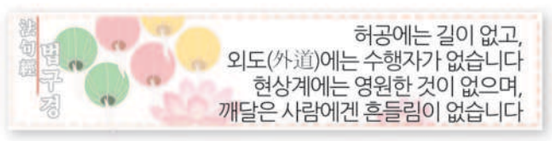
슬립지

■ 앞면예시



원하시는 문구(30자 이내)를 넣을 수 있습니다.

■ 뒷면예시



현대어로 재편집된 생활 법구경이
각각 다른디자인으로 랜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 법과의 효능

이미 많은 사칠과 불교 단체, 기업 등 3,000여 곳이
법과(法果)를 활용한 봉축행사, 템플스테이, 어린이법회, 광고,
돌잔치, 결혼식, 전시회, 경품당첨 이벤트 등을 통해
효과를 경험했고, 점차 그 활용범위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 법과와 함께 하세요!

"부처님과 함께하는 기쁜 날,
法의 지혜를 나누며
법과와 함께하세요~"



법과 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TEL 02)2004-8216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500개 이상부터 주문가능하며 원하시는 이미지 / 문구를 넣으실 수 있습니다.